함께하는 사랑방

사회공헌 칼럼 | 2024~2026

이 칼럼집은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고,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사회공헌 활동경험을
나눌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함께하는 사랑방

사회공헌 칼럼

1판 1쇄 2026년 10월 12일

엮은이 금융산업공익재단

펴낸이 주완 /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장

펴낸곳 금융산업공익재단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23 인농빌딩 8층
E kfif@kfif.or.kr

ISBN 979-11-220386-1-3

가격 비매품

디자인 • 편집 도서출판 아웃룩

이 책은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소중한 자산이므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합니다.
잘못 만들어진 책은 교환해 드립니다.

금융산업공익재단

발간사

PREFACE

주완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장

지난 2024년 초, 재단은 홈페이지에 칼럼 공간 「함께하는 사랑방」을 열었습니다. 사랑방은 예로부터 안채와 떨어진 사랑채에서 손님을 맞고 담소를 나누며 정보와 지혜를 주고받던 우리 고유의 공간입니다. 일찍이 하버마스가 근대 유럽의 공론장을 논하였듯, 이 방 역시 누구나 동등한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허심탄회하게 사회가 직면한 문제와 사회공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 8개월, 「함께하는 사랑방」에는 재단 관계자를 비롯하여 학계 및 언론기관 전문가 그리고 우리 재단의 사업수행기관 관계자를 비롯한 NGO 활동가 등 다양한 필자들이 참여하여 주옥같은 글 50편을 올려주셨습니다. 이에 우리 재단은 이번 「2026년 사업보고회」를 맞아, 이를 모아 재단 설립 이래 첫 칼럼집을 펴내는 뜻깊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50편의 글은 저마다 다른 자리에서 각자의 다른 시선으로 출발하였으나, '밝고 따뜻한 사회'를 향한 공통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향한 측은지심과 세대와 계층을 넘나드는 진솔한 소통 그리고 각고의 노력으로 빚어낸 통찰과 혜안을 담아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할 질문들을 던지고 그 대안을 담담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라는 말처럼,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구현과 더불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명제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글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이번 칼럼집은 모두 다섯 개의 큰 주제로 나누어 엮었습니다. 먼저 1장 ‘시대를 읽다_우리 사회의 진단과 과제’는 한국 사회가 마주한 구조적 문제를 예리하게 짚어보며 첫 장을 열었고, 2장 ‘나눔의 방식_공익재단과 사회공헌의 길’에서는 공익법인과 ESG의 역할을 조망하는 한편,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이어온 재단의 사업공모 활동을 갈무리하며 재단이 나아갈 방향을 성찰한 글들을 한데 묶었습니다.

이어 3장 ‘포용금융_금융의 문턱을 낮추다’에서는 채무조정 및 주거금융 등 사회적 금융과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그리고 금융복지를 깊이 있게 다룬 글들을 묶었으며, 4장 ‘일과 미래세대_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서는 청년의 자립과 제도 밖 프리랜서·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함께 조명하며 일할 기회와 다음 세대라는 두 화두를 교차하는 글들로 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장 ‘지역과 세계_함께 사는 공동체’는 의료·돌봄 서비스 등 지역 상생의 현장과 더불어 글로벌 협력 사업의 발걸음을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칼럼집 발간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특히 사회적 도움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척박하고 험한 세상을 건널 수 있는 든든한 다리가 왜 필요한가를 성찰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 책이 시민사회와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및 학생들 그리고 기업의 사회공헌 부서를 비롯해 나눔과 공익활동 현장에서 두루 읽히고 업무에 참고가 되는 자료로 쓰이기를 바랍니다.

재단은 앞으로도 은행권 등 금융산업 종사자들의 뜻을 받들어, 사회 곳곳에 온기를 전하고, 소외된 이웃을 보듬고 응원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귀한 글을 보내주신 집필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각고의 노력으로 빚어낸 이 책이 오래도록 많은 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으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추천사

Foreword

윤석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출발부터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금융노조 조합원들과 금융기관 사용자들이 함께 뜻을 모아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단위 노사 공동 공익재단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 인상분 일부를 기꺼이 내놓고 사용자도 함께 출연해 마련한 소중한 기금은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금융노사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고귀한 뜻은 지난 시간 여러 현장에서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으며,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와 이웃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지역과 세대를 잇고 금융교육의 기회를 넓히는 데에도 힘써왔습니다. 이제 재단은 포용금융, 일자리, 미래세대, 지역상생이라는 네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마주한 문제에 한 걸음 더 깊숙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번 「함께하는 사랑방」의 발간 역시 그러한 연대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나눔의 의미를 되짚으며, 포용금융과 일자리, 미래세대와 공동체의 내일을 이야기하는 쉰 편의 글에는 저마다 다른 경험과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고, 그 생각이 새로운 실천으로 이어질 때 우리 사회는 보다 따뜻한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방'은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지혜를 보태던 공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제목만큼 따뜻한 이름도 없을 것입니다. 이 책이 이미 만들어진 답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함께 묻고 이야기하는 새로운 사랑방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금융노조 역시 금융산업공익재단을 함께 만든 한 축으로서 그 출발의 뜻을 잊지 않겠습니다. 금융노동자의 연대가 일터의 울타리를 넘어 우리 이웃과 사회를 향하고, 금융의 성장과 성과가 더 많은 국민의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글로 나눠주신 필진 여러분과 한 권의 책이 나오기까지 애써주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가 이 책에 고스란히 담긴만큼, 많은 이들에게 읽혀져서 금융산업공익재단이 걷고자 하는 따뜻한 여정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사랑방

사람이
세상을 잇다

금융이
내일을 만들다

목차

발간사 / 7

추천사 / 11

01 시대를 읽다
우리 사회의 진단과 과제

02 나눔의 방식
공익재단과 사회공헌의 길

03 포용금융
금융의 문턱을 낮추다

04 일과 미래세대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05 지역과 세계
함께 사는 공동체

01

시대를 읽다
우리 사회의 진단과 과제

「함께하는 사랑방」의 문을 열며 | 추원서 / 24
꿈의 연대(連帶) | 배정희 / 28
'나 홀로 사회'의 사회학 | 김호기 / 32
한국 노사관계의 패러다임 전환 | 노광표 / 36
태정(怠政)과 우환의식 | 이강범 / 42
정부의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처방 | 박준식 / 48
AI 문명시대와 대한민국의 '진짜' 국운(國運) | 조대엽 / 54
한국 사회 불평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법은? | 이종선 / 60
조건부 감사함! | 박동호 / 70
연령주의라는 오래된 차별 | 정회옥 / 78

02

나눔의 방식
공익재단과 사회공헌의 길

공익재단의 모범으로서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역할을 기대하며 | 송경용 / 86
ESG 시대의 기업 사회공헌 | 이종익 / 92
공익법인의 협업이 필요한 이유 | 강 혁 / 100
대형 산불을 보며 다시 생각해 보는 ESG | 고대권 / 104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힘… | 남기창 / 108
돈이 아니라 권력을 나누는 사회공헌은 가능한가 | 김경하 / 114
그늘진 곳곳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관심과 응원 그리고 참여를 기대하며 | 공광규 / 120
'기업가형 자선(Entrepreneurial Philanthropy)'의 시대 | 최재호 / 124
재단의 「제2회 사업공모전」에 붙여 | 추원서 / 130
금융산업공익재단, 2025년 사업공모전을 마무리하며 | 박준범 / 134

03

포용금융
금융의 문턱을 낮추다

어른들의 숙제 | 최현자 / 142
함께 건너는 희망의 다리 | 이계문 / 146
어려울수록 빛을 발하는 사회적금융 | 박향희 / 150
청소년들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마중물 | 이복순 / 154
실생활에도 입시에도 도움 주는 경제교육 | 이옥경 / 158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교육 일선에서 | 안기천 / 164
'적절한 주거'를 위한 첫걸음, '든든한 주거복지기금' | 이제원 / 168
채무조정은 실패의 낙인이 아니라 재기의 안전망이다 | 유송화 / 172
주린이의 금융시장 동참기 | 송호근 / 178
흔들리는 시장에서 금융 마인드셋을 생각하다 | 차경욱 / 186

04

일과 미래세대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남과 북의 만남을 위하여 | 김영우 / 194
실패할 기회 | 이문수 / 200
키 큰 나무숲을 지나니, 내 키가 커졌다 | 한수정 / 204
토양을 다지고 노둣돌을 놓아둠으로써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다 | 석원정 / 208
닫힌 문 앞에서 기다려주는 일 | 전상혁 / 214
제도 바깥 나 홀로 노동자의 상호부조를 위한 마중물 | 송명진 / 218
비정규직 미디어 노동자들을 위한 너, 나, 우리 위튜브 | 권지현 / 224
함께 만드는 자립의 힘, 한부모가정의 더 나은 내일 | 이봉원 / 230
휠체어 이용자가 모은 경사로 데이터가 AI 시대의 경쟁력이 된다 | 홍윤희 / 236
자립준비청년의 '진짜 자립'을 묻다 | 조현식 / 242

05

지역과 세계

함께 사는 공동체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금융산업공익재단과 함께한 평등의료 이야기 | 임상혁 / 252

국제사회의 인도적 위기와 미국의 대외 원조 삭감 | 오준 / 258

'보통의 삶'을 선물하는 공덕(孔德)의 작은 공방 | 정석왕 / 262

밥상에서 시작된 변화 | 이현지 / 266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 | 현진영 / 272

'부정에서 긍정으로, 수동에서 능동으로' 그 가능한 변화들 | 강정희 / 278

제주 수눌음 공동체를 회복하는 여정 | 강호진 / 282

현장에서 만난 '순환경제' | 김지연 / 286

필리핀 파야타스 소나타 | 최정식 / 292

금융산업공익재단과 함께 걷는 디지털 포용사회로 가는 길 | 박승진 / 298

01

시대를 읽다

우리 사회의 진단과 과제

01

시대를 읽다

「함께하는 사랑방」의 문을 열며

추원서
금융산업공익재단 상임이사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다. 솟아오르는 태양을 맞으며 새해의 소망을 빌어본다. 나라의 발전과 세계 평화와 같은 거대한(?) 꿈도 좋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가족과 지인들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편치 못한 이웃들의 고단한 삶이 나아지는 것이 우선적 소망일 것이다. 부대끼는 삶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북돋아 주는 그런 한 해를 기대하는 것이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이하 재단) 역시 그러한 꿈을 꾸고 있다.

재단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금융산업 노사가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으로 금융산업 발전, 노사관계의 선진화,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나눔을 실천하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차가운 곳에 온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을 지향한다. 지난해 10월로 설립 5주년을 맞이한 재단은 이제 본궤도에 오른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재단 내에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새해 초에 재단 홈페이지 내에 신설한 〈칼럼: 함께하는 사랑방〉이 바로 그것이다. 이 방에는 재단 관계자는 물론 학자와 시민단체 활동가 등 관련 전문가 그리고 일반 시민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일러두기 재단 홈페이지 게재일 : 2024년 1월 3일

일찍이 하버마스(Habermas)는 17세기 말과 18세기 초 유럽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커피하우스, 살롱, 테이블사회 등을 공론의 장으로 보았다. 그는 이들의 공통된 특징으로 동등성(equality), 문제제기(problematization), 포괄성(inclusion)이라는 세 가지 점을 지적했다. 일부 학자들은 시민사회와 NGO의 탄생을 이러한 공론의 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 곳은 바로 전통가옥에서 볼 수 있는 사랑방(舍廊房)이다. 이 방은 안채와 떨어져 있는 가부장의 생활공간이면서 동시에 손님을 접대하거나 묵객 등이 모여 담소하고 취미를 즐기던 공간이었다. 자연스럽게 정보 교류와 의사소통의 기능을 수행했다. 양반 사대부들의 집에는 반드시 이 같은 사랑채가 갖추어져 있었다.

새롭게 문을 연 현대판 「함께하는 사랑방」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발전을 소망하는 이들의 소통과 대화의 광장이 될 것이다. '밝고 따뜻한 사회'를 위한 각종 제언과 함께 사회공헌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플랫폼을 지향한다. 참여자들은 동등한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각자가 생각하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주제는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게 된다. 각자가 연구하거나 활동하는 분야에서 느끼거나 함께 고민하고 싶은 주제는 물론, 인문학적 소양과 관찰 그리고 취미생활을 통해 터득한 지혜나 통찰 등 가벼운 주제도 환영받을 것이다. 최근에는 거의 들을 수 없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주 언급되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라는 슬로건을 좋아했다. 재단은 이 같은 슬로건이 실천되는, 정의롭고 공정한 재단 운영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활동을 통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명제가 실현되기를 소망한다. 재단의 활동이 사회적 도움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척박하고 험한 세상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새롭게 문을 연 「함께하는 사랑방」에 많은 뜻있는 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01

시대를 읽다

꿈의 연대(連帶)

배정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아직 찬 기운이 가시지 않은 2월 중순부터 말까지 대학 캠퍼스에는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들뜬 설렘의 기운이 가득 찬다. 대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졸업가운을 입고 캠퍼스 곳곳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사진을 찍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대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선배들의 안내를 받아 학생 식당과 과방, 도서관 등을 구경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 캠퍼스를 누비기 시작한다. 졸업생들은 더 넓은 세계로 발을 내디디며 나아가고, 그 빈자리는 또 다른 누군가의 꿈으로 채워진다.

얼마 전 학과 졸업식에서 축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사회복지학과 졸업생들에게 환경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할 때 거의 제일 처음으로 배우는 이론이 생태체계이론인데, 그 이론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체계들과 끊임없이 상호 교류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환경체계는 미시적 환경체계인 가족과 친구들, 중간체계인 학교와 지역사회, 거시체계인 제도와 법, 문화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인간은 주어진 환경에서 적응하거나 그 환경을 변화시키며 살아가게 된다. 나는 졸업생들이 가장 본인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응원하고, 또 동시에 누군가에게 조금 더 친절

일러두기 재단 홈페이지 게재일 : 2024년 2월 27일

하고 안전한 환경체계가 되어주기를 당부하였다. 그래서 훗날 조금 더 평등하고 연대하는 사회가 오기를 바란다는 꿈을 이야기하였다.

한편, 오래전 나의 입학과 졸업을 떠올리며, 학교에 입학하며 꾸었던 꿈들은 모두 이루어졌는지, 졸업하며 소망했던 사회는 다가왔는지 물어본다. 사회복지를 전공하며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는 비전은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낙인 없이, 혐오나 차별 없이, 결핍되고 필요한 서비스들을 권리로서 제공받는 것이다. 약 15년 전, 나는 그 해법이 민간의 자유롭고 선한 의지로 만들어진 사회적기업이라고 생각했고, 여전히 이에 대해 공부 중이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의 개념이 국내에서 꽤 많이 보편화되고 제도화된 지금 이 시점, 과연 우리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직 의문이다. 법과 제도는 어느 정도 구축된 것 같은데, 차별과 혐오는 오히려 더 많아진 것 같기 때문이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사회가 연대와 호혜의 정신보다는 능력주의를 가장한 차별과 혐오에 더욱 익숙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울 때가 많다.

그래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비슷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폐지 줍는 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고물상을 찾는 학생이 있고, 니트청년을 돕기 위해 원하는 니트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회적기업가가 있고, 학교에서 제대로 커리큘럼이 정착되지 않은 ESG에 대해 동아리를 만들어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다. 10여 년 전 내가 동료들과 꾼 꿈들이 여전히 누군가로부터 이어지고 있음을 느낄 때, 나는 그것을 꿈의 연대(連帶)라고 부르고 싶다. 나의 꿈 또한 오래전부터 시민사회 운동과 대안경제 운동을 해온 선배들의 꿈에 대한 연대라고 볼 수 있겠다. 아주 더디더라도, 아주 조금씩 이더라도 우리의 환경체계는 늘 변화한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이들의 연대가 지속되는 한 우리는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으리라는, 그래서 높은 자살률, 심각한 소득 불평등과 같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현실도 언젠가 조금씩 해결되리라는 소망을 가져본다.

01

시대를 읽다

‘나 홀로 사회’의 사회학

김호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일러두기 재단 홈페이지 게재일 : 2024년 6월 24일

21세기에 들어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회학적 현상 가운데 하나는 ‘나 홀로 사회’의 도래다. 통계가 이를 잘 보여준다.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인구 중 혼자 사는 1인 세대는 1,002만 1,413세대로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2,400만 2,008세대의 41.8%를 차지했다. 열 세대 중 홀로 사는 세대가 네 집이 넘으니 우리나라는 이제 ‘나 홀로 사회’로 들어선 셈이다.

나 홀로 세대에서 주목할 것은 연령 구간에서의 규모와 비중이다. 먼저 그 규모에서 60대(60~69세) 1인 세대는 185만 1,705세대로 가장 많았다. 30대(30~39세)는 168만 4,651세대, 50대(50~59세)는 164만 482세대를 기록했다. 한편, 연령층 인구 비중도 염두에 둬야 한다. 3월 말 기준 60대 인구가 769만 명, 30대 인구가 656만 명임을 생각할 때, 30대 가운데 혼자 사는 이들의 비중이 60대의 비중 못지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1세기에 들어와 지구적 차원에서 나 홀로 사회의 경향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 원인은 여럿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이혼·별거로 인한 가족 해체,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독신가구의 증가, 그리고 젊은 세대의 비혼·만혼 추세의 강화 등이 주요 요인이었다. 이처럼 그 원인이 경제

적 상황, 인구 변동, 개인주의 문화 등 다양한 만큼 나 홀로 사회가 직면한 사회 문제들 역시 다양하다. 1인 세대의 빈곤·일자리·안전 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어느 나라든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회학적으로 나 홀로 사회의 도래는 인류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가족이라는 제도가 쇠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구 사회든 우리 사회든 앞서 지적했듯 점점 증가해 온 1인 세대의 비중은 그 단적인 증거다. 문제는 이러한 나 홀로 사회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다. '나'라는 존재의 부상과 '우리'라는 가족의 쇠퇴를 하나의 잣대로만 평가하기 어렵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이들에게는 나 홀로 사회의 그늘이 먼저 눈에 들어오겠지만, 개인을 중시하는 이들에게는 나 홀로 사회의 불가피성이 먼저 수긍될 것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나 홀로 사회에 대한 성찰적인 태도다. 나 홀로 삶은 분명한 자유로움과 만족감을 안겨줄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쓸쓸하고 고독한 삶이다. "우리는 각자 존재하고 나는 홀로 소멸한다". 나 홀로 사회에 대한 사회학적 관찰자인 지그문트 바우만의 말이다. 혼자 살아간다는 쓸쓸함은 사회적 고립을 강화시키고, 삶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고립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의의 행진을 그렇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시대의 도도한 흐름이다. 특히 청년세대의 경우 그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과 공동체의 공존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지가 점점 더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다루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는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다. '따로' 그리고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일궈가야 할 과제를 우리 사회는 안고 있다고 봐야 한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 홀로 사회가 거역하기 어려운 시대적 흐름이라면 이에 대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대응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국가와 시민사회는 나 홀로 사회의 공고화에 대응해 사회·경제적 삶의 질을 개선할 사회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주거·일자리·안전 등 1인 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과제에 더해 개인적 대응도 중요하다. 나 홀로 사회에서는 자기 삶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자아의 성찰적 능력이 배양돼야 한다. 또 훼손된 공동체적 유대를 회복할 수 있는 시민문화의 역량이 증가돼야 한다. 개인 차원에서 자아의 성찰적 힘을 기르고 사회적 차원에서 연대의 시민문화를 일구는 시민교육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추진해야 한다.

시대의 변화를 거역하기 어렵다면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21세기 현재, 나의 욕망, 이익, 가치를 선행하는 것은 없다. '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 그러나 동시에 나의 욕망, 이익, 가치가 배타적으로 추구된다면 '우리'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사회의 다른 이름이 '각자도생' 사회다. '나'와 '우리'의 생산적 공존을 추구하는 새로운 삶을 어떻게 일궈 가느냐에 우리 사회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01

시대를 읽다

한국 노사관계의 패러다임 전환

노광표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일러두기 재단 홈페이지 게재일 : 2024년 7월 31일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세상은 장밋빛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진행 중이고, 미증유의 위기 극복 처방전은 전 세계를 인플레이션과 부채 증가로 허덕이게 했다. 우리나라도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낯선 환경이 서민들을 꼼짝달싹 못 하게 하고 있다. 일시적 위기라면 '시간이 약'이겠지만, 위기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이다. 경제 불황의 장기화와 함께 새로운 도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 지방 소멸, 불평등 심화와 노동 양극화, 인공지능(AI) 혁명과 기술 패권, 기후 위기 등이 그것이다.

뜻을 모아도 위기 극복이 만만치 않은데 사회·정치세력 간 갈등과 대립은 더 커지는 양상이다. 전경련(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갈등지수는 55.1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가 가운데 멕시코(69점)와 이스라엘(56.5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고, 정부의 갈등관리 지수는 27위로 낮았다. 또한 한국리서치(2023년 5월) 집단별 갈등조사를 보면 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94%로 가장 높았고, 진보와 보수(92%), 부유층과 서민층·기업가와 노동자(88%), 정규직과 비정규직·기성세대와 젊은 세대(84%)의 갈등이 크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사회 집단 간 갈등이 한층 더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적 사회 갈등 요인인 노사관계를 보자.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오랜 역사에 비해 집단적 노사관계의 역사는 일천하다. 산업화의 시대였던 1960년부터 80년대 중반까지 노동조합은 이념적 배제와 탄압의 대상이었다. 1987년 6월 시민항쟁과 연이어 터져 나온 7·8·9월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노동조합은 마침내 사회적 시민권을 획득하였다. 노동조합으로 뭉친 노동자들은 '선(先) 성장 후(後) 분배'의 성장 이데올로기를 뿌리치고 '노동자도 인간'임을 선언하였다.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1988년에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고, 장시간 노동도 시나브로 축소되었다. 1990년에 2,677시간이었던 연간 노동시간은 2023년 1,874시간으로 단축되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억눌렸던 노동자의 거센 요구와 저항은 극심한 노사갈등을 동반하였다. 또한 사용자들의 노조 불인정과 배제 전략은 노사갈등에 기름을 끼얹는 행위였다. 결과적으로 1987년 이후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의 노사관계는 갈등과 대립의 적대적인 관계였다.

우리의 노사관계를 참여와 협력의 공생적 관계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의 노사관계가 효율성도 낮고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사관계는 유럽 국가와 달리 기업별 노동 체제를 특징으로 한다. 노동조합도 기업 단위로 만들고, 단체교섭도 기업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기업별 노사관계이다. 기업별 노사관계는 원하든 원치 않든 전체 노동자의 이익이 아닌 특정 기업 종사자들의 배타적 이익을 앞세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불 능력과 고용 안정성이 높은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는 잘 작동할 수 있으나 영세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과는 기능적 친화력을 갖지 못한다. 우리나라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노조조직률은 각각 36.9%와 70%인 반면 100인 이하 영세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조직률은 1.3%를 넘지 못하고 있다. 현 노사관계의 핵심 문제인 '노동의 양극화'는 상당 부분 기업별 체제의 결과물이다.

노사관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부분적인 땜질식 처방이 아닌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먼저, 기업별 노사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는 '87년 노동체제'를 혁파해야 한다. 기업별 체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노동자의 연대도 노동 개혁도 연목구어(緣木求魚)이다. 노동 개혁의 화두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기업 단위의 임금체계 개편은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 어렵더라도 산업과 업종 단위로 노조를 재편하고 산별 교섭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둘째, 노사의 공동 이익 추구이다. 참여 협력적 관계가 될 때 사회관계의 구도는 '대립적, 도구적 교환'의 관계에서 '협력적, 유기적 교환'의 구도로 전환된다. 이와 같은 상황은 서로의 분배 몫이나 개인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한 '계약' 관계로부터 더 큰 장기적 이익을 목표로 서로의 행위를 조율하고, 유기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생산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협약' 관계로 발전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협약적 질서가 만들어질 때 '저신뢰'에 기초한 분배 게임은 '고신뢰'에 기초한 생산적 노사관계로 바뀔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다. 한국의 노사관계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내적으로 저출생과 고령화, 사회 불평등 및 노동 양극화 심화라는 도전과 함께 세계적으로는 인공지능 혁명과 기후 위기에 맞닥뜨려 있다. 다가오는 위기 상황은 남 탓하며

공방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노사 상생과 미래를 위한 공동 대응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 조건일 뿐이다.

이탈리아 사상가 그람시(Gramsci)는 "낡은 것은 죽어 가는데도 새로운 것은 아직 탄생하지 않았다는 사실 속에 위기가 존재한다. 바로 이 공백 기간이야말로 다양한 병적 징후들이 출현하는 때다."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의 노사관계는 다양한 위기 징후를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노사관계 리더들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01

시대를 읽다

태정(怠政)과 우환의식

이강범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일러두기 재단 홈페이지 게재일 : 2024년 12월 20일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황순원 선생의 소설이 생각난다. 대학 시절에 읽어 5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지라 어렴풋한 기억 속에 조각조각 흩어졌지만, 남아 있는 한 조각의 내용은 대강 이렇다.

한 광부가 갱도에 들어갔다가 갱도가 무너질 것 같은 예감이 들어 혼자 밖으로 나왔는데,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갱이 무너지는 바람에 적지 않은 동료가 매몰되고 만다. 그렇게 혼자 살아남은 사내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왜 혼자만 몸을 피했는지에 대해, 갱도에 버팀목으로 세워둔 비틀린 갱목 틈에서 나는 송진 냄새가 평소와 묘하게 달라 이상함을 느껴 홀로 나왔다고 독백했던가?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동네 아낙네의 원망이 이어질 수밖에. "아이고, ○○아버지! 나오실 때 우리 ◇◇아버지도 데리고 나오지 그랬어요." 이후 이야기 전개가 어땠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황순원 소설을 소개하고자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상상을 보태보기로 한다. 만약 이 광부가 동료들을 다 이끌고 나왔다면? 당연히 마을 사람에게 오랫동안 생명의 은인으로 떠받들어지며, 그 마을의 전설로 남았을 것이다. 갱도가 '때맞추어' 무너졌다면 말이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도 생명의 은인은커녕 일당이 깎이게 된 동료들의 원망에 더하여, 회사로부터 심한 질책은 물론, 해고당하거나, 심지어 손해배상 책임까지 뒤집어쓸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머뭇거림이 없지 않았을 터이지만, 결국 이 사내는 오랜 시간 감내해야 하는, 혼자 살아남는 불행을 선택하였다.

자, 이것을 국가로 확대해 보자. 미래를 읽어 내는 예지력과 깊은 통찰로 나라가 곧 존망의 갈림길에 서리라는 것을 읽어 내었다 치자. 그런데 그 즉시 큰 목소리로 온 나라에 경보를 발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예지력은 예지력이고, 이를 소리치는 용기는 왕왕 전혀 다른 차원의, 목숨이 걸린 일이다. 설사 용기를 내어 목이 터지라 외친다 해도, 들어야 할 사람이 귀를 막고 있으면 그냥 악다구니 소음으로 끝난다. 그래서 난리 조짐을 미리 읽고 식솔들을 이끌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화를 면했다는 지혜로운 노인의 전설에 누구도 개인과 가족의 안위만을 살핀 행위라고 비난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IMF'라고 부르는, 1997년의 경제위기에 휩쓸리기 전야에도 정부의 경제 부처 책임자들은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는 노래를 반복해 부르고 있었다. 당연히 경고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이 사실 적시와 함께 경고를 담은 보고서를 썼다가 문책인지 강등인지를 당했다는 소문도 돌았다. 불가항력이었다는 변호도 있지만, 경고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처음엔 태연한 척하다가, 다시 허둥거리다가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결국, 당시로는 이름도 생소한 IMF의, 이름도 유별난 캉드쉬 총재에게 나라의 곳간을 샅샅이 검사받으며 야단까지 맞는 치욕을 당했다. 길게 보면 'IMF'가 구조조정의 좋은 기회가 되어 경제 재도약의 발판이 되었다거나, 온 국민이 장롱 속 금을 내놓아 전 세계를 감동하게 했다는 얘기 등으로 위로하기에는 소시민들이 받은 상처가 너무나 컸다.

한국에도 번역 소개된 레이황(黃仁宇)의 『1587, 아무 일도 없었던 해(A Year of No Significance, 萬曆十五年)』는 제목부터 의미심장하다. 명나라 만력제는 우리에게도 제법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임진왜란 때 중국에서도 손꼽히는 명장인 이여송(李如松)이 이끄는 대부대를 보내 적극적으로 참전해 준 '고마운' 황제이지만, 길고 긴 중국 역사에서 그는 보기 드문 혼군(昏君)이다. 가장 유명한 것이 재위 48년 동안 조회, 그러니까 국무회의에 나가지 않은 기간이 20년에 이르러, 역사상 최악의 게으른 황제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 역사에서는 만력제의 '태정(怠政, 태만한 정치)'이라고 부르는데, 혹자는 '태정' 기간이 무려 30년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제발 대신들 앞에 나와 정사를 돌보시라고, 재상이 대전 앞뜰에서 며칠 동안 엎드려 주청하느라 탈진해도, 결국 내시가 나와 '이제는 그만 집에 가시라'는 황제의 말만 전달하고 들어갔을 뿐이다. 그래서 새로 임명된 고급관료가 황제의 얼굴을 모르는 사태까지 일어나도 황제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그럼, 국정은? 이런저런 논의는 다 생략한 채, 황궁 안팎을 뛰어다니는 내시만 바빴다. 황제는 매일같이 후궁에서 술을 마시고 질탕하게 여색을 즐겼을 뿐이다. 그래서 양쪽에서 내시가 배를 받쳐 주어야 걸어갈 수 있었고, 어머니 이(李) 태후에게 문안 올릴 때도 내시의 부축이 없으면 절도 할 수 없는 초고도 비만이 되었다. 아마도 거침없이 뽕뽕거리고 다녔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 레이황의 말대로 "아무 일도 없었다." 당시 기록에는 수도 북경성(北京城)이 얼마나 평안하고 부유했는지 잘 묘사되어 있다. 그러니까 제국은 이미 여러 군데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태평성대'의 타성에 젖어, 아무도 경고를 발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곧 무시되었다. 그래서 레이황은 아무 일도 없는 평온한 나날이 위기의 전조(前兆)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도발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드디어 만력제가 사망하고 태자인 주상락(朱常洛)이 즉위하였으나 한 달 만에 죽고, 다시 그의 장자인 주유교(朱由校)가 즉위하였다. 그는 재위 7년 동안 '목수황제'가 되어 가구(家具)만 만들다가 죽었다. 내시가 국정을 농단하는 사태는 더욱 심해져서 중국 역사상 최악의 내시 중 하나로 꼽히는 위충현(魏忠賢)이 바로 이때 등장하는데, 이런 자가 나올 환경이 딱 만들어져 있었다. 그는 시대가 만든 괴물인 셈이다.

그리고 동생 주유검(朱由檢)이 제위를 이어받았는데, 그가 바로 명의 마지막 황제 숭정제(崇禎帝)이다. 그는 17년 동안 황제 자리에 있으면서 나름 애썼지만 이미 급속도로 기울어져 버린 제국은 가망이 없었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내리지 못하고 계속 판단을 그르치다가, 끝내는 "나는 망국의 군주가 (될 사람이) 아닌데, 그대들이 나를 망쳤다."라고 신하들을 원망하면서 책임을 전가하였다. 결국 이자성(李自成) 농민군의 함성이 궁성까지 들리자, 내시 한 명과 함께 매산(煤山, 지금의 景山)으로 올라가 목을 매어 자진하였다. 그 와중에 조상 뵐 면목이 없다고 머리를 풀어 얼굴을 가리는 '쓰잘머리 없는' 꼼꼼함도 잊지 않았다. 그의 할아버지나 아버지보다는 그나마 낫지만, 망국의 책임 중 상당 부분은 우유부단하고 무책임했던 그의 몫이다. 수백 년 이어온 강대한 제국도 한번 혼군을 만나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데, 조손(祖孫) 3대가 이랬으니 결과는 뻔하다. 좀 다른 얘기지만, 그리 동정해 줄 필요가 없는 이 망국 군주의 넋을 달랜다고 조야(朝野)가 소복을 입고 만동묘(萬東廟)를 지어 조선이 망할 때까지 제사를 올린 우리 할아버지들 모습에 나는 경악하고 통탄한다.

훗날 명나라의 정사인 『명사(明史)』에는 "명나라는 명목상 숭정제 때 망했지만, 실은 만력제 때 망했다(明, 名亡於崇禎 , 實亡於萬曆)"라고 쓰고 있다.

무서운 말이다. 그러니까 '언로를 넓게 터 주시옵소서'라는 말은 조선 시대 상소문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 듣기 싫다고 해서 '쓴소리'라는 경계경보를 차단하다가 오랜 기간 쌓아 온 공을 '한 방'에 날려 버리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아프리카 들판에도 사자가 다가오면 높은 나무에 있는 원숭이가 큰 소리로 알려 주는 경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오직 인간만이 경고해 주는 동족을 죽이고 멸망을 자초한다.

그래서 북송의 개혁가 범중엄(范仲淹)은 그의 명작 「악양루기(岳陽樓記)」에서 선비는 "천하 사람들의 걱정에 앞서 걱정하고, 천하 사람들이 다 즐거워한 뒤에 즐거워(先天下之憂而憂 , 後天下之樂而樂乎!)"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이 화두가 되어 이를 전통 중국 지식인들이 반드시 새겨야 할 의무로 여기고, '우환의식(憂患意識)'이라고 불렀다. 천 년이 다 되어 가는 송나라 선비의 말이지만, 지금도 매우 유효하다. 만력제처럼 술만 마시고, 충언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패거리를 작당하여 이익만을 탐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정작 국정은 아랑곳하지 않는 '태정(怠政)'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이른바 '배운 자'들은 두루두루 잘 살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쉽지는 않지만, 눈을 부릅뜨고 가끔 경보를 발해야 한다는 우환의식의 책무를 떠올려야 할 것이다.

01

시대를 읽다

정부의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처방

박준식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前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장)

일러두기 재단 홈페이지 게재일 : 2025년 7월 18일 / 現 한림대학교 부총장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빠른 속도로 정돈되고 있다. 내란 극복과 경기 침체, 통상 압박이라는 전례 없는 동시다발적 위기 상황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국익과 실용을 기조로 산적한 국내외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명쾌한 판단으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효과성을 입증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오늘날의 국가는 충돌하는 국내외 이익들을 조율하면서 사회를 통합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양보 없는 집단적 이기주의가 분출하는 상황에서 충돌하는 이익을 조율하면서 미래를 향한 국민적 의지를 결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새 정부는 상상 이상의 긴장감으로 성과를 입증해야만 긍정적 평가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가 산적하고 당면한 과제들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강력하고 투명하며,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목표를 추구하는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곧바로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믿음은 순진한 가정이다. 새 정부는 지뢰들이 가득한 현실의 전장에서 진정한 승부를 앞두고 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하루아침에 허물 수 있다. 새 정부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 가지

처방의 기준을 중시해야 한다.

첫째, 새 정부는 '선한 의지의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 선한 의지를 명분으로 정권을 잡은 정부가 뜻하지 않은 진퇴양난에 빠지는 이유는 의도하지 않은 정책의 결과 때문이다. 정책의 추진 주체와 대상 간에는 생각보다 큰 거리가 있다. 정부보다 국민이 더 똑똑하고 유능한 상황에서는 정부의 실패 가능성은 훨씬 크다. 정책 현장의 갈등은 사회 세력들 간에 새로운 균형을 찾기 위한 치열한 상호 적응 과정이다. 이 게임에서 정부가 민간을 압도하던 시절은 이미 지났다. 과거보다 훨씬 겸손하고 신중한 자세로 현실과의 대화에 임해야 한다.

정부, 이익집단, 개인은 각자의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 대상에 대해 우월적 위치에 선다는 보장은 없다. 정부가 정책을 제시하면 시장은 이미 대책을 마련한다. 순진한 정부보다 똑똑한 시장과 국민이 정부를 압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신보다 강한 존재와 상대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지혜가 요구된다. 정부는 정책 대상자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만 성공이라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 선한 의지가 정책의 성공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하는 순간 '정부의 실패'는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선한 의도를 말하는 것은 쉽지만, 성과라는 열매를 얻는 것은 훨씬 힘들다. 선한 의지와 신념으로 추진하는 정책들이 현실에서 좌초하는 이유는 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선한 의도를 압도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새 정부 역시 선한 의지의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우선순위의 조율'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선한 의지의 함정을 넘어선다고 해서 정책의 효과를 낙관할 수 없다. 정치는 조율의 예술이다. 유능한 정치가는 수없이 많은 국민의 요구들 가운데 무엇이 급하고, 무엇이 우선인지를 신속하게 선별하고 갈등을 조율해야 한다. 정책의 무대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치열한 갈등의 현장이다. 무언가를 선택하는 순간 무언가는 포기해야 한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과제들의 우선순위를 선별하고, 정렬하지 못하면 어떤 정책도 순조롭게 추진될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충돌하는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순발력 있게 정해야 한다. 우선순위의 판단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정부는 예상하지 못했던 저항에 직면한다. 무엇을 중시하고,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최적의 판단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셋째, '사회 정의의 원칙'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선한 의지의 함정을 넘고, 우선순위의 조율을 마쳤다고 해서 새 정부의 정책적 성공을 안심할 수는 없다. 국민의 삶을 중시하고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정부는 정의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권위적 정부는 힘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윤석열 정권은 사회 정의의 원칙을 무시한 권위주의 지도자가 몰락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민주적 정부는 국민이 동의하는 정의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성공을 추구하기 때문에 훨씬 큰 인내와 결의로 무장해야 한다.

20세기 진보적 사회 개혁의 철학적 근거를 탐구했던 미국의 정치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는 그의 정의론에서 진보적 사회 개혁에서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을 논한 바 있다. 롤스가 제시한 정의의 출발점은 그 사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정의의 원칙은 새 정부가 추구하는 실용주의에 대해서도 그 범위와 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어떤 정책도 그것이 가장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이익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침해하거나, 이들에 대해 의도했건, 그렇지 않건 더 큰 불이익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의 기준은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 개혁은 혁명보다 어려울 수 있다. 사회 세력들과 이익집단들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해도 자신들의 이익을 지킬 태세가 되어 있다. 반면 조직되지 못한 대다수 국민은 강자들의 경쟁과 힘겨루기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 있다. 선한 의지로 시작한 개혁이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으로 종결되는 실패 역사는 수도 없이 많다. 이재명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개혁이 성과를 거두고, 국민의 혜택이라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강력한 기득권의 저항을 넘어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정의의 원칙을 지키면서 선한 의지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우선순위의 조율을 완성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01

시대를 읽다

AI 문명시대와 대한민국의 '진짜' 국운(國運)

조대엽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사)선우재 이사장

일러두기 재단 홈페이지 게재일 : 2026년 3월 6일

AI가 세상과 시대의 화두다. 대통령께서 AI 3대 강국 진입을 공약하고, 실제로 국정의 주요 방향이 AI 관련 정책에 맞추어지고 있다. 며칠 전에는 소모임에서 구윤철 부총리의 짧은 강의를 들었는데 AI가 여는 한국 경제의 앞날에 관한 내용이었다. 본인이 진두지휘하는 경제정책임에도 스스로 흥분한 듯한 열띤 강의가 오히려 믿음과 기대를 갖게 해 인상적이었다.

지난해 10월 말,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고, 서울에서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과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함께한 자리에서 서로를 'AI 깐부'라고 부르며 치맥을 나누는 장면이 뉴스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한 AI 시대의 '4대 천왕'이 경주로 가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다. 여기서 젠슨 황 CEO는 한국에 GPU 26만 장 공급을 약속했다. 한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GPU와 AI 인프라를 갖춘 AI 선도국이 될 것이며, 그 여정에 엔비디아가 함께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한국이 소프트웨어 전문성과 기술적·과학적 역량, 그리고 제조 역량이라는 세 요소를 모두 갖춘 나라라고 추켜세웠다.

젠슨 황의 메시지는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다. AI, 반도체, 로봇 관련

주가가 고공 행진을 하고, 코스피 6000 돌파가 현실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AI 생태계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높아졌다.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AI 기술의 하드웨어 GPU와 그 모델들인 H100, H200, 여기에 탑재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진화된 모델인 HBM(High Bandwidth Memory)과 현재 주력 모델인 4세대 확장형 HBM3E, 5세대 모델인 HBM4, 나아가 H100, H200의 후속작으로 발표된 B100, B200, 그리고 엔비디아가 구축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CUDA, AI의 미래 비전인 피지컬 AI와 월드 모델 등 AI 생태계의 기술적 용어가 낯설지 않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ChatGPT, Claude, Gemini, Perplexity와 같은 도구를 학습시키고 구동하는 테크놀로지를 짐작하게 되었고,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구축한 AI 생태계, 그리고 로봇이나 자율주행, 스마트공장 분야에서 현대차그룹과 엔비디아의 'AI 동맹'에 대해서도 이해가 높아졌다. 이제 많은 사람이 일상적 툴로 AI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AI 기술과 AI 경제가 이미 국민적 관심거리가 되었다. 대한민국이 AI 문명을 선도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AI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감히 말하자면 '국운'(國運)이 열리는 조짐이다. 무슨 비과학적이고 근거 없는 기대냐고 할지 모르나 국운은 두 가지 사실에서 근거 있는 전망이다. 하나는 국운이 국정의 탁월한 리더십의 효과라는 사실이다. '국정의 리더십'은 최고지도자의 시대를 읽는 통찰이 예리한 비전으로 제시되고, 여기에 국민의 전폭적인 공감이 결합될 때 만들어진다. 통찰과 비전은 지도자의 자질이지만 공감은 깨어 있는 시민의 자질이다. 그래서 위대한 리더십은 지도자의 탁월한 통찰에 깨어있는 시민의 공감과 연대가 팔로우십을 만들 때 탄생한다. 국운은 곧 리더십의 예술이자 깨어있는 시민이 만드는 공감의 예술이다.

국운이 근거 있는 전망인 다른 하나의 이유는 역사적으로 축적된 효과라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위대한 리더십과 위대한 시민의 공감이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새로운 국운을 연다. 축적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재명 정부가 여는 AI 시대는 김대중 정부의 IT 강국 비전이 축적된 토대 위에서 빛나는 기회의 문일 수 있다. 김대중 정부의 IT 강국 비전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시작으로 OECD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1위에 이르는 디지털 코리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정보 선진국으로 도약시켰다. 김대중 정부의 IT 강국 전략은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과 'IT 839 전략'으로 진화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디지털 뉴딜'의 비전으로 데이터 댐, 데이터 고속도로 등 기초 인프라 강화와 전 산업의 5G · AI 융합 확산, 국토와 정부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는 정책으로 진화했다.

나는 김대중 정부의 IT 강국 전략을 21세기 대한민국 성장의 정책적 기원으로 해석한다. 거칠게 말하자면 20세기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에 '박정희'가 있었다면 21세기 대한민국 신경제의 중심에 '김대중'이 있다. 박정희의 산업화 모델이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면, 김대중의 'IT 강국 · e-코리아' 비전이야말로 국가부도의 파산 위에 정보화의 기적을 이룬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의 축복이었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어쩌면 김대중 대통령의 탁월한 통찰과 '그의' 위대한 국민의 공감 능력이 준 선물로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AI가 여는 이재명 정부의 국운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축적 위

에서 피어나는 또 한 번의 축복일 수 있다. 게다가 대통령의 통찰에다 빛의 혁명을 만든 깨어있는 시민의 공감과 연대가 있기에 국운의 전망은 더욱 밝을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운을 열었던 당대의 정책 과정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정책의 그늘'을 놓치지 않았던 정책적 안배를 돌아보아야 한다. 진보 정부에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과 형평이 강조되었다. 치열한 정보화 전략 속에서도 정보격차와 취약층에 대한 정책이 동반되었다.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또한 기술적 · 문화적 소외층을 줄이는 정책적 설계를 반영하고 있다. 문제는 AI가 인류의 예측을 넘어서는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미국 월가를 뒤흔든 시트리니 리서치(Citrini Research)의 보고서 「2028년 글로벌 지능 위기(The 2028 Global Intelligence Crisis)」는 AI 기술의 성공이 오히려 경제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역설적인 시나리오를 담고 있다. 알고리즘, 빅테크의 거대 플랫폼, 데이터 소유권으로 무장된 '기술 권력'과, 민주적 통제, 국가 주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방어하려는 '사회권력'의 충돌도 현실이 되고 있다. 대런 아세모글루와 사이먼 존슨은 「권력과 진보(Power and Progress)」에서 지난 1000년간 기술의 진보와 통제는 언제나 소수의 몫이었고, 기술의 진보가 모두의 삶을 향상시킨 것은 오로지 테크놀로지에 대한 지배층의 선택에 도전하고 기술 이익이 더 평등하게 공유되는 방식을 강제한 덕분이라고 강조한다.

AI 혁명을 '불의 발견'을 넘어서는 문명사적 진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이 이 거대한 문명사적 진보의 선도국으로 국운을 여는 일은 고삐 풀린 AI의 위험을 경계하며, 기술 권력의 포용성과 형평성을 훨씬 더 확장하는 정책적 안배에 있다. AI 선도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이 인류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는 AI 성장주의의 낙관적 비전을 훨씬 더 포용적인 새로운 비전으로 진화시켜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AI에 관한 포용적 비전은 기술 엘리트들의 박애주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는 다른 사회적 권력 기반에서 나온다. 포용과 협력을 지향하는 진보적 정치사회 기반이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배분에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정치권력과 사회권력의 더 고른 배분에 대한 대통령의 더 큰 통찰과 더 큰 시민적 공감만이 AI 문명 시대 대한민국의 '진짜 국운'을 열 수 있다.

01

시대를 읽다

한국 사회 불평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법은?

노조법 2·3조 개정과 산별교섭 체제로의 전환 모색*

이종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원장

일러두기 재단 홈페이지 게재일 : 2026년 3월 30일

* 이 글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의 공동 연구용역 과제인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와 극복 대안 재구축 연구'(2025)에 기초한 것으로, 동 연구에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 금융산업공익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한국 사회의 문제 구조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산업화와 놀라운 경제 성장, 그리고 민주화로 원조를 받던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 최초 국가가 되었다(UNCTAD 2021, OECD 2022). 한국의 경제 규모는 2025년 말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조 8,585억 달러로서 전 세계 13위, 1인당 명목 GDP도 3만 5,962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수출과 수입 규모에서 전 세계 7위 교역 국가로 발전하였다(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5). 그럼에도 OECD가 매년 발표하는 삶의 질 종합 지수(Better Life Index)에서 한국은 회원국 38개 중 33위로서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 수준은 6.4점으로 OECD 평균 6.7점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노인 빈곤율(39.8%)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매년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합계출산율도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OECD 2023). 이 같은 우리 사회의 눈부신 경제적 성공과 OECD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역설적 상황과 이중성, 그리고 사회현실에서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삶의 고통은 어디에서 비롯되고 이를 극복할 방안은 무엇일까?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에 있어

역사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결정적 전환기이자 중대한 분기점(critical juncture)이라고 할 수 있는 1997년 IMF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가 빚어놓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바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사회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으로 수행한 한국 사회 불평등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는 2004년 0.347에서 2010년 0.361로 상승한 후, 2023년 0.333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4년에는 다시 0.341로 상승하고 있다. 상하위 소득 10분위 격차를 의미하는 p90/p10 비율 역시 2004년 5.45에서 2023년 6.94로 크게 상승하였다. 소득이나 자산 분포의 무질서도(불균등)를 통해 불평등 요인을 살펴볼 수 있는 엔트로피 지수도 2004년 0.329에서 2024년 0.473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또한, 주관적 소득 불평등 정도를 측정한 앳킨슨 지수(Atkinson Index)도 2004년 0.0976에서 2024년 0.1056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노동문제연구소·중앙연구원 2025).

한국 사회의 불평등 심화는 세계 불평등을 비교하기 위한 피케티 지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국민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비율, 이른바 피케티 비율로 불리는 소득 자산 배율은 9.8배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나고 있다(노동문제연구소·중앙연구원 2025). 한국은 최근 소득 상위층으로 갈수록 소득집중도가 심화하고 있으며, 소득 대비 자산 가격이 매우 높아 자산 불평등이 심한 국가에 속한다. 특히 동 연구(2025)에서 가구 소득 대비 총자산액을 의미하는 자산소득 배율은 1998년 3.1배 수준에서 2022년 6.9배로 배율 격차가 점차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 격차와 자산 불평등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욱 심화하고 있다.

반면, 동 연구의 노동시장 불평등 분석에서 불안정 노동 계층이 정규직 일반노동계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1998~2003년 12.07%에서 2017~2023년 9.75%로 약 2.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중간계층으로의 상향 이동의 가능성 역시 1% 미만으로 매우 낮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불안정 노동 계층이 동일한 계층에 머무르거나 실업자(약 2% 내외)나 비경활 인구(약 13% 내외)로 하락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노동문제연구소·중앙연구원 2025). 요컨대 불안정 노동 계층의 상태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층 이동성을 제약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구조가 더욱 고착화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문제와 한국 사회 지속성의 위기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문제는 청년층의 '쉬었음'으로 분류되고 있는 비경제 활동 인구의 급격한 증가라고 할 수 있다. 2026년 1월 현재 20대 '쉬었음' 인구는 약 44만 2천 명, 30대 청년층 30만 9천여 명까지 포함하면 약 75만 명에 이르는 청년들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26). 이처럼 많은 청년들이 '그냥 쉬었음'으로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괜찮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대부분은 10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를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2026년 기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제공할 일자리 규모 전망은

각각 5만 1,600여 명과 5만 2천여 명 등 약 10만 명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2026년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 채용 규모 전망은 약 2만 8천여 명이고 나머지 2만 4천여 명은 청년인턴 일자리이다(노동부 자료 2026). 2024년 기준 대학과 대학원 졸업자 중 취업 대상자가 약 54만 3천여 명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괜찮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교육부 통계 2024).

한국 사회 문제의 진단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화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불안정 노동 계층의 증가

20~30대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임금 격차에서 그 원인을 찾지 않을 수 없다.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와 노동조건, 그리고 사내 복지 혜택의 차이는 심각한 수준이다. 2024년 기준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이 받는 시간당 평균임금이 100일 때, 대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는 62.3, 중소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57.7,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는 41.5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노동부 내부 통계자료 2026). 이와 같이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별 임금 격차가 매우 커 많은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 대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가기 위해 시험 '준비 중'이거나 '쉬었음'의 비경제활동 인구로 적체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으로 괜찮은 일자리로 생각했던 중간 스킬(skill) 수준의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대신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는 대부분 특고, 플랫폼노동, 단시간 아르바이트 등 불안정 일자리로 채워지고 있다. 노동시장 불평등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동시장 내 불안정 고용은 전체 취업자의 37.7%(A)에 이르고 있으며, 저소득 비율은 취업자의 19.6%(B), 제도 및 사회보장 결여는 취업자의 15.1%(C)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노동지표 모두에 해당하는 불안정 노동자도 전체 취업자의 5.9%에 이르고 있다. 특히 불안정 노동자의 비중은 여성, 청년, 고령자, 그리고 저학력 계층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노동문제연구소·중앙연구원 2025).

한국 사회 문제 구조의 해법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체가 답이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한국 사회에서의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청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체와 그것을 위한 개혁 방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요인의 산물이다. 따라서 해결 방안 역시 단일한 정책 수단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사회 문제인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그리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체는 한국 사회 불평등 해소의 주요한 축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또 다른 해법이 될 수도 있다. 만약 일본의 경우처럼,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을 현재 대기업 평균임금(100)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많은 '쉬었음' 청년층을 노동시장 내 경제활동인구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간 노동시장 영역에서의 임금 격차 및 불평등 해소는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가 민간 시장 영역에 그것을 강요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길을 찾을 것인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체의 시작은 개정된 노조법 2, 3조의 실행에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노조법 제2·3조의 개정은 한국 사회 불평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될 수 있다. 노조법 제2조 개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사용자성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자도 원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단체교섭 및 임금협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 사회 불평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체하는 길은 노조 조직률을 높이고,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최근 경남 지역 창원시 타운홀 미팅(26.2.6)에서의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노동자들이 단결해 조직률도 올리고 정당하게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해 힘을 모아야 노동자 지위가 올라가고 사용자와 힘의 균형을 맞춰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한겨레신문 2026. 2. 6. 자). 중소 하청기업의 노동자도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 적정한 임금을 받는 제대로 된 사회로 나가야 한다.

하지만 2024년 기준 노조 조합원 수는 277.7만여 명으로서 노조 조직률은 13%대에 머물러 있다. 사업장 규모별 노조 조직률을 보면 300명 이상의 기업은 35.1%로 높은 데 반해 100~299명 5.4%, 30~99명 1.3% 등으로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낮은 조직률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공공부문의 조직률은 71.7%(공무원 66.4%, 교육 32.3%)로 매우 높은 데 비해, 민간 부문의 조직률은 9.8%에 불과한 실정이다(노동부 통계자료 2024). 따라서 한국 사회 불평등 해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토대로서의 노조 조직률 확대는 민간·중소·영세 부문에서의 노조 조직화 사업에 달려 있다.

'87년 대립적 기업별 노조 체제에서 산별노조 체제로의 전환 모색

원청과 하청기업 간 단체교섭, 개별 기업노조 차원을 넘어 산별노조 체제로 나아가야

3월이 되면 노조법 제2조 개정에 따른 원하청 간 교섭 요구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올 것이다. 이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대립적 기업노조 체제하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별 차원에서의 원하청 교섭을 점차 산별교섭 형태로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다. 여기서 산별노조 체제로의 전환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개별 사업장 내 노사 갈등의 외부화이다. 둘째는 산별교섭 및 단체협약 사항의 확장 적용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물론 이를 위한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제도의 법제화 절차가 필요하다. 산별노조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법 개정과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제도의 도입은 87년 노동 체제에 머물러 있는 한국 노사관계의 산별노조 체제로의 전환과 새로운 노동정치의 지형을 만들어 갈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방

안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다 같이 행복한 나라,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노동자의 조직률 확대와 산별 조직화,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을 전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자의 이동이 보다 자유롭고 원활한 하이로드(high-road) 일자리 전략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조건부 감사함!

뒤처지거나 낯선 사람을, 포용하고 동행하길 기대하며

박동호
인권재단 사람 이사장

일러두기 재단 홈페이지 게재일 : 2026년 6월 16일

필자는 이동할 때 대중교통을, 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과 고속철을 이용한다. 사소하다 할 수 있지만, '완전한 새로움' 앞에서 아주 가끔 '난감'하다.

1. 경기도에 소재한 요양원을 자주 찾는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 버스로 갈아타야 하는 곳이다. 하지만 고마운 '지공족(지하철을 공짜로 이용하는 사람들)'용 지하철 카드를 버스 단말기에 슬쩍 태그하면 난감해진다. '잔액이 부족합니다.'라는 안내를 듣기 때문이다. 잠시나마 당황한다. 가방에서 지갑을 찾아 그 안에 숨어 있는 다른 신용카드를 찾아 다시 태그해야 하기 때문이다. 뒤따르는 승객이 있을 때는 그에게 불편을 안긴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하다. 게다가 정류장마다 역동적으로 들리기까지 하는 규칙적인 '삑-' 소리의 흐름을 깨뜨려, 버스 안 다른 승객들의 '평온'을 훼방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더욱 미안하다. 하지만 여태까지 기사한테서나 뒷사람에게서나 다른 승객한테 핀잔을 들은 적은 없다. 붐비는 시간이 아니기도 했겠지만 고맙게도 기다려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그건 필자에게는 사소한 난감함이겠으나, 마음 급한 많은 이들에게는 불편함 또는 민폐일 터이다. 하여 출퇴근 시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바깥출입은 하지 않으려 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일정을 계획한다.

하지만 학교에 가야 할 때는 다르다. 강의 시간을 필자가 원하는 대로 배정받을 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 새 학기가 돌아올 때마다 그저 오전 아홉 시에 강의가 배정되지 않기를 바라게 된다. 아침 일찍 길을 나서야 하는 그 힘듦뿐 아니라 지하철 운행의 지연과 정차로 겪었던 난감함 때문이기도 하다. 아주 가끔이지만, 전동차가 중간역에 멈출 때가 있다. 안내 방송이 나온다. 'OO 역'에서 'OO 단체'의 시위가 있어 운행 지연이 불가피하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내용이다. 객차 내 젊은이들은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금세 대안을 찾지만, 필자의 머릿속은 복잡해진다. 몇 분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지부터 다른 교통수단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까지 내색은 하지 않지만, 머릿속은 그 계산에 복잡해진다. 처음 무작정 기다리다가 낭패를 본 다음에는 주변의 젊은이들을 따라 내렸다. 급한 마음에 택시를 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 나름의 눈치마저 빗나갔다. 빈 택시가 줄줄이 나타났지만 탈 수 없었다. 그들이 객차 안에서 이미 택시를 예약하고 지상으로 올라갔다는 것까지 눈치채지는 못한 까닭이다. 결국 강의 시간에 늦어 학생들에게는 폐를 끼쳤고, 학교에는 보강계획서를 제출해야 했다. 스마트폰을 갖고는 있지만, 그들처럼 '스마트하게' 활용하지 못한 대가였다.

그 부적응은 여전히 극복되지 못했다. 태만이라 해도 할 말은 없다. 매년 여러 번 강의나 회의하기 위해 먼 곳을 다녀와야 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불편한 적은 없었다. 평소 낯선 곳에 갈 때, 사전에 대중교통의 시간표와 경로를 꼼꼼히 점검하는 버릇 덕이다. 스마트폰으로 예매하지 않더라도,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에 들르면 예매할 수 있었고, 그 운행 계획이 변경된 적도 없었다. 얼마 전 서울에서 철거 중인 고가도로 구조물의 붕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니 사고 발생 때도, 사고 지점을 지나지 않기에, 안심했다. 하지만 귀갓길 고속 열차가 그 사고 때문에 23분이나 늦게 서울역에 도착할 것이라는 안내 방송을 들었을 때, 그 난감함이란 위의 경우와 전혀 달랐다. 0시 25분 서울역을 지나는 마지막 지하철을 못 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내리자마자 숨 가쁘게 뛰었고, 정말 다행히도 마지막 지하철을 탔다.

2. 필자의 소소한 위의 난감함은 사실 '완전한 새로움'으로 겪는 '느린' 또는 '뒤처진' 사람의 일시적 감정에 불과하다. 대중교통수단이라는 범주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구성하는 부문들 대부분은 '정말' 새로운 것들이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살았으면서 필자가 버스를 처음 이용한 것은 '국민학교' 5학년 때였다. 그것도 딱 한 번! 40여 분 걸리는 학교까지 걸어 다녔다. 대중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지하철은 6학년 때 처음 건설되었다. 도심까지 갈 일이 아예 없었으니, '땅속을 다니는' 그 기차는 소문만으로도 신기했다. '삑-' 소리 내는 '카드'든 신용카드든 상상도 하지 않았고, 종이 '회수권'이나 금속 '토큰'은 기억에서조차 가물가물하다.

한 사람이 목격하고 살아온 사회의 변화(진보) 속도는 정말 놀랍다. 필자 같은 게으르거나 뒤처진 사람은 가늠조차 불가할 정도다. 필자에게 난감함의 감정을 불러일으킨 그 조건, 곧 운송·교통수단의 변화에 경탄하면서, '나 때'를 소환한다면, 아마 소통 자체가 차단될지도 모른다. 오래전 일이어서도 그렇겠지만, 아예 공유·공감할 만한 그 실체가 너무 이질적이어서일 것이다. 앞에서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예약하여 시공의 물리적 조건

의 제약을 간단하게 극복하는 사람들의 그 손가락 몸짓은 고도의 정보·통신 기술이 그들 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음을 보여준다. 필자에게는 '경이로움'과 '완전한 낯섦'으로 다가오는데 말이다. 이렇게 동일 현상이 누군가에게는 익숙하고 누군가에게는 낯설다.

하지만, 지하철 카드든 신용카드든, 단말기에 갖다 대면 '삑-' 소리를 내든, '잔액이 부족합니다'라 알리든, 핀잔주지 않고 기다려주든 고맙기는 마찬가지다. 비록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하게 예매하지 못하더라도, 몸이 조금만 고생하면 너무나 수월하게 예매할 수 있고, 또 그 덕에 먼 곳까지 가서 강의하고 당일에 귀가하게 해 준 고속철과 지하철이든, 정확한 안내이든, 역시 고맙기는 마찬가지다. 그 새로움이 가끔 난감함을 안길지라도, 필자를 쓸모없는 사람 취급하여 '내다 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포용해 주었고, 기초적인 수준만 갖추었음에도 나름 평온한 일상으로 이어가게 해 주는 까닭이다.

3.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기술(AIT)은 사회 전 분야와 부문에 적용될 것이다. 앞에서 필자에게 난감함을 안겨준 교통·운송 분야의 새로움은 여러 빙산 가운데 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정치활동, 경제-사회생활, 문화생활, 국제 관계 맺기 등의 모든 사회생활 분야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 직장과 시장, 지역과 역내 더 나아가 세계 공동체 등의 모든 사회조직에도 '완전히 새로운 얼굴'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야말로 인류 역사에서, 아니 지구 역사에서 전혀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해 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새로운 세계의 새 시대가 펼쳐지더라도, 낯설어 난감해하는 사람을 포용하고, 그가 기초적 수준에 머물러 있든 도무지 적응하지 못한다고 여겨지든, 그럭저럭 평온한 일상을 영위하게 하는 사회여야 한다. 인간 생활의 어떤 분야·부문이든 어떤 사회조직이든 '완전한 새로움'이 대세를 이루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그 대세는 사람을 위하고 동시에 무리생활하는 인간 사회를 위한 것임은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이다. 80억여 명의 사람이 이 지구라는 행성을 터전으로 하여 살고 있다. 지구는 '분모'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은 '분자'에 비유할 수 있다. 스마트한 사람도 소소하게 난감해하거나 완전히 낯설어하는 사람도, 미생물도 코끼리도 그 '분자'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음 역시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든, 인간은 인간에게 인간이어야 하고, 인간과 다른 생명은 심지어 물과 땅과 하늘은 공생·공존해야 하며, 지구는 전장이 아니라 공생의 터전이어야 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얼마 전 지하철 객차 안에서 종이 지하철 노선도를 펼쳐놓고 난감해하는 필자 또래의 대여섯 분을 만났다. 서울에서 열린 잔치에 왔다가 서울역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환승역을 놓치지 않을까 불안했던 모양이다. 그들에게 그 종이 지하철 노선도는 얼마나 복잡하고 어지러웠을까! 필자가 체험하는 '난감함'은 비할 바가 못 됐을 것이며, '완전한 낯섦'이라 해도 무방했을 것이다. 서울의 지하철 이용에 그나마 익숙한 사람으로서 티를 냈다. "다음 역에서 내려 파란색 선을 따라가는데, '반드시, 꼭! 서울역'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시면 됩니다." 서울의 지하철 노선이든, 파란색 표시든, 또래 낯선 이의 안내이든, 그들에게 평온한 일상을 돕는 그것이 되었기를.

세상의 겉모습을 바꿀 과학기술의 그 놀라운 역량이 '모든 인간의 존엄

(Dignity)과 인권 및 책무의 보장에, 그리고 건전한 생태의 보전과 보편적 공동선(Universal Common Good)의 증진'에 이바지하기를 바랄 뿐이다.

01

시대를 읽다

연령주의라는 오래된 차별

정회옥

명지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정치외교학전공 교수

일러두기 재단 홈페이지 게재일 : 2026년 8월 26일

내게는 Anne이라는 미국인 친구가 있다. 우리는 내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시절 처음 만났다. 낯선 시골 마을에서 가족과 떨어져 공부하던 유학 생활은 외롭고 고단했다. 그때 우연히 만난 Anne은 운전이 서툰 나를 여기저기 데려다주고, 집으로 초대해 음식을 대접하며 따뜻하게 곁을 지켜주었다. 내가 첫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몇 달에 걸쳐 직접 뜬 분홍색 아기 담요를 선물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그 담요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처음 만났을 당시 Anne은 쉰아홉 살이었고 나는 스물아홉 살이었다. 정확히 서른 살 차이였다. 한 세대를 훌쩍 뛰어넘는 나이 차이였지만, 그것이 우리가 친구가 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한국에서도 이런 관계가 가능할까. 서른 살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이 서로를 아무 거리낌 없이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흔히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한국 사회에서 나이는 결코 단순한 숫자로만 기능하지 않는다. 나이는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방식에도 관여하고, 상대와 어떤 관계를 맺을지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때로는 좌석 하나를 양보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순간에도 개입한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나이를 묻는 일이 자연스러운 것도 결국 상대와 나 사이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문화와 무관하지 않다.

이처럼 나이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문화 속에서 한국 사회의 연령차별은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라는 이유로, 청년은 청년이라는 이유로, 중년은 중년이라는 이유로, 노인은 노인이라는 이유로 각각 다른 방식의 편견과 차별을 경험한다. 한국 사회에는 여러 세대를 동시에 겨냥하는 다층적 연령주의(ageism)가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노년에 대한 차별은 특히 두드러진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노인을 가리켜 '연금충', '할매미', '틀딱충' 같은 표현이 아무렇지 않게 사용된다. '노인'이라는 단어조차 부정적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로 '어르신', '시니어', '선배 시민' 같은 다른 명칭을 찾자는 논의가 이어질 정도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다루는 언론 보도도 비슷하다. 사고의 원인이 실제로 연령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은데도 제목에는 '또', '잇단' 같은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연령을 겨냥한 멸칭은 노인에게만 향하지 않는다. 중년을 지칭하는 '꼰대', '아재', '개저씨', '영포티' 같은 말이 있고, 미래 세대라며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도 '급식충', '잼민이', '중2병', '~린이' 같은 표현이 붙는다. 어느 세대도 예외가 아니다.

한 사회가 사용하는 말에는 그 사회의 시선이 담긴다. 특정 연령층을 희화화하고 경멸하는 표현이 세대마다 존재한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연령주의가 얼마나 일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특정 나이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이미 널리 공유되고 있으며, 그것을 표현하는 일이 크게 문제시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연령차별의 깊이를 드러낸다.

더 큰 문제는 연령주의가 실제 사람들의 행동까지 바꾼다는 데 있다. 연령에 대한 고정관념은 일종의 자기실현적 예언으로 작동할 수 있다. 어린이를 공공장소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존재로 보고, 청년을 인내심이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인 세대로 여기며, 중년을 권위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집단으로 규정하고, 노인을 무능하고 쇠퇴한 존재로 바라본다면 사람들은 결국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에 맞춰 행동하거나 그렇게 평가받기 쉽다.

연령주의가 더욱 까다로운 이유는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에 비해 차별로 잘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사자조차 자신이 겪은 일이 연령차별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누구나 어린 시절을 지나고 언젠가는 늙기 때문에 나이는 모두에게 공평한 조건이라고 여기기 쉽다. 게다가 나이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오랫동안 관습과 제도 속에 자리 잡아 차별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익숙해졌다.

하지만 연령에 대한 고정관념은 거친 언어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관행과 제도로 이어진다. 광고와 각종 콘텐츠에서 나이 든 사람을 쉽게 찾아보기 어렵고, 등장하더라도 주변적 역할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카페나 식당이 '노키즈존'을 선언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도 한다. 일정한 나이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직장에서 물러나야 하는 정년제도 역시 연령을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하는 제도다. 이런 관행은 다시 "그 나이에는 원래 그렇다"는 고정관념을 강화한다. 편견이 제도를 만들고, 제도가 다시 편견을 뒷받침하는 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이제는 삶을 일정한 나이 구간으로 나누고, 각 나이에 맞는 역할을 배정해 온 기존의 연령분절적 사회구조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교육받을 때, 일할 때, 은퇴할 때를 획일적으로 나누고 특정 나이에 특정한 삶의 모습을 요구하는 방식은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삶의 경로가 다양해진 오늘날 현실과 점점 맞지 않는다.

정책 역시 연령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개인의 필요와 능력, 상황을 더 세심하게 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연령 블라인드(age-blind) 원칙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 연령집단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점검하는 연령 주류화도 필요하다. 정책 하나를 만들더라도 어린이, 청년, 중년, 노인에게 미칠 영향을 함께 살피고, 어느 한 연령집단이 일방적으로 불리해지지 않는지를 검토하는 방식이다.

법과 제도 역시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도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법은 존재한다. 그러나 법에 금지 원칙을 적어두는 것과 실제 생활에서 차별을 줄이는 것은 다른 문제다. 채용 사이트만 살펴봐도 '젊고 활기찬 인재', '패기 있는 지원자', '에너지 넘치는 인재'처럼 특정 연령층을 사실상 선호한다고 읽힐 수 있는 표현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표현 가운데 무엇이 연령차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현장에서 판단할 구체적인 지침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보다 세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영국에서는 채용 공고에서 '최근 졸업자(recent graduates)'처럼 특정 연령대를 사실상 겨냥하거나 '고도의 경험을 갖춘 사람(highly experienced)'처럼 다른 연령층을 간접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할 때 연령차별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안내한다. 핀란드 역시 실제 사례와 표현을 통해 연령차별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한국에서도 선언적 금지를 넘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행정지침이 더욱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세대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늘려야 한다. 세대통합 정책을 전담하는 공적 기구를 두거나, 서로 다른 연령층이 함께 활동하는 민간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연령에 대한 감수성이다. 여기서 말하는 연령 민감성은 단순히 나이 든 사람을 배려하자는 뜻이 아니다. 어린이든 청년이든 중년이든 노인이든, 각 연령층이 일상에서 어떤 불이익과 고정관념을 경험하는지 알아차리고 그것이 정당한지 질문하는 능력을 뜻한다.

나이는 한 사람의 삶 전체를 규정하는 본질적 특성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지나가는 한 시점이고,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노키즈존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어린이는 머지않아 청년이 된다. 노인을 향해 '연금충'이라고 조롱하는 청년도 시간이 흐르면 노년을 맞는다. 바로 이 점에서 연령차별은 특별한 역설을 품고 있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가하는 차별이 미래의 나를 향해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필요한 변화는 거창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몇 살인지 먼저 묻기보다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고, 서른 살 차이가 나더라도 마음이 맞으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사회. Anne과 나의 우정이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흔한 풍경이 되는 사회. 그런 사회가 연령주의에서 한 걸음 벗어난 사회일 것이다.

* 이 글의 일부 논의는 필자의 저서 『나이 묻는 사회』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나눔의 방식

공익재단과 사회공헌의 길

02

02

나눔의 방식

공익재단의 모범으로서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역할을 기대하며

송경용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우리나라에는 39,000여 개의 재단법인, 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있다.

적지 않은 숫자이다. 기부 금액도 예전에 비하면 놀랄 만큼 성장했고, 공익재단, 공익단체의 설립 주체, 운영 목적, 운영 방식도 다양해졌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비하면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커져야 하고, 몇 가지만 개선된다면 당장이라도 빠른 속도로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공익재단, 공익사업에 대한 인식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은 공익재단의 주 사업은 '불우이웃돕기'라고 생각한다. 절대빈곤 사회를 경험한 세대가 아직은 경제력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대부분의 기업재단이나 규모 있는 공익재단을 그 세대가 설립했으니 주 사업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의 취약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 제도가 과거보다 많이 성장했다고 하나, 날로 심화하는 불평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취약계층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처방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일러두기 재단 홈페이지 게재일 : 2024년 10월 17일

둘째, 제도적 문제이다.

공익재단, 단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이 복잡하다.

사업 목적에 따라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무 부처가 다르고, 부처마다, 담당자마다 공익재단이나 단체에 대한 인식(수준)이, 일 처리 과정이 다르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재산(자산)을 출연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뜻을 같이하는 사람을 모으는 과정도 쉽지 않은 일인데 설립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운영 과정에서도 일일이 주무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일도 적지 않다. 이는 창의성과 자율성, 시대적 상황에 따른 대응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전문성의 문제이다.

돈을 버는 일과 돈을 잘 쓰는 일은 엄연히 다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돈을 잘 쓰는 사람들을 키우고 인정하는 일에 인색하다. 대부분의 재단이나 단체가 출연자나 기부자의 의도나 관여 수준이 너무 높다 보니 사업의 내용이 비슷하다. 국가나 사회가 다 하지 못하는 영역에, 새로운 상황에 기민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공익재단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성과 창의성, 실험정신을 약화시키고 제한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주식 출연과 기금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다.

'금융산업공익재단'에는 해당하지 않는 문제이나 우리나라 기부 문화를 다양화하고 공익재단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현행 5%(상증세법), 15%(공정거래법)로 제한되어 있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어야 한다고 믿는다(공익재단에 출연한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때 5%만 세금 면제, 행사하지 않는 경우 15%만 세금 면제). 기업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한, 선한 의도로 수천억 원 규모의 주식을 기존 재단에 출연하거나 새롭게 재단을 만들고 싶어 하는 여러 명이 과거 탈세를 목적으로 불법 상속, 편법 증여한 사례와 우회적인 기업 지배 수단으로 사용해서 물의를 일으킨 기업(인)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때문에 출연하지 못하고 있다.

위에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익재단을 불우이웃을 돕는 기본적 역할에 더해 국가나 기업, 사회가 챙길 수 없거나 쉽고 빠르게 다가갈 수 없는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다른 관점, 다른 방법으로 찾아가는 소임을 수행하는 곳이라는 인식 개선과 인정이 필요하다. 공익재단 스스로 그런 역할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고, 관리/감독하는 기관도 공익재단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지원해 주고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절대빈곤 시절의 관행, 관 중심의 개발 시대의 사고방식과 체계로는 변화하는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민간의 창의성과 헌신성, 전문성이 더욱 크게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고 사람을 키워야 한다. 수십 년 동안 지켜보고, 함께 일한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의 공익재단에는 최고의 역량을 갖춘 젊은이들이 포진해 있고, 뛰어난 젊은이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곳으로 유수의 공익재단을 꼽고 있다. 공익재단과 공익 활동에 필요한 전문가를 키우는 시스템이 있고 이들을 인정하고 대우하는 지지/지원하는 문화가 발달해 있다.

이제 우리나라 공익재단도 미국이나 유럽의 재단처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경제 활동(사회적 경제 기업이나 소셜벤처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그저 은행 이자 수입에 의존하게 해서는 안 된다. 기금운용의 자율성을 높여주어야 한다.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면서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대한 투자나 지원은 그 자체로 공익적이기 때문이다.

다행하게도 이번 국회에서 공익재단에 대한 주식 출연에 관한 법, 공익재단의 기금운용 개선에 관한 법안이 토론되고 제출될 예정이라고 한다. 기부 문화를 증진하고 공익재단의 전문성과 자율성, 다양성을 높여 나가는 법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세계에서 유일한 금융권 노사 협력 재단인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사업 내용과 방식이 날로 다양해지는 것 같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올해 성과 보고서를 보면서 국내외,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면서도 전문성과 혁신성이 돋보이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공익재단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모범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어려운 이웃을 따뜻하게 보듬는 일은 물론이고, 공익 활동/공익재단에 필요한 전문가와 단체를 키우는 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업이나 혁신적인 활동을 지속해서 지원하는 일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노사가 힘과 지혜를 모아 지금보다 큰 규모로 발전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익재단으로 발전해 나아가기를 또한 기대한다.

02

나눔의 방식

ESG 시대의 기업 사회공헌

이종익
한국사회투자 대표/최고투자책임자

일러두기 재단 홈페이지 게재일 : 2024년 4월 1일 / 現 큐네스티 이사장

이 기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 소속기관인 한국사회투자와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음을 먼저 밝힙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변화는 그 속도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르다. ChatGPT를 위시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출현은 우리 삶을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다. 과거 전문직으로 각광을 받던 기자, 통역사, 회계사, 전략 전문가, 개발자와 같은 고급 일자리가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기후 문제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되면서 자동차, 철강, 조선, 화학, 정유 등 그동안 우리나라 대기업의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업종은 급속히 저수익 업종으로 바뀌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최근 애플의 주가는 맥을 못 추고 있다. 이는 애플이 자본시장에서 더 이상 가치성장 기업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혁신의 아이콘으로 대표되던 애플도 유럽,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다. 내놓는 신제품마다 세상을 놀라게 하면서 세계 시장을 선도했지만, 폐쇄적인 애플만의 생태계가 결국에는 부메랑으로 돌아

온 것이다. 혁신의 아이콘이 혁신의 훼방자가 된 꼴이다.

한때 우리나라 국민기업으로 불리던 카카오도 침체에서 쉽사리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 업종까지 문어발 확장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기도 하고, 올바르지 못한 경영 방식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자회사 경영진이 상장 즉시 보유 주식을 매각하여 막대한 차익을 챙겨 많은 주주의 원성을 듣기도 했다. 최근에도 매출을 고의로 부풀린 분식회계로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부과와 대표 해임권고를 받기도 하였다.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거시적 환경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해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치 못해 발생되는 피해의 규모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런 기업 환경에서 기업은 어떻게 경영해야 할까? 또한 이런 상황에서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와는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 특히 사회공헌은 어떻게 해야 하며 ESG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의문에 답하고자 ESG 환경하의 기업경영과 사회공헌에 대한 얘기를 해 보고자 한다.

기업은 고객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파는 일을 한다. 라면 회사는 고객의 배고픔을, 화장품 회사는 고객의 미용 욕구를, 통신 회사는 좀 더 편한 소통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므로 기업은 기업이 속한 사회의 문제와 가치에 민감해야 한다. 아울러 어떤 솔루션이 가장 효과적일지를 고민해야 한다. 사회 가치와 사회 문제는 시대에 따라 계속 바뀌고 있다. 6, 70년대가 기본적인 생존권 문제, 8, 90년대가 부의 분배의 문제였다면 현재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

2015년 당시 미래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2030년 예상 사회문제를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 당시 국민은 15년 뒤에 기후변화, 사이버 범죄, 저출산 초고령사회, 고용불안 등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런 문제들은 이미 우리 사회에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정기적으로 사회문제를 분석해서 어느 문제에 집중할지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느덧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가 된 ESG라는 용어는 2004년 UN Global Compact 보고서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 UN은 한 발 더 나가 2006년도에 책임투자원칙(PRI)을 발표해서 투자자들의 ESG 책임을 강조하였다. 이후 ESG는 투자 생태계, 기업경영은 물론이고 국가 경영의 핵심 키워드로까지 확장되어 왔다. ESG 이전에도 윤리경영, 지속가능경영, 녹색경영과 같은 말은 계속 사용되었다. 하지만 기업의 비리, 갑질을 비롯한 다양한 사건들이 터지고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ESG가 급속히 부상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은 그야말로 ESG 전성기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이후 미국 투자업계를 중심으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ESG라는 용어를 사용치 않겠다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일부 정치권과 산업계에서는 지속가능성이나 탈탄소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용어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ESG가 추구하는 가치는 계속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이 고도화되고 경제 구조가 바뀔수록 인간의 욕구와 사회의 압력도 계속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기업의 사회공헌과 ESG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정의를 분명히 하고 이에 맞는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둘 다 공익적인 사회 가치를 추구하지

만, 속성과 재원 등 방법에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 사회공헌은 기업의 영업이익이 주요 재원이다. 기업이 고객에게 제품/서비스를 팔고 거둔 영업이익 일부를 고객이 속한 사회의 문제해결과 가치 증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공헌 사업은 고객이나 고객이 속한 사회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축소된다.

ESG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자. 기업을 비롯한 정부, 비영리기관, 언론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은 각기 사회에 영향을 끼친다. 기업은 고객, 종업원, 협력사, 주주,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다. ESG는 기업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에 합의된 가치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ESG 활동은 환경, 사회, 거버넌스 영역에서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합의를 준수하는 활동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진공청소기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하자.

회사는 직원에게 적절한 보상과 근로환경을, 협력업체에는 공정한 계약과 합리적인 공급 조건을, 소비자에게는 친환경, 저전력, 고기능의 제품을, 주주에게는 투명한 거버넌스, 소통, 배당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이 기업이 ESG를 잘 수행하려면 회사 모든 가치사슬에 ESG 요소를 적용시켜야 한다. 또한 ESG의 근간이 되는 이해관계자와의 합의는 시대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고도화된다. 그래서 ESG 경영을 제대로 하려면 꾸준하게 조직과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

한마디로 사회공헌이 비용의 성격이라면 ESG는 원가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일수록 원가가 증가되게 마련이다. 이윤 창출은 기업의 기본이다. 그래서 ESG를 잘하는 기업은 대체로 경영을 잘한다. 연구개발부터 공급망까지 모든 가치사슬 전체에 걸쳐 혁신을 이루어야 ESG를 잘하면서도 이윤 창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ESG의 특성으로 ESG 경영을 한번 도입하면 다시 과거의 경영 방식으로 회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제는 많이 알려진 의류기업인 파타고니아는 ESG 경영을 잘하는 대표기업으로 평가된다. 파타고니아의 미션은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업 전략, 모델, 상품기획, 생산/유통, 고객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에서 ESG 경영을 내재화하고 있다. 면화로 만든 옷이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옷보다 환경에 더 해를 끼친다는 것을 확인한 후,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든 원료를 주 소재로 사용한다. 자기 회사 제품을 사 입지 말고 입던 옷을 수선해 입으라는 광고는 너무나 유명하다.

ESG 경영은 대표의 생각으로부터 소비자 소통까지 모든 사업 프로세스에 반영되어야 한다. 쉽지 않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ESG가 내재화된 기업은 높은 시장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위험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사업의 지속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그렇다면 ESG를 잘하면 사회공헌은 필요가 없을까? 아니다. 모든 기업이 ESG 경영을 하는 세상이 도래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영역은 계속 생겨난다. 사회공헌은 이런 부분에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나금융그룹의 사회공헌은 이런 면에서 좋은 모델이 아닌가 생각한다. 회사는 매년 UN SDG 분류에 맞춰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중대성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서 매년 집중할 사회공헌 분야와 주제를 정한다. 분야가 정해지면 핵심 수행 과제를 회사별로 정하고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이후 분야별로 사회공헌 사업을 가장 잘 수행할 역량을 가진 비영리

기관 등 전문 중간 지원 조직과 함께 KPI와 세부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실행한다.

기업 내부 구성원이 직접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법은 구식이다. 사회공헌사업 목표와 KPI가 설정되면 이해관계자 및 전문기관이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한다. 분야별 전문 기관은 전문성을 발휘하여 프로그램 성과를 높이고 이를 통해서 전문성이 계속 증대된다. 기업과 정부, 중간 지원기관(NGO/NPO), 스타트업이 상호 협력하여 사업화 지원 서비스(Open Innovation)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사회문제의 복합적 해결(Collective Impact), 소셜 기업에 대한 임팩트투자, 글로벌 협력 모델 등 방식도 활용된다.

매년 임직원들이 참여하여 독거 어르신 밀집 거주 지역에 연탄배달 행사를 하는 대기업이 있다. 이러한 행사는 직원들에게는 사회문제 해결 직접 참여라는 경험을, 취약계층에게는 경제적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대기업은 좀 더 복합적이고 어려운 사회문제 해결에 매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양한 전문 기관(NGO, 소셜벤처 등)들과 협력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기업이 임팩트를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사회공헌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협력사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저리 금융서비스 제공(협력사 설비, 원재료 매입 자금 등)
- 낮은 신용도를 가진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대안 신용평가 모델(비금융 정보에 의한 신용평가) 적용 지원(입점 조건, 상품매입, 대금지불 등 거래 조건)
- 장애인, 환자 등 이동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한 보험료 지원(이동 수단, 프로그램 공유 등)
- IoT를 활용한 소방/안전 기기 개발 스타트업과 오픈 이노베이션(기업의 자원을 투입해서 새로운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공동 판매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마을 에너지 생산설비(신재생에너지) 지원을 바탕으로 번 자체 수익 기반 마을노령연금 지급
- 법률약자를 위한 모바일 무료법률서비스 벤처에 대한 투자 및 사업 협력
- 혈소판, 혈장 등 헌혈을 더 쉽고 편리하게 촉진하기 위한 무료 공공앱 개발 지원
- 청각장애인을 위한 AI 기반 수어, 문자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무료 개방
- 조기퇴직 중장년 귀향 숙박 및 스타트업 취업 연계
- 낙도 청소년들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 교육 제공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John Wesley)는 1760년 '돈의 사용법'이란 설교를 통해 정당하게 돈을 버는 방법을 설파했다. 그는 "돈을 맘껏 벌어라. 그렇지만 자신들의 영혼, 정신, 육체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 정신, 육체에도 해를 입히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환경을 파괴하거나 근로자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말했다. ESG 시대, 기업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한다.

02

나눔의 방식

공익법인의 협업이 필요한 이유

강혁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사무국장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공익법인은 1939년 삼양그룹 초대 회장 김연수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 양영회(현 양영재단)이다. 설립 당시 기본재산은 34만 원으로 지금 가치로 약 34억 원 가량이지만, 당시 하루 일당이 80전(현재 8천 원 정도) 정도임을 감안하면 지금 최저시급 일당(약 8만 원, 78,880원)으로 계산할 경우 최소 340억 원 이상의 규모이다.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였고 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국세청 공익법인 통계(2023)에 따르면 개인이 만든 법인이 3,894개(33.8%), 기업이 만든 법인 805개(7%), 개인과 기업이 함께 만든 법인이 520개(4.5%)인데, 재미있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공익법인도 1,175개(10.2%)나 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를 보다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3만여 개의 공익법인이 개인, 기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되고 다양한 주체들이 공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교육과 장학사업을 통해 국가가 미처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이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 우리 사회가 빈곤으로 열악했던 시기에는 이러한 분야의 역할이 중요했다.

일러두기 재단 홈페이지 게재일 : 2024년 9월 9일

공익법인의 사업 영역은 사회복지가 3,017개(26.2%), 학술·장학이 2,756개(23.9%), 교육이 1,806개(15.7%), 의료가 1,091개(9.5%) 순으로 나타나지만, 기타 부문도 1,899개(16.5%)나 된다(국세청 통계, 2023). 2000년대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이후에는 장학이나 사회복지 영역 외에도 다양한 목적의 공익법인이 설립되었다. 환경문제, 노동자 인권, 지역 간 격차, 저출생 고령화, 에너지 문제, 소상공인 문제 등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 전문적인 공익법인들이 생겨나고 있다. 과거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동물권이나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공익법인, 재난에 대응하는 공익법인, 공익법인을 지원하는 공익법인도 등장했다.

현대 사회에서 공익법인의 역할과 범위가 단순히 취약한 영역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다양한 사회문제가 얽혀 있는 복잡한 환경에서 금전적 지원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이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공익법인 간의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현장에서 풀뿌리 공익법인이 할 역할과 이를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 그리고 재원을 가진 재단법인 등 각자의 장점을 살린 협업이 필요하다.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부, 기업, 풀뿌리 단체까지 함께 협업해야 한다.

우리 사회를 보다 나은 사회로 만들어 가는 것이 공익법인의 역할이라면 서로 협업하고 협력할 때 진정한 사회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관심이 높으나 잘 알지 못하는 금융산업 같은 전문 분야도 지역의 현장감 있는 풀뿌리 공익법인과 금융산업공익재단이 협업할 때 서로의 자원과 전문성이 결합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각자의 욕심을 내려놓고 협력해 나간다면, 우리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고 기대한다.

02

나눔의 방식

대형 산불을 보며 다시 생각해 보는 ESG

고 대 권
이노소셜랩 대표

일러두기 재단 홈페이지 게재일 : 2025년 4월 1일

대형 산불은 남의 나라 이야기일 것이라 생각했었다. 산과 초원을 불태우는 화마를 피해 대피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대개 미국의 LA나 하와이, 칠레에서 송출된 뉴스를 통해 전달되었다. 물론 한국에서도 고성(2018~2020), 삼척(2018), 강릉(2017) 등에서 큰 산불이 있었다. 특정 지역에 집중되었던 탓에, 지역적인 화재로 착각하고 있었을 뿐이다. 문제는 이번 산불이다.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안동 등 4개 시군으로 번졌다. 산불 영향 구역은 역대 최대로 기록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 이번 산불의 확산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크다. 강수량과 적설량의 부족으로 마른 낙엽과 잔가지가 산을 뒤덮었다. 기온은 과거에 비해 높았고 풍속은 강했다. 기온이 상승하면 상대습도가 감소하고 지표면이 건조해진다. 또한 기온 상승이 내륙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내륙을 향해 공기가 이동하며 바람이 강해진다. 주목해야 할 점은 동해안에서 자주 발생하던 대형 산불이 내륙에서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것은 예견된 미래다. 대형 산불을 남의 나라 이야기일 것으로 생각했던 믿음이 낙관적인 착각에 불과한 것이었다면, 대형 산불이 더욱 빈번히 발생할 것이라는 믿음은 비관적이지만 확정적인 사실에 가깝다.

많은 국민이 산불을 실시간 모니터링했다. 현장의 아우성은 고통스럽다. 재난 당국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만 알릴 뿐, 구체적인 대피 방향이나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민의 목소리를 들으며 절망했다. 기후변화 때문에 이번 산불이 커졌다는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힘이 빠진다. 수년째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ESG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입장에선 더욱 그렇다. 이번 산불을 ESG 관점에서 리뷰해 보려는 이유다.

첫 번째 리뷰는 ESG의 목표에 대한 것이다. 기업에서 ESG 실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 중 ESG의 목표를 평가 대응에 두는 이들도 있다. 지표에 부합하는 데이터관리는 중요하다. 투자사나 평가사들의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는 것 역시 중요하다. 다만 기업의 ESG는 환경과 사회에 기업이 미치는 영향, 그리고 환경과 사회의 변화로부터 기업이 받는 영향 양자를 동시에 개선하기 위한 의사결정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컨대, 기후변화를 악화시키는 영향을 방치하면서 기후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영향(리스크)에서 벗어나려 한다면 이상과 현실 모두에서 모순을 경험하게 된다. ESG를 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평가 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지속가능성 리스크는 상존하는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이번 산불은 기후변화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크게 다가올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즉 기후변화의 위험이 우리 삶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기후변화 대응이나 지속가능발전으로의 기여가 ESG의 이상일 뿐 실제로는 평가 대응이나 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시야를 빨리 넓힐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리스크 대응 측면에서 ESG의 재점검이다. 이번 산불의 직접적인 발화에는 기업이 개입한 바가 없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는 뉴스를 보면 중소기업의 공장, 대기업 작업장에서의 화재들이 끊이지 않는다. 문제는 이런 화재들이 기후변화와 맞물리는 순간 작업장의 범위를 벗어나는 큰 피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작업장에서 발생한 미세한 불꽃,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소규모의 발화가 건조한 강풍을 만나면 화마로 변신할 수 있다. 과거에 작업장에서 화재를 대하던 생각의 스케일이 기후변화라는 외부 환경의 변화를 맞아 더욱 커지고 중대해지고 구체적으로 변해야 한다.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물리적 리스크는 생각보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당장 기후변화를 심하게 겪는 지역에 작업장이 있다면 작업장의 안전을 포함한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즉 식별과 대응까지 재점검해야 한다. 투자자들을 포함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이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위험과 기회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는지를 늘 묻고 있다. 이번 대형 산불에서 우리는 위험에 대해 적절히 식별하지도, 준비하지도, 대응하지도 못했다.

ESG는 살아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단순히 투자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등급을 따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환경과 사회의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영향을 기업이 이해하고, 기업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ESG다. 지표들을 외우고 데이터를 집어넣는다고 업무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 ESG의 렌즈로 지금 우리를 다시 재점검하자.

02

나눔의 방식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힘…
금융산업공익재단과 함께 만드는 ‘밝고 따뜻한 사회’

남기창
이로운넷 편집국장

일러두기 재단 홈페이지 게재일 : 2026년 1월 21일 / 現 서울시 성동구청 구정연구기획단장

우리는 흔히 사회문제를 ‘비용’의 언어로 말한다. 복지는 재정 부담이고, 돌봄은 누군가의 희생이며, 취약계층 지원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지출로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사회를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이러한 인식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깨닫게 된다. 연대와 공공성은 비용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위험을 낮추고 신뢰를 높이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사회연대경제는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사회연대경제란 단순히 착한 소비나 기부를 의미하지 않는다. 시장의 효율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며,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접근이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그 핵심에는 공통된 질문이 있다.

“이 경제활동은 누구를 살리고, 어떤 사회를 남기는가.”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고령화와 지역 소멸, 돌봄 공백, 청년과 소상공인의 불안정한 삶까지, 이제 사회문제는 어느 한 영역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밝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기적 지원이 아니라, 문제를 구조적으로 바라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만들어가는 힘이다. 다시 말해 ‘밝고

따뜻한 사회'란 개인의 위기가 곧 삶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가 함께 위험을 나누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유지되는 사회를 말한다.

이 지점에서 사회연대경제와 공익재단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사회연대경제가 현장에서 사람과 지역을 지탱하는 실행의 영역이라면, 공익재단은 이 활동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축적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금융산업공익재단은 금융산업에서 축적된 자원이 사회적 위험을 줄이고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다시 작동하도록 하는 구조적 장치다. 금융의 이익이 공익의 기반으로 전환될 때 사회연대경제 역시 보다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지속될 수 있다.

사회연대경제, 현장에서 답을 찾다

사회연대경제는 단순한 나눔이나 기부의 개념을 넘어선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구조다. 이들은 돌봄이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키고, 금융 접근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공동체의 기반을 복원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 기반이 필수적이다. 현장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과 불확실성을 완화해 줄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역할… 지속 가능성을 설계하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사회연대경제와 사회공헌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단순한 재원 지원을 넘어,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완화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금융의 공공적 기능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컨대 취업과 직업훈련, 자산형성 지원을 결합해 금융 접근이 어려운 이들이 노동시장과 다시 연결되도록 하고, 의료·주거·돌봄 등 기본적인 삶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현장 조직과의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융을 기반으로 한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사회적 가치를 '신뢰'와 '제도'로 연결하는 데 강점을 지닌다. 실제로 단기 지원으로 끝나기 쉬운 현장 사업에 중장기 재원을 투입하고 금융 교육과 상담, 네트워크를 함께 엮어 개인과 조직이 스스로 지속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왔다. 이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위기 상황에서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높이는 중요한 투자이기도 하다.

참여가 쌓여 사회를 바꾼다

밝고 따뜻한 사회는 정부나 특정 기관의 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시민과 협력기관, 현장 조직이 함께 참여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이 지향하는 사회공헌 역시, 시민과 기관이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넓히는 것에 있다.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재단의 사업을 통해 더 많은 협력 주체들이 연결될수록, 사회문제 해결은 특정 영역의 부담이 아닌 공동의 과제가 된다.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안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오늘날 사회가 직면한 위기는 언제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 그렇기에 연대는 이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현실적인 전략이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이 사회연대경제와 함께 만들어가는 공익 생태계는 위기의 순간에 작동하는 안전망이자 사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반이다.

밝고 따뜻한 사회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연대를 제도화하고, 참여를 확장하며, 사회적 가치를 꾸준히 축적할 때 가능해진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앞으로도 사회연대경제와 시민, 협력기관을 잇는 든든한 연결고리로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에 함께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02

나눔의 방식

돈이 아니라 권력을 나누는 사회공헌은 가능한가

김경하
더나은미래 편집국장

억만장자 투자자 조지 소로스(George Soros)가 1990년대 초 설립한 오픈소사이어티재단은 최근 유럽 로마(Roma) 공동체 지원 사업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재편했다. 30년 넘게 재단 내부에서 운영해 온 로마인 지원 프로그램을 분리해, 당사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독립 재단으로 전환한 것이다. 재단은 약 1억 유로(한화 약 1,700억 원)의 자금과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넘겼다. 단순한 사업 이관이 아니라, 문제를 정의할 권한 자체를 이전한 선택이었다.

이 결정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금융 시장의 냉정한 분석가로 알려진 조지 소로스조차, 사회문제 앞에서는 '전문가의 판단'보다 '당사자의 삶'이 더 정확한 정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이는 특정 재단의 파격적 선택을 넘어, 필란트로피(Philanthropy) 전반의 작동 방식을 다시 묻게 한다.

최근 글로벌 필란트로피에서 주목받는 '참여적 보조금 지급(Participatory Grantmaking)'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흔히 이 모델은 '참여'나 '포용'의 언어로 설명되지만, 실제로는 훨씬 급진적인 질문을 던진다. 누가 문제를 정의하는가, 누가 해법을 선택하는가, 그리고 실패의 책임은 누가 지는가. 참여적 보조금 지급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재단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일부 혹은 전부 돌려주는 시도다.

일러두기 재단 홈페이지 게재일 : 2026년 2월 13일 / 現 기후미디어허브 리팩트 에디터

기존 공모 구조에서 재단은 명확한 권력을 쥐고 있다. 어떤 문제가 중요한지 결정하고, 어떤 해결 방식이 타당한지 평가하며,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는 비교적 자유롭다. 반면 지원단체와 당사자는 자신의 필요를 설명할 수는 있어도, 그 설명이 채택될지는 재단의 판단에 달려 있다. 참여적 보조금 지급은 이 관계를 '완화'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의사결정의 일부를 아래로 이동시킴으로써, 재단과 지원단체 간의 위계 자체를 흔든다.

이 지점에서 금융산업공익재단의 구조는 흥미로운 비교 대상이 된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여러 금융기관의 노사가 공동 출연해 설립한 재단이다. 즉, 출발부터 단일 주체의 판단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간 권한 조정과 합의를 전제로 한 구조였다. 자본을 제공하는 쪽과 노동을 제공하는 쪽이 함께 의사결정 틀을 만들었고, 그 결과가 재단이라는 공익적 주체로 구현됐다.

다시 말해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이미 한 차례 '권력 분산'을 경험한 조직이다. 다만 그 분산의 범위는 노사 내부에 머물러 있었다. 참여적 사회공헌이 던지는 질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협력과 상생의 구조를 왜 재단 내부에서만 적용하는가, 왜 지원 대상인 당사자까지 확장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설립 논리가 살아 있다면, 그다음 단계는 자연스럽게 당사자와의 권한 공유로 이어져야 한다.

사실 당사자의 목소리를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시키는 일은 도덕적 선언이 아니라 실무적 선택이다. 첫째, 효과성의 문제다. 정책 설계자나 재단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미시적 장벽은 당사자의 삶에서는 결정적이다. 당사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할수록 이런 오류는 줄어든다. 둘째, 형평성의 문제다. 기존 공모 구조는 재단과 지원단체 사이의 위계를 고정해 왔다. 참여적 구조는 그 위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균열을 낸다. 셋째, 지속가능성이다.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주체는 사업을 '외부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자기 일'로 인식한다. 이는 사업의 유지와 확장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관점에서 공모사업 역시 다시 보아야 한다. 공모는 단순히 '잘하는 단체를 골라 지원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것은 재단이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는지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다. 현실적으로 공모의 선정률은 10%를 넘기기 어렵다. 문제는 탈락한 90%에게 무엇이 남는가다. 탈락이 침묵과 좌절로 끝난다면, 그 구조는 생태계를 소진시킨다.

이 한계를 문제 삼아 등장한 조직이 '언펀디드 리스트(Unfunded List)'다. 이들은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단체들에게 독립 전문가의 피드백을 제공한다. 왜 탈락했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가 문서로 남는다. 탈락은 끝이 아니라 학습의 시작이 된다. 이는 재단이 심사 권한을 독점하는 대신, 그 권한의 일부를 '피드백'이라는 형태로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금융산업공익재단에 주는 시사점은 분명하다. 선정은 결과가 아니라 관계의 시작이어야 한다. 탈락한 단체 역시 재단의 실패 사례가 아니라, 생태계의 학습 자산이다. 사회공헌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내려진 결정이다. 현장을 모르는 판단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그 비용은 결국 사회 전체가 떠안게 된다.

참여적 보조금 지급은 이상적인 구호가 아니다. 이는 전문가주의의 한계를 인정하고, 의사결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다. 금융

의 언어로 옮기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전략에 가깝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이 이미 노사 협력을 통해 보여준 것처럼, 권력을 나누는 구조는 느려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안정적인 결과를 만든다. 이제 그 원리를 사회공헌의 대상인 '당사자'에게까지 확장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질문으로 남는다.

02

나눔의 방식

그늘진 곳곳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관심과 응원 그리고 참여를 기대하며

공광규

범우문화재단 상임이사(前 금융노조 교육문화홍보본부장)

일러두기 재단 홈페이지 게재일 : 2026년 4월 20일

금융산업 노사는 지난 2010년대부터 매년 단체교섭을 통해 노사 공동으로 사회공헌사업에 대하여 대화하고 합의를 통해 출연협약을 도출해 왔다. 사회공헌 관련 여러 내용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을 통해 논의해 왔다. 그러다가 2018년 10월 4일 33개 금융기관 노사가 뜻을 모아 금융산업공익재단을 출범시킨 것이다.

재단은 노동조합 측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사용자 측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임금 인상분 일부와 출연금을 모아 공동으로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 단위 노사공동 공익재단이다. 노사 공동으로 조성한 기금은 약 1,850억 원 규모다. 재단이 출범하면서 그동안 각 금융회사별로 해오던 사회공헌사업 외에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단계로 사업의 폭과 수준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당연히 각 금융회사별로 해오던 사업 내용과 규모도 정리되고 통합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금융 취약계층 지원, 사회적 가치 창출, 환경 및 교육 등 여러 영역에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필자는 금융산업공익재단의 합의 및 설립 당시 교섭 내용 정리와 실무를 담당했던 경험이 있다.

노동조합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이었느냐고 묻는다면 주저 없이 금융산업공익재단에 대한 노사 합의와 설립이었다고 말할 수 있

다. 재단 합의 초기에는 노사 실무진으로서 재단 이름을 짓는 것에서부터 기금 모으는 방법, 어떤 사업을 할지 등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었다.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8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다.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설립 초기와 달리 사업 영역이 상당히 확대되어 있다. 그만큼 재단이 발전하고 안정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설립 초기에는 노사가 기금을 안정적으로 모으는 것과 사업 영역을 조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었다. 현재는 4개 사업 영역을 정하여 실천 중이다.

포용금융 영역에서 제도권 밖 금융소외계층 지원과 교육 사업, 일자리 영역에서 청년 고용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업, 미래세대 영역에서 제도권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지원사업, 지역상생 영역에서 사회취약계층의 자립과 자조를 돕는 사업 등이 눈에 띈다. 물론 설립 초기에 논의했던 사업 영역이나 내용에 비해 많이 달라졌고 수준이 높아졌다. 발전하고 있다는 증표다.

지난 2025년 한 해 성과를 살펴보니, 다양한 사업 내용과 함께 사업비와 수혜자는 물론 기업과 비영리기관을 포함한 수혜 기관의 수도 상당하다. 은둔고립청년 통합 지원사업이나 북한이탈주민 취업촉진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 이주배경 청년과 노동자 취업촉진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 참신한 사업들이 눈에 띈다. 방송작가유니온 사업도 새롭다.

글로벌 차원의 사업인 스리랑카 지역기반 여성자립 및 학교급식 사업과 필리핀 파야타스 직업훈련센터 지원사업, 인도네시아 생활쓰레기 처리를 통한 주민소득증대 사업도 생각해 내기 어려운 사업이다. 국민 소득이 높아진 지금 이런 글로벌 사업은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도 성장 과정에서 선진 외국의 도움이 있었다.

초기에는 사업 내용을 정하지 못해 노사가 머리로 짜내거나 외부 청탁에 의존했다. 지금은 사업을 국민 대상으로 완전 공모제도로 바꾸면서 아이디어가 백출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국가의 사회복지망이 닿지 못하는 이곳저곳을 금융산업공익재단이 어루만지고 있다는 생각에 재단 설립 합의와 설립 실무자로서 기쁘기 그지없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사업 미션은 국가의 복지가 미치지 못하는 국내외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따뜻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필자는 금융산업공익재단이 금융권의 사회적 연대와 책임을 실천하며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길잡이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 사업이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란다. 국내외 국가 복지가 미치지 못하는 곳,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늘진 곳곳을 개선하기 위해 곳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그리고 참여를 기대한다.

02

나눔의 방식

‘기업가형 자선(Entrepreneurial Philanthropy)’의 시대

최재호
현대차 정몽구재단 사무총장

일러두기 재단 홈페이지 게재일 : 2026년 7월 15일

바야흐로 복합 위기의 시대다. 인공지능의 폭발적 진화, 기후 변화, 심화되는 불평등과 저성장의 늪은 이제 개별 국가나 단일 기업의 힘만으로는 온전히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되었다. 이러한 대전환의 시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축으로서 공익재단과 비영리 조직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그러나 과연 현재의 전통적이고 시혜적 복지 모델만으로 이 거대한 파도에 맞설 인재와 조직을 키워내고, 근본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까?

과거의 공익 사업은 사회적 결핍을 메워주는 ‘지원 중심의 자선(Charity)’이었다. 훌륭한 인재를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소외된 이웃에게 일회성 예산을 배분하는 ‘키다리 아저씨’와 같은 역할이었다. 이제 자선은 단순한 후원자(Donor)의 껍질을 깨고, 자본과 인재를 결합해 새로운 사회혁신 생태계를 창조하는 ‘기업가형 자선’으로 진화해야 한다. 즉, 기업가형 자선은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문제를 정의하고, 혁신을 제도화하며, 시장의 법칙을 바꾸는 ‘시스템 빌더(System Builder)’의 역할이다.

기업가형 자선의 가장 큰 특징은 자원을 배분하는 철학의 전환에 있다. 기업가형 자선은 ‘불쌍한 사람을 돕는다’라는 시혜적 프레임을 거부하고,

'세상을 바꿀 잠재력에 투자한다'는 벤처 스튜디오(사관학교/기획사)의 해법을 채택한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의 창업지원 사업을 예로 들어보면, 뛰어난 아이디어와 역량을 가진 창업가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열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초기 창업가들은 자금 부족뿐만 아니라 법률, 회계, 인사조직, 브랜딩이라는 거대한 '제도의 벽'에 부딪힌다. 재단은 단순히 창업가에게 자금만 지원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창업가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적 쿠션과 적극적 개입'을 제공한다. 재단과 창업가가 위험을 공유하며,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안착까지 동반 성장하는 공동 창조(Co-creation)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는 곧 일회성 지원(Support)을 영속적인 관계(Relationship)로 전환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관계를 맺고 성장한 창업가들이 다시 재단의 시니어 파트너나 창업 멘토로 돌아와 후배들을 이끄는 '선순환 플라이휠(Flywheel)'이 구축될 때, 비로소 재단은 거대한 창업 생태계의 혁신 플랫폼으로 거듭나게 된다.

경영학에서 말하는 진정한 혁신은 기존 시스템 내부의 효율성을 조금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경 자체를 바꾸는 혁신, 그것이 바로 '기업가형 자선'의 본질이다. 지난 60여 년간 대한민국을 경제와 문화의 불모지에서 조선, 자동차, 반도체, K-컬처 등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던 창업 세대의 개척자적인 기업가정신은, 이제 공익 생태계에서 기업가형 자선을 통해 현대적으로 계승되어야 한다. 재단이 추구하는 기업가형 자선은 기존의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우리의 K-기업가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업가형 자선가에 의해 완성된다. 그들은 진짜 문제의 원인을 집요하게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한다. 전통적 자선이 자본주의가 낳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을 끄는 것이라면, 기업가형 자선은 불이 나지 않게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게이츠 재단은 수십 년간 수많은 자선단체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아프리카 보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기업 경영 전략의 루틴인 데이터 기반의 문제 정의-전략 수립-파트너십 기반의 실행-끊임없는 성과 측정을 통해 백신 개발과 의료 인프라 구축, 각 국가의 정책 협력과 인재 육성 등 전방위적인 개입으로 10여 년 만에 아프리카 47개국 전 지역의 폴리오(Polio virus)를 박멸하는 성과를 만들어내었다.

이러한 기업가형 자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조직이 기업가형 재단이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재단이라도 단독 플레이로는 한계가 있다. 기업가형 재단은 정부(행정력), 학계(연구 인프라), 기업(비즈니스 자원)을 연결하는 허브(Hub)로서 '집합적 임팩트(Collective Impact)'를 창출해야 한다. 또한, 기업가형 재단이 국가정책의 보조자가 아니라 사회 변화의 설계자로 성장하여야 한다. 재단의 자본력과 역량을 활용하여 국가와 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중장기적인 사회 난제 해결을 주도해야 한다. 더불어, 대한민국 미래의 사회복지를 책임질 필란트로피(자선)의 영역에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익재단은 자본주의의 최전선에서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맹점을 보완하는 최후의 보루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전략적이어야 하고, 더 치열하게 성과를 증명해야 한다. 착한 의도가 결코 무능함을 용서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기업가형 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웅적인 개인 리더십에 의존하는 조직이 아니라, '리더가 없어도 완벽하게 돌아가는 거대한 시스템'을 완성하는 데 있다. 불안 대신 심리적 안전감을 기반으로 내부 구성

원들의 야성을 깨우고, 그들 스스로가 혁신의 주체가 되도록 임파워먼트(Empowerment)하는 조직 문화. 그것이야말로 기업가형 재단이 남겨야 할 가장 위대한 유산이다.

자선의 시대는 변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선한 사람'에 머물지 않고, 세상을 바꿀 역동적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유능한 시스템 빌더'가 되어야 한다. 관성을 깨고 혁신을 제도화하는 기업가형 재단의 대담한 실험이, 대한민국 공익 생태계의 새로운 문법이 되기를 기대한다.

02

나눔의 방식

재단의 「제2회 사업공모전」에 붙여

추원서
금융산업공익재단 상임이사

일러두기 재단 홈페이지 게재일 : 2025년 8월 1일

금융산업공익재단(이하 재단)이 2025년 8월 1일부터 약 한 달에 걸쳐 「제2회(2025년도) 사업공모전」을 펼친다. 2023년에 이어 2년 만에 시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지속 가능한 사회, 따뜻한 금융이 함께'를 주제로, 전국 각지의 비영리기구(NGO) 등을 대상으로 포용금융, 일자리, 미래세대, 지역상생 등 4개 분야에서 의미 있는 공익사업을 발굴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공모전은 2년 전 「제1회 사업공모전」과 비교할 때 참가 자격이나 심사 절차 등 여러 면에서 비슷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차이도 있다.

무엇보다 공모 주제에서 약간의 변화를 주었다. 2년 전 공모전은 금융, 복지, 기후 위기, 교육, 문화 등 5개 안전망에 걸쳐 사업을 공모한 데 비해, 이번 공모전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 역점을 두었다. 그 결과, 지원사업 분야를 4개 키워드로 압축하여 공모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 가운데 '포용금융' 영역은 재단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분야로 재단이 꾸준히 공을 들이는 사업 분야이다. 주로 제도권 밖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금융사업과 소비자 보호, 금융 교육사업 등이 포함된다. 사업 선정 시에는 현재 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생애주기 금융교육 프로그램이나 다른 금융권 공익재단 등의 기존 사업과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힘쓸 것이다.

'일자리' 영역 역시 재단의 설립 목적의 근간이 되는 사업이기에 늘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업 발굴이 쉽지 않은 분야이기도 하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돕고 청년들의 실업 해소를 위한 실질적 제안이라면 적극 수용할 것이다. 특히 청년들의 고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을 환영하며 이 밖에도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깊은 취업 연계 사업 등도 기대하고 있다.

'미래세대' 영역은 청소년이나 청년 등의 미래를 위한 각종 기반 조성 사업과 제도권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젊은이를 위한 사업이 대상이 될 것이다. 요즘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AI 환경 구축이나 기후변화 관련 사업 그리고 각종 문화예술 사업 등이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상생' 영역은 사회취약계층의 자립과 자조를 돕는 사업이다. 대한민국은 해방 후 각고의 노력 끝에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지만, 아직도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과 노인빈곤율 등이 시사하는 것처럼 결코 행복한 나라가 아니다. 많은 국민,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고달프다. 다만 이 영역은 다른 곳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 보다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제안에 우선순위를 두려고 한다.

이상 네 가지 분야 제안은 사업 대상 지역에 있어서 국내외 제한이 없다. 하지만 단순 현금성 지원 사업은 배제하고,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자 한다.

재단은 이번 사업공모전에 약 33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두었다. 이는 2년 전 1회 공모전 당시 약 50억 원에 비하면 줄어든 금액이다. 그러나 기존 사업에 대한 계속 지원액을 고려하면 재단의 재정 상황에서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다. 참고로 재단은 지난해(2024년)에만 37개 사업에 약 120억 원이 넘는 순수 사업비를 지출하여 금융 및 사회 취약계층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함으로써 '밝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일조한 바 있다.

주지하다시피 재단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33개 금융기관 노사가 함께 조성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산업 단위 노사 파트너십 사회공헌재단이다. 재단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훌륭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이를 실현할 마땅한 수단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NGO 등 사업 수행기관에 최대한의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 다만 다소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공모전이니만큼 사업 지원을 신청한 기관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 과정을 통해 대상 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성원과 신뢰에 보답하려고 한다.

이번 공모전이 사람과 미래가 보이는 따뜻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정에서 재단과 사업 수행기관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열망하면서, 전국 각지의 뜻있는 기관과 봉사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는 바이다.

02

나눔의 방식

금융산업공익재단,
2025년 사업공모전을 마무리하며

박준범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국장

지난 10월 24일 오후 6시,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공모전 선정 결과가 게시되었다. 치열했던 공모전은 한 장의 공고문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그 한 장에는 다 담지 못한 감정과 교훈이 남았다.

무엇보다 탈락한 기관들에 대한 미안함과 아쉬움이 컸다. 감사하게도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대규모 NGO부터 작은 마을 공동체까지 많은 기관들이 공모전에 관심을 가져주셨다. 계획서와 발표를 통해 각 기관이 보여준 진지한 문제의식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이 충분히 전달되었다. 아쉽지만 그들의 열정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다시 함께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선정된 13개 기관에는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 동시에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당부의 인사도 함께 드리고 싶다.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은 우리 재단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자 든든한 파트너다. 앞으로 재단의 사회적 가치를 현장 곳곳에서 직접 구현해 나갈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번 공모전은 두 번째였다. 첫 번째 공모전은 2023년에 개최되었고, 2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되었다.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이전보다 한층 더 명확해졌다. 핵심 키워드는 포용금융, 일자리, 미래세대, 지역 상생이었다. 이 네 가지 키워드에는 금융에서 출발한 재단의 설립 정신과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가 함께 담겨 있다. 금

일러두기 재단 홈페이지 게재일 : 2025년 10월 27일 / 現 전국은행연합회 부장

융이 소외된 이웃까지 포용하는 세상, 미래세대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건강한 일자리가 넘치는 세상, 지역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세상-이것이 이번 공모전에 담긴 우리의 꿈이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27개 기관이 지원했다. 최종적으로 13개 기관이 선정되었으니 약 10대 1의 경쟁률이었다. 최종 선정된 기관의 이름 하나하나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온다.

선정된 기관과 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포용금융 영역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우리함께의 '고금리 다중채무자 대상 이자 및 재무상담 지원사업', △한국플랫폼프리랜서공제회의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대상 소득 및 경력증명 지원사업', △함께만드는세상 사회연대은행의 '청년 고금리 대출자 대상 대환대출 및 금융교육 지원사업'이 선정되었다.

미래세대 영역에서는 △굿네이버스의 '필리핀 빈곤 지역 청소년 대상 직업교육 및 취업 연계사업', △인권재단사람의 '청년·청소년 대상 인권교육 활동', △청년교육사회적협동조합 씨드콥의 'AI·딥페이크 기술 실습을 통한 금융범죄 예방교육 사업'이 선정되었다.

일자리 영역에서는 △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의 '비장애 청년과 발달장애 예술인의 협동조합 창업 지원사업',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낙후 지역 산업단지 근무환경 개선사업', △사단법인 피피엘의 '캄보디아 빈곤지역 직업훈련 및 창업·취업 지원사업'이 선정되었다.

지역상생 영역에서는 △사단법인 무의의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경사로 설치 프로젝트', △살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의 '주민 서포터즈를 통한 재택의료 지원사업', △사단법인 온기의 '손편지 상담을 통한 자립준비청년 정서지원 사업', △해외입양인연대의 '한국 귀환 해외입양인 대상 돌봄 및 금융교육 지원사업'이 선정되었다. 이들이 재단과 함께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것을 기대한다.

우리 재단은 금융노사 공동 출연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출범했다. 2012년 금융산업별 노사 합의를 통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33개 금융기관 근로자들이 급여 인상분의 일부를 내놓았고, 사 측도 동일한 금액을 출연했다. 이후 세 차례의 추가 합의를 거쳐 노사가 함께 조성한 약 1,850억 원이 2018년 10월 재단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처럼 재단이 상생과 협력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개최 주기를 2년으로 정례화하는 진전도 있었다. 2023년 첫 공모전을 마친 후, 재단 내부에서는 공모 주기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좋은 사업을 기획하는 기관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었고, 동시에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필요도 있었다. 그러나 너무 잦은 공모는 재단의 본연 사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했다. 이러한 논의 끝에 2년 주기 정례화라는 합리적 결론에 도달했다. 이번 공모전은 단순한 사업 선정을 넘어, 우리 사회 곳곳의 변화 가능성을 확인한 여정이었다. 재단이 처음 출범할 때의 초심-'금융이 사회를 이롭게 해야 한다'는 가치-가 이번 공모전의 모든 과정에 녹아 있었다.

공모전의 결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선정된 기관들은 각자의 현장에서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다. 재단은 그들의 도전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확산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금융산업공익재단은 포용금융, 일자리, 미래세대, 지역상생이라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정을 이어가겠다. 공모전이 그러했듯, 우리 재단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많은 기관들과 함께 협력과 혁신의 길을 열어나가겠다.

03

포용금융

금융의 문턱을 낮추다

03

포용금융

어른들의 숙제:

돈 관리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 역량 찾기

최현자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일러두기 재단 홈페이지 게재일 : 2024년 5월 27일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돈과 함께 살아가지만,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교육을 받지 못한 채로 자라왔다. 돈에 대한 교육이란 그저 아껴 쓰고 차곡차곡 모으면 된다는 것이었다. 행여 아이들이 돈에 대해 이야기하면 '돈 밝히는 아이'로 몰아세우거나 "그런 것은 알 필요 없으니 공부나 해라"라고 터부시하기 일쑤였다. 돈에 대한 관심은 심지어 대학에 다니는 나이가 되더라도 굳이 '알 필요가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어른들만의 관심 영역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많은 어린이,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이 부자가 되는 것이고 또 부자가 되고 싶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한다.

꿈을 가지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실천 능력 없이 꿈만 가지고 살기에는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어떤 사람이 부자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 없이 막연히 부자를 꿈꾸는 것은 아무런 준비 없이 히말라야 산을 오르는 것과 같지 않을까?

과거 산업화 시대의 교육목표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 능력을 갖추게 해서 빈곤으로부터 모두를 구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단지 문맹을 면했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금융 이해력을 길러서 이를 통해 부자의 길로 들어서

게 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며 청소년기의 적절한 금융교육은 우리 사회의 기초적인 책무이다.

금융교육은 각종 금융환경 변화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금융 관련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여기에는 선택의 원리와 같은 기본적인 경제 개념과 금융시장 환경 그리고 화폐 관리, 개인신용 관리, 저축과 투자, 위험관리에 이르는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급변하는 금융시장 환경에 대응하며 부족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금융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금융교육이 필수적이다. 금융 교육이야말로 우리 청소년들이 금융 역량을 갖춘 건강한 경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지역사회와 국가 경제 안정과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와 2000년대 초반의 신용카드 대란을 경험하면서 사후적 대책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신용관리 및 금융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최근의 세계적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돈의 가치, 신용, 재무관리의 중요성을 미리 습득하고, 청소년 시기부터 금융이해력 증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금융교육이 개인의 금융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최선책임을 인식하고 아동 및 청소년들의 발달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미 금융교육을 조기에 실시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 청소년에게도 체계화된 청소년 금융교육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것 두 가지를 반드시 가르친다고 한다. 하나는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교육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다. 이는 살아가는 데 있어 일반적인 지식이나 기술 못지않게 돈에 대한 개념과 그를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교육의 경우 대학입시가 초미의 관심사이기에 교육 현장에서는 대입 과목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과목의 중요도도 입시 관련성에 따라 달라지기에 금융교육이 정규 학교 교육의 필수 교과목으로 포함되어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배우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간 동안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 능력과 견줄 수 있는 돈 관리에서의 읽기와 쓰기 능력이 무엇일지를 파악하고 적어도 '이것만'은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 관리 역량을 학교 교육만을 통해서 기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미래 세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어른들이라면 이들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것(돈 관리에서의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 역량)'이 무엇인지 찾아서 이것을 모든 청소년이 공통으로 배워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기초를 다져 주자는 것이다.

금융은 경제 체계가 원활하게 상호작용하며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윤활유이다. 우리 몸에서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금융이다. 미래 세대들에게 금융시장은 살아가면서 더 가깝게, 또 더 자주 기능하는 시장으로 다가올 것이다. 청소년들이 합리적인 소비자로, 효율적인 소비자로 또 책임 있는 소비자로 성장하여 금융시장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금융의 노사가 한마음으로 만들어낸 금융산업공익재단이 그 기초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03

포용금융

함께 건너는 희망의 다리

이계문
남양주도시공사 사장(前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일러두기 재단 홈페이지 게재일 : 2024년 4월 11일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경제적 위기를 겪는다. 특히 최근에는 고금리와 경기 부진으로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전년 대비 33.8% 증가하여 18.5만 명에 달했다.

채무조정 신청자들은 연체가 발생한 이유로 '생계비 지출'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소득감소'와 '실직·폐업'이라고 응답한 신청자도 많았다. 경기 부진으로 빚내서 생활하다가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증가했다는 의미이다.

과거 신용회복위원장(서민금융진흥원장 겸직)으로 근무할 때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다니며 직접 고객의 목소리를 들었다.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분들이었다. 지영(가명) 씨도 그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계속된 매출 부진으로 운영하던 사업체를 정리했을 때 지영 씨에게 남은 것은 5천만 원에 달하는 빚뿐이었다. 독촉 전화가 빗발치는 막막한 현실은 평생 남에게 빚지는 것을 싫어했던 지영 씨에게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만들었다. 그때마다 지영 씨의 마음을 다잡게 했던 것은 하나뿐인 가족, 뱃속에 있는 아기였다.

지영 씨는 운 좋게 한 미혼모센터를 소개받아 아이를 무사히 출산하였고, 지인의 소개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 원금의 일부를 탕감받은 후 남은 빚은 월 20만 원씩 8년 동안 나눠서 상환할 수 있게 되었다. 지영 씨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5년 만에 모든 빚을 조기 상환할 수 있었고, 지금은 경제적 애로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영 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채무 조정 제도는 연체나 과중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채무조정의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필자의 연구 논문인 〈한국 채무구제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채무조정을 이용하지 않은 연체 채무자는 5년 후 신용점수가 81.3점 하락하고 연 소득은 13.3%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 연체 채무자는 5년 후 신용점수가 144.8점 상승하고, 월 소득도 79.3% 증가하여 채무조정 제도의 경제적 재기 지원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박정민 교수도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부담이 많이 감소하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우울감이 줄고 행복도는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듯, 채무조정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성과를 내고 있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은 2021년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업하여 채무조정 지원 후 잔여 채무를 성실히 상환 중인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미취업 청년 취업 촉진과 신용 상승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이 지원하는 230억 원을 활용하여 5년 동안 취약 청년 약 2만 명에게 신용복지컨설팅을 통한 신용도 개선, 취업 컨설팅을 통한 취업 촉진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사업 참여자의 경우 신용점수가 평균 59점 상승하였고, 1,194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음먹은 대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다.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덮치면서 갑작스럽게 실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경기 부진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분들도 많을 것이다. 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길을 걷다가 계단의 턱에 걸려 넘어질 수 있듯 예상하지 못한 불운을 만난 것이다.

이제껏 겪어본 적 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다면, 특히 금전적인 어려움이 닥쳐 가족에게도 털어놓기가 힘드실 때 꼭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여 상담해 보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익적 기관들과 협력하여 경제적 도움과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분들에게 불운과 역경을 헤쳐 나가게 해주는 '희망의 다리'가 되어 주기를 기대해 본다.

03

포용금융

어려울수록 빛을 발하는 사회적금융

박 향 희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상임이사

일러두기 재단 홈페이지 게재일 : 2025년 2월 25일

신나는조합은 2000년 '가난한 자들의 은행'을 표방하며 한국 최초 민간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관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사회적 금융 약 651억 원, 비금융지원 약 520억 원 등 총 1,171억 원을 조성해서 빈곤층 공동체 창업·경영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등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24년간 사업을 해온 우리 법인은 최근 고민이 많다.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부진, 원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자영업자와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업 이후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가 최근 1년 사이 40%나 증가했으며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등 예산 삭감으로 인한 지원체계도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지원체계 구축은 요원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산업공익재단(이하 재단)이 지원하는 '사회적가치 창출기업 대출지원사업'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고금리로 무너지는 기업이 속출하는 가운데 1% 저금리를 제공하며, 기업별 다양한 사회적 가치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경우 1% 이자도 인센티브로 기업에 돌려준다. 기업의 금융 문제 해결과 새로운 사회가치 창출 등 두 가지 효과가 있다.

이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3~'27)'의 핵심인 SVI 활용 사회가

치 측정을 반영한 것으로 경제적 성과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별 사회가치를 인정하고 그 성과를 돌려주는 사회적 금융의 혁신적 시도이다.

사회적금융이 일반적 금융과 다른 점은 포용금융, 인내금융, 관계금융이라는 점이다. 시중은행에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기업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기업 상황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금 조정, 기업과 지속적 소통으로 컨설팅, 타 자원 연계 등 비금융 지원을 한다.

조류독감 등으로 연속 3번 사업 실패로 신용등급이 바닥을 친 사장님은 죽음의 문턱에서 신나는조합의 창업자금 대출을 만났고, 현재는 10개가 넘는 점포를 가진 국수 맛집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창업 초반 기세 있게 성장하던 청년 사회적기업가는 직원 교통사고, 직원의 사업 지침 위반 등 한꺼번에 겹친 악재로 파산을 고려했으나 여러 번의 면담과 심리적 지지로 사업 재기 때까지 이자만 납입하도록 조정했고 몇 년이 지난 지금 사업이 안정을 찾았다.

본 사업 대출기업 중에는 시설 투자금이 부족하여 납품처를 두고도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출받아 매출 성장을 이뤘고, 장애인, 퇴직 시니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둔 기업도 있다.

적정 시기 사회적 금융이 제공되지 못하고 개인과 기업이 파산했을 때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은 수치로도 증명이 되며, 한 사람의 삶과 한 기업의 성패를 달리할 수 있는 것이 사회적 금융의 힘이다.

신나는조합은 재단의 지원으로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금융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고, 재단 역시 본 사업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재단의 사업 추진 전략과 연관이 깊다는 것인데, 추진 전략 중 'UN SDGs 기반 글로벌 사회공헌-8번.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은 본 사업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좋은 일자리 창출, 매출 증대와 연결된다. 그리고, 본 사업은 대출사업이므로 원금이 상환되면 반복해서 선순환 대출이 가능하므로 재단 기금 운용의 효율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이에 재단이 포용금융을 지원하는 선도적 기관으로서 사회적금융 사업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기대해 본다.

2025년은 UN이 정한 두 번째 '세계협동조합의 해'인데, 이는 UN이 SDGs 달성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결의한 결과이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더 빛을 발하는 사회적경제의 연대·협력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더 탄탄한 사회적 금융 터전을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글을 마친다.

03

포용금융

청소년들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마중물

이복순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팀장

일러두기 재단 홈페이지 게재일 : 2025년 3월 20일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경제·금융 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금융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조기 금융교육의 필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 각층에서는 금융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가 공포되고 고등학교에서는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목이 신설되는 등 제도적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청소년기 금융교육이다. 이 시기에 형성된 올바른 금융 습관은 성인이 되어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경제·금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기초가 되며, 건전한 경제·금융생활을 영위할 힘을 길러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발맞춰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는 금융산업공익재단의 후원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다양한 경제금융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금융키트(KIT)를 활용한 체험형 교육과 금융교육용 뮤지컬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재미와 교육 효과를 동시에 잡는 성과를 보였다. 이는 용돈을 관리하는 습관, 균형 있는 소비와 저축, 금융사기 예방 교육 등 기초적인 경제 개념부터 실생활과 밀접한 금융지식을 배워 금융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특히 메타버스를 활용한 '네고티움' 교육은 게이미피케이션을 접목해 가상 세계에서 금융 의사 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높은 몰입도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2021년부터 꾸준히 지속한 경제금융교육은 누적 교육 인원이 132,243명에 달하며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가 체험형 교육 86.8%, 금융교육 뮤지컬 97.3%, 메타버스 금융교육 90.0%로 매우 높다. 특히 지원한 초등학교의 20% 이상이 교육복지 거점학교로 취약계층 학생들에게도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장기적으로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중학교는 과대·과소 학교를 우선 선발해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일조했으며, 학교 공간 부족과 학생 수에 따른 교육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성과는 재단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교육 콘텐츠의 질이 한층 높아진 덕분이기도 하다. 교재와 교안의 체계적인 업데이트, 학생 1인 1금융키트 제공, 뮤지컬과 메타버스 콘텐츠의 도입은 교육의 몰입도와 실용성을 높였다. 예를 들어 '나만의 여권 만들기' 금융키트는 세계 각국의 화폐와 문화를 배우며 글로벌 금융 감각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교육 뮤지컬 '네 꿈은 뭐니'는 용돈 소비 방법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보여주며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메타버스 금융교육 '네고티움'에서는 예금과 대출, 경제 상황에 따른 금리 변화와 같은 실질적인 금융 개념을 가상 세계에서 직접 경험하게 하여 교육의 현실성을 높였다. 또한 전문 강사 심화 연수는 교육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더욱 높이는 데 기여했다.

재단과의 협력은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을 넘어, 사회 전반에 금융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속 가능한 경제적 발전을 추구하는 데 의미가 있다. 재단의 금융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은 미래 사회의 경제적 주체가 될 청소년들에게 필수적인 금융역량을 키워줄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금융 습관을 심어주는 이러한 활동들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빛나는 미래를 펼칠 수 있게 돕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03

포용금융

실생활에도 입시에도 도움 주는 경제교육

이옥경
(사)밥 일 꿈 이사장

일러두기 재단 홈페이지 게재일 : 2025년 5월 19일

TV를 돌리다 보면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서로 독침을 쏘아대며 끝장으로 달려가는 부부, 미성년에 임신하고 부모가 됐는데 대책 없이 사는 아이들 등의 일상이 자극적으로 나오는 프로그램을 볼 때가 있다. 그들의 문제성 있는 행태를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다. 물론 어떻게든 살아보려 애쓰는 인물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대개 한쪽은 책임감 없이 '오늘만' 살고 있다. 문제해결은 더욱 멀어지고 불신과 다툼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커플들이 많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인식하는 능력, 서로 소통하며 공감을 나누는 대화법,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저들에게 맞춤형으로 꼭 제공됐으면 하는 간절한 생각이 든다. 나아가 어릴 때부터 생활인으로서의 이런 기본적 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이야말로 개인적, 사회적 손실을 막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새삼 느낀다.

각 분야의 뛰어난 인재를 키우는 것은 이 세계적 경쟁 시대에 너무나 중요하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을 키우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다.

그 가르침에는 전방위적인 내용이 있어야겠지만 경제 교육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대체로 '경제관념'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더욱 관계 악화로 이어진다.

사단법인 '밥 일 꿈'이 수행하는 사업의 행사에서 나는 항상 '밥 일 꿈'이라는 조금은 생소하고 촌스러운 느낌의 이 명칭은 뭘 의미할까 하는 의아함에 대한 설명부터 하고 시작한다.

밥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자주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반이다.

그 밥을 위해 일을 하되 하고 싶은 일이 되게 하자는 것이 일의 의미이다. 그러나 꿈이 없으면 밥과 일은 의미 없는 일상이 된다. 이 셋의 조화가 개인과 우리 사회의 지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내일신문 임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비영리 법인이 사단법인 '밥 일 꿈'이다.

'밥 일 꿈'이 하는 사업 중 몇 개를 소개하고 싶다.

더운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추운 한국의 겨울을 따뜻하게 나도록 외투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2018년부터 시작한 '외국인 이웃을 위한 외투 나눔(첫겨울 나눌래옷)' 사업이 있다. 아직 멀쩡하지만 좀 싫증났거나 체형이 변해서 못 입는데 버리기에는 아까운 겨울옷이 어느 집에든 있을 것이다. 여러 기관, 학교, 아파트 자치회 등과 협력해 이런 옷들을 기부받아 국내 제일의 프랜차이즈 세탁업체에 의뢰해 깨끗이 세탁하고 수선해서 근년 들어서는 1만 벌 이상을 전달하고 있다. 초기에는 서울시청 광장 등에서 옷을 진열하고 오프라인 행사로 전달했지만, 이제는 홈쇼핑처럼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주문 방식으로 외국인 이웃이 고른 외투를 우체국 택배로 보내고 있다.

7회를 맞아 우리의 마음을 나눔으로써 외국인 이웃과의 거리를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다문화 축제로 발전하려고 한다.

한편, 열악한 환경의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 사다리를 놓는 '사다리 교사단'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했다.

사교육과 입시정보 등 진학지도 서비스의 소외지대에 있는 아이들은 이미 그들을 위해 국가가 마련해 놓은 제도의 존재도 활용방법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사다리 교사단은 자발적으로 한 학생의 멘토가 되어 그 아이들이 이 제도가 제공하는 기회의 문을 찾아 꿈을 이루도록 돕고 있다. 함께하는 교사들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심지어 왕복 세 시간이 넘는 거리를 운전해 찾아가는 선생님도 계시다. 참여하는 선생님들이야말로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 사회를 좀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분들이다.

사다리 교사단 사업은 이제 각 지역별 상황에 맞춰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확대되고 있다.

다시 경제 교육으로 돌아와 보면 100세 시대에 어린 세대가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도록 돕는 일은 어른 세대의 의무라 할 것 같다. 고교생은 자신의 삶을 자주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금융은 늘 가까이 두고 잘 활용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유도해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이제 2년 차를 맞은 고교 금융교육 사업은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에 중요한 이슈인 연금을 주제로 연금의 구조를 알고 자신의 연금 설계를 해보는 방식은 금융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에 효과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금융교육을 고교 정규 수업에서 시도하는 이 사업은 그 사례가 없는 첫

시도였다.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주신 전문가들, 자발적으로 모이신 40여 개 고교 선생님들, 그리고 금융산업공익재단과 함께 지혜를 모아 출발했지만 당연히 중간중간 시행착오와 난관이 예상되었다. 하지만 참여한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연대를 맺어 교육 방법을 공유하며 내용을 더 알차게 채워 주셨다. 그 결과 대학입시에도 도움이 되면서 실생활에도 도움을 주는 '좋은 수업'의 소중한 사례로 발전하고 있다.

금융인식을 전 사회 구성원의 인생에 도움을 주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강조하는 금융산업공익재단에도, '밥 일 꿈'을 강조하는 우리에게도 잘 맞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재단의 지원에 감사드린다.

평범한, 건강한, 시민이 우리 공동체의 기반이 되도록 함께 힘을 모으기를 소망해 본다.

03

포용금융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교육 일선에서

안기천
전국퇴직금융인협회 회장

일러두기 재단 홈페이지 게재일 : 2025년 9월 10일

금융산업공익재단과 (사)전국퇴직금융인협회가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교육 및 1:1 상담 사업」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소외된 취약 계층에게 부족한 금융 역량을 높여 줌으로써 자주적 경제활동 주체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용적 금융교육 사업이다.

본 사업은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으로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취약계층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노인), 장애인 및 신용불량자, 출소 예정자를 Target으로 선정하여 맞춤형 금융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수행한 바 있으며, 1년 차 경험을 바탕으로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다시 1년간 2차 연도 계속사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업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금융교육 사업은 (1) 생활금융 이용에 취약한 계층을 찾아서 (2) 부족한 금융이해력 및 금융 역량을 높여 자주적인 경제활동 및 경제주체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3) 금융·투자사기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하며 (4) 자산관리 역량을 키워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에 그 목적과 중요성이 있다.

사업 추진 배경에는 무엇보다 최근 IT기술의 빠른 발전 및 금융산업의 Digital화 가속에 따라 금융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점차 소

외되어 가고 있으며, 금융의 이용 격차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금융 문해력 및 Digital 활용 수준이 낮고 경험이 부족한 고령자(노인) 및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은 자산관리 역량 부족과 각종 금융·투자사기로 인한 피해에 노출되어 실질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는 등 대응 능력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기에 이들에 대한 금융교육이 매우 절실하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는 금융 취약계층 중에서 고령자(노인) 및 장애인, 신용불량자, 출소 예정자를 금융교육 및 1:1 상담의 타깃으로 하여 대상별로 적합한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해 협회는 금융교육 11,233명, 1:1 상담 1,314명의 총 12,547명에 달하는 금융 취약계층을 찾아가서 금융교육 및 1:1 상담을 실시하였고,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자 전용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131명에 달하는 금융 강사를 신규 양성했다. 또한 Level-up Academy를 통해 강사 역량을 높이는 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왔다.

교육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모니터링 결과, 본 사업에 대한 교육 만족도 평점이 평균 95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상담의 경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과 앞으로 상담을 추가로 받고 싶다는 등 반응이 기대 이상으로 좋아 성과는 매우 긍정적이고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본 금융교육 및 1:1 상담 사업이 금융 취약계층에게 아주 현실적이고 만족감을 주는 실용적, 차별적인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맞추어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교육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파악된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체험형 현장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생활금융 친화적인 방향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는 '금융닥터' 컨설팅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보다 심층적이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본 사업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포용금융의 실천을 지향하는 금융산업공익재단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2,000여 명에 달하는 협회 회원들의 전문적 역량이 잘 어우러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사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은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렵고 꾸준한 교육 및 지원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재단의 지속적인 지원은 이들의 금융자립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많은 취약계층이 이러한 금융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원의 손길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융교육 및 상담(컨설팅 등) 사업이 보다 더 폭넓고 다양한 형태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앞으로 우리 협회는 포용금융 확산과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하는 금융산업공익재단의 목적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설계하고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좋은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03

포용금융

‘적절한 주거’를 위한 첫걸음, ‘든든한 주거복지기금’

이 제 원
(사)나눔과미래 지역활성화국장

일러두기 재단 홈페이지 게재일 : 2025년 11월 26일

주거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분이 많이 있다.

재개발로 그동안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은 모두 떠나버리고, 홀로 지낼 수밖에 없는 어르신. 사회의 첫 시작을 고시원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청년. 어렵게 선정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열악한 주거에서 계속 생활할 수밖에 없는 분. 이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바로 보증금이 없다는 것이다. 보증금 몇백만 원만 있었으면, 지·옥·고(반지하, 옥탑, 고시원)로 표현되는 곳이 아닌 훨씬 좋은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청년과 저소득층이 보증금 융자를 통해 적절한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금융 및 주거 교육과 공공임대주택 정보 등 복지서비스 연계, 주거공간컨설팅 등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주거복지기금 대출사업(든든한 주거복지기금)’을 기획하였고,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을 통해 추진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무엇보다 본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총 31가구(청년 14가구, 저소득층 17가구)가 ‘적절한 주거’로의 입주를 마쳤다는 점이다. 이 중 8가구는 반지하,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주거에서 거주하다

가 적절한 곳으로 이사한 가구이다. 또한 24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주거비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상환기간이 짧아 매월 상환금액에 부담을 느껴서 포기했던 가구들을 고려해 볼 때 이 점이 개선된다면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적절한 주거'로 이주한 이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주거·금융교육 자료를 제작, 배포해 향후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고, 특히 청년의 경우 연체 없이 상환(9가구) 시 이자 전액을 돌려줘서 '금융 취약계층'이 되지 않도록 경험을 쌓게 하였다. 그리고 주거 실태를 파악하고, 보다 나은 주거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컨설팅(9가구)을 진행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정보 및 각종 지원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주거 지원사업 안내서'를 웹을 통해 배포하여 언제나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그리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통해 융자 여부뿐 아니라 향후 지원 방향까지도 함께 논의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하였다. 일례로 가정 내 일이 생겨 상환이 어려워진 가구에 대해 외부 지원을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무사히 상환할 수 있었던 가구도 있었다.

본 사업만으로 지원 가구 모두 집 걱정 없이 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아예 주거 상향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가구가 '적절한 주거'에 입주할 작은 희망이 마련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께 '적절한 주거'에 대한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든든한 주거복지기금'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금융산업공익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03

포용금융

채무조정은 실패의 낙인이 아니라 재기의 안전망이다

유송화
신용회복위원회 재기지원본부장

일러두기 재단 홈페이지 게재일 : 2026년 7월 1일

우리는 빚진 사람을 볼 때 종종 너무 쉽게 판단한다. "왜 그렇게 무리하게 썼을까", "처음부터 계획성이 없었던 것 아닐까", "빚은 당연히 갚아야지, 조정은 특혜 아닌가." 그러나 막상 내 삶에 갑작스러운 실직, 폐업, 질병, 가족 돌봄, 고금리 부담이 닥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내 연체에는 사정이 있고, 남의 연체에는 습관이 있다고 여긴다.

운전대 위에서 작동하던 해석의 이중 잣대가 금융의 영역에서도 반복된다. 내 어려움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타인의 어려움은 성실하지 못한 태도의 결과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채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빚은 한 사람의 소비 습관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일자리의 불안정,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가족 부양, 경기 침체, 금리 상승, 사업 실패가 겹치며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된다. 사람은 대개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버티고, 돌려막고, 미루고, 다시 일어서려 애쓰다가 어느 날 더는 버틸 수 없는 지점에 도착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 제도는 빚을 가볍게 여기는 장치가 아니다. 오히려 빚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조건을 다시 세우는 제도다. 갚을 의지가 있지만 현재의 상환 조건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숨 쉴 틈을 주고, 다시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핵심은 면책이 아니라 회복이다. 책임 회피가 아니라 책임 이행의 가능성을 되살리는 일이다.

사회에는 여러 종류의 안전망이 있다. 실직하면 고용보험이 있고, 병이 나면 건강보험이 있으며, 생계가 흔들리면 복지제도가 있다. 그렇다면 금융의 영역에도 안전망이 필요하다. 채무조정은 바로 그런 안전망이다. 사람이 빚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고, 가족관계가 깨지고, 삶의 의지가 꺾이기 전에 다시 상환 가능한 질서 안으로 데려오는 제도다. 추락하는 사람을 끝까지 떨어뜨린 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손잡이를 마련하는 일이다.

물론 빚은 갚아야 한다. 이 원칙은 흔들릴 수 없다. 그러나 "갚아야 한다"는 말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갚을 능력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에게 원래 조건만 반복해서 요구하면, 채무자는 더 깊은 연체와 추심의 악순환에 빠지고 채권자 역시 회수 가능성을 잃는다. 개인의 파산은 개인만의 손실로 끝나지 않는다. 가정이 흔들리고, 소비가 위축되고, 노동 의욕이 꺾이며, 사회 전체가 더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그래서 채무조정은 채무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채권자와 사회 전체의 손실을 줄이는 공적 조정 장치이기도 하다.

우리는 기업에는 비교적 관대하다. 기업이 어려워지면 구조조정, 워크아웃, 회생이라는 말을 쓴다. 경영 환경이 나빠졌고, 시장 상황이 변했고, 자금 흐름이 막혔다고 설명한다. 어떻게든 살릴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면 채권단이 모여 상환 조건을 조정하고, 시간을 주고, 회복 가능성을 따진다. 그런데 개인에게는 왜 그토록 쉽게 "무책임하다"는 말을 붙이는가. 한 사람의 삶도 하나의 작은 경제다. 소득이 있고, 지출이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예상치 못한 위험도 있다. 기업에 회생 절차가 필요하다면, 개인에게도 재기의 절차가 필요하다.

다만 채무조정만으로 재기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빚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일은 출발점일 뿐이다. 이후에는 일할 기회를 얻어 소득을 회복해야 하고, 무너진 신용을 조금씩 올려나가야 한다. 다시 통장을 관리하고, 다시 면접장에 가고, 다시 매달 약속한 금액을 상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재기는 제도의 문을 통과하는 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버텨내는 과정에서 완성된다.

이 지점에서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산업공익재단이 함께하는 채무조정 미취업청년 취업촉진·신용상승 지원사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두 기관은 채무조정 중인 미취업청년들이 신용과 재무 상태를 개선하고, 직업 역량을 키우며, 취업과 자산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채무를 조정해 주는 데서 멈추지 않고, 다시 갚을 수 있는 힘을 함께 길러주는 것이다.

이 사업은 재기의 조건을 세 방향에서 보완한다. 먼저 신용컨설팅과 신용개선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자신의 금융 상태를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용점수의 회복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다. "내가 다시 나아지고 있다"는 확인이고,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작은 증거다. 다음으로 취업·자영업 컨설팅, 직업훈련·자격증 취득·면접활동 지원 등을 통해 소득 회복의 길을 연다. 상환능력은 의지만으로 생기지 않는다. 일할 기회와 배울 기회가 함께 주어질 때 비로소 만들어진다. 마지막으로 자산 형성 지원은 다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는 감각을 회복하게 한다. 빚을 줄이

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다시 쌓아보는 경험이다.

특히 청년 채무 문제는 더 조심스럽게 바라보아야 한다. 청년기의 연체와 신용 하락은 현재의 불편에 그치지 않는다. 취업, 주거, 창업, 결혼, 자립의 기회를 늦추고 삶의 출발선을 뒤로 밀어낸다. 사회가 너무 이른 시기에 실패를 낙인으로 고정해버리면, 한 사람의 가능성은 회복되기도 전에 위축된다. 반대로 적절한 상담과 일자리 지원,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채무조정 미취업청년 지원사업은 바로 그 가능성에 대한 투자다.

우리가 바꾸어야 할 질문도 여기에 있다. "왜 빚을 졌느냐"라는 질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다시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무너진 신용을 회복의 경험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함께 물어야 한다. 단죄의 질문에서 회복의 질문으로 이동할 때, 채무조정은 비로소 제 역할을 한다.

누군가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판사의 망치를 먼저 들기 쉽다. "저 사람은 돈 관리를 못 했어." 그러나 잠깐 멈춰볼 필요가 있다. 실직이 있었을까. 병원비가 있었을까. 폐업의 충격이 있었을까. 가족을 지키려다 혼자 감당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물어야 한다.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일까, 아니면 다시 책임질 수 있게 만드는 손잡이일까.

채무조정은 빚을 가볍게 만드는 제도가 아니다. 오히려 빚의 무게를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나누는 제도다. 신용상승과 취업, 자산 형성으로 이어지는 지원은 그 길을 실제로 걷게 만드는 동행이다. 실패한 사람을 골라내는 사회는 차갑다. 그러나 실패 이후에도 다시 설 수 있게 돕는 사회는 강하다. 채무조정은 그 믿음을 제도로 보여주는 일이다.

03

포용금융

주린이의 금융시장 동참기

송호근
한림대학교 석좌교수

일러두기 재단 홈페이지 게재일 : 2026년 7월 20일

현대 자본주의에서 소득의 원천은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이다. 노동시장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직업시장이고 생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장소이기에 별다른 설명 없이도 이해하기 쉬운 대상이다. 금융시장은 기업의 생산활동과 상품 유통,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고 자금 유통과 투자를 가능하게 만드는 자금시장이다. 그런데 기업에서 제조하는 수천 가지의 상품들은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반면, 금융시장에서 만드는 상품들은 그 본질을 잘 모른다. 은행이나 증권 회사, 투자회사에서 만들어 파는 상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것의 소득 원천은 무엇인지 복잡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 금융시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노동시장과 직업시장에 직접적인 충격을 미치고 심지어는 공황 상태를 유발하기도 한다.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는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가 그러하다. 두 건의 금융위기는 오로지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던 무고한 직장인들을 기습했다. 1998년에는 수백만 명의 직장인들이 일터를 잃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으며, 2008년 금융위기는 3만 달러를 향하던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1만 5천 달러대로 떨어뜨릴 만큼 위력적이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의 주택시장 버블에서 비롯되었다. 저당권을 소유한 모기지 대출기관은 대출채권을 발행해 현금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자산유동화회사들은 주택저당증권을 파생상품으로 만들어 시중에 팔았는데 이런 과정이 몇 차례 반복되면서 증권사, 보험사, 투자자가 서로 얽힌 채 애초의 저당권 가치가 4배가량 증식되기에 이르렀다. 그때 집값이 느닷없이 하락했다. 투자자들이 일시에 현금 인출을 요구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산 사태가 발생했고 이것이 월스트리트를 거쳐 세계 금융시장으로 확산되었던 게 2008년 금융위기의 본질이다.

금융위기가 한국에 상륙한 것은 2008년 10월 24일이었다. 한국 증시에서 500조 원이 하루아침에 증발되었고, 각종 펀드와 투자 기금이 반 토막 났고 환율이 1,500원 선으로 급등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를 덮치자 소비와 투자가 얼어붙었으며, 기업들은 유동성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시장은 달러에 기갈이 든 것처럼 보였다. 이른바 '악마의 맷돌'(Satanic Mill)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당시 상황을 필자는 이렇게 썼다.

"악마의 맷돌을 달래려 미국이 1조 달러의 공물을 바치고, EU가 수조 유로의 구제금융을 모으고, 아시아가 800억 달러의 긴급 자금을 조성하겠다고 용서를 빌어도 거식증에 걸린 금융시장은 대륙을 가로질러 질주한다. 돈 냄새가 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주저앉을 태세다. 허기진 시장은 돈의 주인을, 주인의 인품과 형편을 따지지 않는다. 기업자금, 세금, 보유 외환을 포식하고도 모자라 결혼자금, 학자금, 증권, 주식, 투자금, 대출금에 서린 서민의 애환과 소망을 먹어 치웠다. 마치 펄 벅의 『대지』에 나오는 메뚜기 떼와 같고, 히치콕 영화의 새 떼와도 같다."

그해 금융위기는 기업과 서민 생계에 엄청난 상처를 입히고 진정되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렇게 근사하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금융시장 경험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주택대출금에 이자 납부, 적금 정도라고 할까? 교수 월급으로는 장기 예금조차 상상할 수 없는 처지였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실물시장은 물론 금융시장을 단단히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모르는 바 아니었다. 주식시장이 금융시장의 요체이므로 주식 경험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은 진즉에 있기는 했으나 엄두를 내지 못했던 터였다. 마침, 한국의 주식시장에 불이 붙었다.

기어이 예금을 헐었다. 전 국민 주식 대열에 동참하기로 했다. 세금 떼고 2% 남짓한 이자에 목을 맨 평생의 인내심을 포기한 후였다. 앱을 깔고 사용법을 설명하는 증권 회사 직원의 희망찬 목소리가 환상을 불러일으켰다. 아니야, 이건 국가 산업에 투자하는 거야, 십시일반 돈을 보태 기업을 살리는 애국의 길이지. 생애 최초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면서 식민 시대 그 비장했던 국채보상운동을 떠올렸다.

주가는 상승세였다. 은행 1년 이자를 하루 만에 갈아치웠고, 삼일 후에는 5년 치 선을 치고 올라갔다.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넣을걸, 후회가 밀려왔다. 주식 매수 방법을 들었건만 앱에 익숙지 않은 손가락이 떨렸다. 수익 20% 선에 도달했을 때는 술 한잔 마시며 혼자 히죽거렸다. 다른 적금을 깨야 하나. 머릿속에 화톳불이 계속 켜졌다. 유튜브가 권하는 손절이니 익절이니 하는 말은 들리지도 않았고 다만 수익선을 상향 조정했을 뿐이다. 이렇게 쉬운 걸 왜 평생 외면했을까, 왜 다른 사람들은 울상일까 하는 즐거운 조바심이 내면에서 들끓었다.

미국·이란 전쟁이 터졌다.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한 달 동안 힘겹게 쌓아 올린 상승분이 몇 시간에 날아갔다. 정신이 혼미해졌다. 주가 하락을 대비

하라는 주식 전문가들의 경고를 흘려들은 건 아니었다. 대비할 방법을 몰랐다. 국가경쟁력 증진에 동참한 길에 그 정도야 견딘다는 소명의 방벽을 둘러친 터였다. 그런데 주가는 정체 모를 수십 개의 납추를 달고 사뿐히 낙하했다. 마치 한 걸음씩 힘겹게 도착한 5부 능선에서 등을 떼밀려 낭떠러지에 추락한 느낌이었다. 결국 탈출했다. 한숨을 몰아쉬었다.

이 안도의 한숨은 주가가 보름 뒤 원상 복귀했을 때 탄식으로 변했다. 참을걸. 견뎌야 한다는 전문가의 말을 들을걸. 그러나 무경험 초보자에게 맷집이 있을 리 없었다. 시장은 도대체 급락의 원인이 뭔지를 따질 겨를을 허용하지 않았다.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앱에 매달렸다. 하루에도 앱을 켜는 횟수가 급격히 늘었다. 이 나이에 무슨 짓? 아니야, 국채보상운동의 현대판이지. 길가 휴게소 청년들, 버스 승객들도 주식 앱에 열중이었다. 짧은 탄식과 환호가 겹쳤다. 결국 다시 진입했다. 이번에는 작은 적금을 털어 투자액을 늘렸다. 25% 수익을 자체 결정하고 내심 승전의 미소를 지었다. 주식은 안정을 되찾아 작은 등락을 거듭했지만 상승세였다. 고지가 보였다.

목표에 거의 도달한 6월 초순 시장이 다시 계곡 깊숙이 낙하했다. 하락의 원인을 정확히 짚는 사람은 없었다. 주가 급상승에 따른 '일시 조정'이란 말은 개념 규정이지 요인 분석은 아니었다. 충만함을 선사하던 수익이 순식간에 날아가고 원금 터치다운 일보 직전이었다. 원금을 뚫고 활강하는 주가의 공포는 당해본 사람만이 안다. 이번에는 맷집이 생겼는지 충격이 조금 약했다. 그때 알았다. 빚투에 나선 청년들의 절박한 심정을. 하루 종일 앱에 망명해도 훼손된 원금과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쩔쩔맬 수밖에 없음을. 주식 시장은 격려금은커녕 이자도 주지 않는 혹한의 극(極) 지대다.

두 번의 참패 끝에 필자는 혹한 지대를 빠져나왔다. 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현장 학습이었다. '장기투자'가 아니라면 그것은 분명 투기다. 유망한 기업에 장기간 자금을 대고 적정 보상을 받는 주식시장의 대의(大義)를 잊는다면 이른바 단타는 도박이고, 앱은 중독이다. 그런데 급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는 불장에서 대의보다 대박을 외치는 사람이 대부분인 걸 어쩌랴.

주가는 필자의 예상과 항상 거꾸로 움직였다. 오를 거라면 내렸고, 내릴 거라면 횡보했다.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수십 개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자본시장 큰손들의 수시 결단, 빅테크들의 우위권 경쟁과 경영전략, 유가와 반도체 가격 등 외부 요인들에 의해 휘청거렸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금융 강국이라면 이토록 흔들리지 않을 텐데. 금융 약소국의 투자자는 정체를 모르는 외부 요인에 의해 운명이 결정된다고나 할까. 그러니 아무리 투자 고수라 해도 투자 대상, 적확한 가격과 시점을 판별하기가 어려운 안개 시장이다. 이런 불장에서 대의와 소명 의식은 생겨나지 않는다. 그저 생존하기 바쁘다. 고비마다 항상 돌발 변수가 어디선가 튀어나왔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탓할 수도 없다. 그저 운(運)과 경험이 수익 실현의 가장 듬직한 무기일 뿐이다. 마침내 필자에게 깨우침이 왔다. 주식 세계란 풍랑이 몰아치는 거친 바다에 일확천금을 꿈꾸는 일엽편주를 띄우고 24시간 흔들리는 것.

달고 쓰린 이런 국민적 경험은 한국 금융 산업의 토대를 다지는 데에 필수적 코스라는 생각은 든다. 악몽과 길몽이 층층이 겹쳐 금융 강국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과거에 네덜란드, 영국,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제조와 금융은 자본주의의 두 개 축이다. 독일은 제조업을 붙들고 있는 반면 영국은 제조업을 버리고 금융을 키웠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금융으로 비중을

옮겨 월가의 큰손을 양성했고 금융의 힘으로 세계를 제패했다. 한국이 제조 강국의 정상을 유지하려면 막강한 금융 산업이 뒷받침돼야 함은 20세기 역사가 증명한다. 주식 열풍에 뛰어든 우리는 금융 강국으로 가는 노잣돈을 지불하는 중인가.

03

포용금융

흔들리는 시장에서 금융 마인드셋을 생각하다

차경욱
성신여자대학교 소비자산업학과 교수

일러두기 재단 홈페이지 게재일 : 2026년 8월 19일

2025년 4월 2,300선이었던 코스피지수는 무서운 속도로 상승해 지난 6월 중순 9,000선을 돌파했다. 그리고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5,500선으로 하락했다. 7월 말에는 하루에 10.8%가 떨어졌다가 불과 사흘 뒤 하루에 17.9%가 오르는 등 극심한 변동성이 이어졌다. 수업 시간에나 설명하던 서킷브레이커가 이틀 연속 발동하고, 매수와 매도 사이드카가 번갈아 발동하는 롤러코스터 장세 속에서 많은 이들의 마음도 하루하루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2020~2021년을 기억해 보자. 코로나19로 증시가 급락하자 '동학개미운동'이 시작됐다. 주가가 빠르게 반등하면서 '영끌'과 '빚투' 열풍이 확산되었고, 2021년 1월 코스피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000을 넘었다. 그러나 이어진 조정 국면에서 반대매매(증권사의 강제청산)와 깡통 계좌가 속출했고, 빚을 감당하지 못한 청년층의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했다.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불법 유사 투자자문과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그때의 뼈아픈 교훈을 잊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 마주한 현실은 5년여 전보다 한층 위태로워 보인다.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서 돈을 빌린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6월 38.6조 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7

월 중순 급락장에서는 한 주 동안 약 120만 개의 개인투자자 계좌가 마진콜(추가증거금 납입 요구)을 받고, 이 가운데 약 35만 개가 강제 청산된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추산했다. 빚을 내고 적금과 보험을 해지하고, 결혼자금, 창업자금, 퇴직금을 넣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본 안타까운 사연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주식의 '주' 자도 몰랐던 사람도, 평생 은행이자만 받던 사람도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 상당수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유튜브를 보고 주식을 따라 샀다. 스스로 기업과 시장을 분석하고 판단할 지식과 정보가 부족했을뿐더러, 마음이 조급해 공부를 할 여유가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들은 다 돈을 번다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컸을 것이다. 나중에 후회하게 될까 봐 조바심이 났을 것이다.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 즉 나만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증폭되면서 무분별한 군집행동이 일어나고 무리한 투자로 이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2021년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하고 그 흐름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번졌을 때도, 2024년 비트코인에 막대한 자금이 몰렸을 때도, 그리고 2026년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No single investment is right for everyone. 투자에는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하나의 정답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각자의 투자목표와 투자기간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자금의 규모와 성격이 다르며, 감내할 수 있는 손실의 수준(위험감수성향)이 다르고, 투자 경험이나 지식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재무 상태와 투자 성향을 객관적으로 진단, 평가하고, 스스로 투자목표를 세우고, 충분한 정보탐색과 대안 비교를 거쳐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그것이 나에게 베스트인 투자를 찾는 방법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을 충실히 거쳤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투자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스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다면, 설령 원치 않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을 돌아보고 다음 선택을 수정할 수 있다. 반면 남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랐다면, 실패의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뿐더러 심리적, 재무적 타격에서 회복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금융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금융교육은 재테크나 투자 비법을 알려주는 일이 아니다. 금융교육의 목표는 금융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건전한 금융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하고, 스스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하는 힘, 즉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을 길러주는 것이다. 개인이 보유한 재무자원을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과업을 달성해 가며,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고, 궁극적으로 금융웰빙을 증진하도록 돕는 지속적인 과정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디딤돌은 마인드셋(mindset)이다. 마인드셋은 재무 상태에 대한 관심과 관리 의지, 금융 의사결정에 대한 동기, 자신감과 자기통제, 미래지향적 사고, 그리고 재무 문제에 대해 소통하려는 태도 등을 포괄한다. 영국 정부(MaPS)의 금융역량 성과 프레임워크에서도 지식, 기술, 행동뿐 아니라, 마인드셋을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소득과 지출, 신용과 부채관리, 저축과 투자, 보험, 은퇴설계, 세금, 상속 등 수많은 재무적 선택을 마주한다. 이들은 개별적 사건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연속적 과정이다. 그러므로 장기적 항로의 방향을 잡아주는 마인드셋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금융 마인드셋은 성인이 된 후 갑자기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어려서부

터 경험과 배움을 통해 내재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교육은 가능한 한 일찍 시작되어야 하고, 학교 교육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독립된 정규 교과 개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사회, 수학, 국어 등 기존 교과와의 연계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융합프로젝트 등을 통해 실생활 금융의사결정과 금융소비자의 권리, 책임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시장은 앞으로도 수없이 출렁일 것이다. 새로운 금융상품과 디지털 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AI가 자산관리를 돕는 시대가 되었지만, 최종적인 선택과 책임은 '사람'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금융교육이 건강한 금융 마인드셋을 심어주는 평생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굳건히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04

일과 미래세대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남과 북의 만남을 위하여

김영우
해솔직업사관학교 이사장

일러두기 재단 홈페이지 게재일 : 2025년 10월 21일

76년 축복된 삶을 영위하면서 요즘처럼 '통일', '남북소통'이라는 단어들이 시큰둥하게 들리는 때가 없었던 것 같다. 20세기 말, 냉전 시대의 종말과 함께 체제, 이념논쟁은 사라진 지 오래다. 우주 스페이스 개발, AI와 로봇시대가 선진 인류를 온통 뒤집어 놓는 시대의 중심에 있는 대한민국에만은 유일하게 '남북분단 장기화와 핵 위협'이라는 민족사적인 아픔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

여기에 대응하는 우리 남한사회의 생각 차이도 만만치 않다. 정치적 신념의 차이와 겹쳐서 더욱 깊어진 남남갈등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게다가 통일이라는 명제는 역사적 당위성 차원에서 이제껏 존중되어 왔다면 그마저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다. 실제 우리 사회의 통일 담론에 있어서 피로감은 크게 누적되어 있다.

필자 개인에 국한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접하는 정보는 비대한 체구와 위성 발사 장면, 듣기만 해도 섬뜩한 여전사의 어나운스먼트이다. 우리가 왜 이 평화로운 땅에서 그 뉴스를 보고 살아야 하는지, 안 보면 안 되는지 판단이 서질 않는다.

한편, 남한에서는 통일 이야기 하면 50대 이상 심지어 70대, 80대 옛 시절 한 보직하던 분들의 강연이요, 인터뷰 기사다. 언론의 논조도 사시의 방

석 위에 앉아 주장을 달리한다. 정작 10년, 20년 후에 이 사회의 모든 영욕을 감당하여야 할 젊은 세대의 말은 듣고 보기 힘들다. 60대 이상 세대는 4·19혁명 이후 이 나라의 모든 역사를 쓴 세대로서 지금도 그 역할을 하여야 할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그러다 보면 연륜이 말해 주는 보수적 성향이 강해진다. 좋게 표현하면 경륜이요, 나쁘게 보면 이기적 성향이다. 10억 넘는 인구를 가진 중국과 인도의 인재들이 미국 실리콘 밸리에서 똬리를 틀고 있고 호시탐탐 한국의 인재도 유혹을 한다. 우리 청년들은 '국장', '해장'을 넘나들면서 주식투자를 한다. 북한의 청년 중 몇 명이 마이크로소프트의 Bill Gates를 알며 테슬라의 Elon Musk를 알고 있을까. 그래도 우리 후손들이 한국말을 하는 북한 청년들이 낫지 수개국에서 오는 동남아 청년들과 같이 사는 게 나을까. 북한의 인구도 시장이요 지하자원도 돈이다.

오늘의 현재 속에는 과거의 유산이 있고, 미래의 방향성이 보인다. 과거의 유산에는 국민총소득 36,624불, 중·선진국 풍요함이 있고, 주 4일제 근무가 바람직하고 독신주의, 미출산이 늘어나는 MZ세대가 있다. 미래의 방향은? 우리 사회의 경제성장률 추이를 보라. 10년 후의 전망을 어떤 기관에서 얼마로 발표하고 있는지. 우리가 좋아하는 그래프를 보라. 어떤 상승세가 되는지 어떤 하락세가 되는지. 인구 변화 추이를 보자. 무지한 사람이 보아도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려면 지금부터 모두가 결혼을 하고, 한 부부가 적어도 5명은 출산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에 강력한 반론이 있다.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요 앞으로도 결코 후진할 수 없는 세계 10대 강국이라고. 거기다 통일이 되면 5대 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도 한다.

강력한 반론을 실현시키는 임무가 오늘 우리 사회에 주어지는 책무다. 첫째는 우리 사회가 이제는 겸손해져야 한다. 집단적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역사에는 흐름이 있다. 그 역사적 물줄기를 바꾸려면 엄청난 에너지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 속에 우리 모두의 겸손이 없으면 에너지는 생성되지 않는다. 나는 때로 이 용어를 성숙이라는 단어로도 쓴다.

둘째는 다른 사유 등은 제쳐 놓고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고자 한다. 최근에 있어서 남북문제 해결에 최대 장애물은 우리 사회 내부의 '남남갈등'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남남갈등의 해소 없이는 통일 논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유는, 통일 화두는 이제 우리가 북한 동포를 위한 통일이 아니라 남한사회의 장기적 생존을 위해서, 즉 우리 자신을 위해서 통일을 진지하게 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는 '통일' 대신, '통일로 가는 길'(the road to Reunification)을 이야기하고 싶다. 그 길의 과정은 우선 '남과 북의 만남'이요, 실행 방안은 '남과 북의 경제적 교류(지원)' 단계를 거쳐 '남과 북의 사회문화적 통합'이다.

남과 북의 경제적 교류는 초기 단계에서는 사실상 경제적 지원임에 다를 바 없다. 퍼주기 논쟁은 일의 해법이 아니다. 지금에 있어서는 30년 전부터 활성화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이고 또 그들을 통하여 흔히들 말하는 '통일 연습'을 한 셈이다. 긴 안목으로는 이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훗날을 위해서 '지금 & 여기서' 우리는 조그만 일부터라도 실행해야 한다. 북한의 문을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얼마나 큰 부담이 있더라도 두드려야 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금융산업공익재단에 예의가 아니지만 조그만 제안을 하고 싶다. 본 재단이 가지는 상징성은 기금의 규모가 아니라, 국내 산업계의 혈맥인 금융계 기관이 공동 출연해서 사회공헌 사업을 하는 일이다. 마음만 먹으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엄청난 고민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줄도 알고 있다.

금년도 사업 방향의 "포용금융, 일자리, 미래세대, 지역상생" 4개 분야에 앞으로는 "남북만남(가칭)"이라는 꼭지를 하나 추가하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드리고 싶다.

이 꼭지는 대중성을 가지는 것도 아니다. 기금 사용의 수혜자가 많은 것도 아니다. 연도별 프로그램 효과가 가시적으로 특히 계량화할 사업도 아니다. 그리고 사업자 선정이나 지속성도 다른 분야와 같아서 될 일도 아니다. 때로는 재단의 방향성에 근거하여 주관적 판단도 해야 하고, 사업 내용도 국내외로 다양할 수도 있다. 다른 분야에서 전문가 선정위원이 있듯이 이 꼭지는 연간 별도로 구성되는 팀이 고민하고 발굴하여 사업을 전개하여야 할 사안이다. 객관성 확보에 매몰되면 값어치 있는 사업에 힘을 실을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북만남"이라는 꼭지가 장기적 안목에서 남북통일의 시간까지 이어짐으로써 역사적 소임에 일부분을 감당하는 일이 바로 이 사업이다. 그리고 금융산업공익재단의 한 꼭지가 실효성 있는 모범이 되어 이 사회 다른 기관에서도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잘 알려져 있는 "통일과 나눔" 재단은 그야말로 통일 전용 사회적 캠페인 기관이다. 바라건대, 이사장이 바뀌면 사업이 흔들리고, 시국이 이상하면 사업 내용도 바뀌는 꼭지가 아니라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통일이라는 민족적 사명에 일조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희망한다.

이미 필자가 운영하는 '(사)해솔직업사관학교'에서는 재단 설립 초기에 프러포절을 제시하여서 3년간에 걸쳐 상당한 지원을 받았다. 그래서 더 이상 해솔을 지원해 달라는 청원은 하지 않아야 한다. 그 사업은 해솔학교의 기술자격증 취득 실습장으로 세워져 지금도 여러 청장년의 국가 자격증 취득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면을 빌어서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다.

04

일과 미래세대

실패할 기회

이문수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일러두기 재단 홈페이지 게재일 : 2025년 1월 6일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달라.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곳도, 할 곳도 없더라.'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난 한 청년의 가슴 아픈 고독사를 계기로 청년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고 밥 먹고 힘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식당을 준비하면서 청년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다. 종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청년들은 의외로 어렵지 않은 바람을 들려주었다. 그랬기에 그 바람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다. 비단 종교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에, 우리 사회 전체를 향한 외침으로 들렸다.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앞에서 스물두 살 청년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를 혹사하지 말라"라고 외치며 자신의 몸과 법전을 불살랐다. 당시 사회는 청년 전태일을 사회를 어지럽히는 불온한 사람으로 몰았지만 오히려 그는 법을 지키라고 절규하며 자신을 희생했던 것이다. 그제야 세상은 청년 전태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청년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 달라.'라고 외치고 있다.

〈2030청년영화제〉는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말하는 소통의 장이다. 영화를 전공하지 않은 누구라도 도전할 수 있다. 청년들이 하

고 싶은 이야기를 영화라는 매체로 표현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2021년 시작된 〈2030청년영화제〉는 2024년까지 4회를 맞이했다. 특히 2024년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성북구에 위치한 '아리랑씨네센터'에서 열렸던 제4회는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청년문화예술 지원사업의 후원 덕분에 비약적으로 성장하며 많은 청년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2030청년영화제〉의 특징은 그저 청년들이 영화를 만들도록 지원금을 주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전문 영화인들이 멘토로서 시나리오 작성과 영화 촬영, 편집, 후반작업에 함께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청년 감독은 배우를 캐스팅하고 연출부를 꾸리며, 촬영 장소 섭외 등 영화 제작 전반의 일을 모두 경험하게 된다. 한 편의 영화가 완성되고 불 꺼진 영화관에서 많은 관객들 앞에서 자신의 영화가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을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기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청년들은 '함께' 작업한다는 것의 소중함을 체험한다. 혼자만의 힘으로 될 수 없음을 느끼며 자신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스태프들과 함께 무엇과도 바꾸기 힘든 인생의 한 페이지를 채우게 된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기에 완성할 수 있는 것이다.

제4회 〈2030청년영화제〉에서는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으로 9편의 영화와 3편의 시나리오가 완성되었다. 그리고 4일 동안의 영화제가 개최되었다. 영화 제작 과정에서 수십 명의 청년들이, 4일간의 영화제를 통해서 수백 명의 청년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풀어내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지난 4년 동안 〈2030청년영화제〉에 참석했던 많은 청년은 이구동성으로 외친다. 이와 같은 좋은 기회가 오래도록 지속되었으면 좋겠다고.

〈2030청년영화제〉의 또 다른 특징은 청년들에게 실패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영화를 전공하지 않은 청년들의 도전이기 때문이다. 따라가기 벅찰 정도로 변화가 빠른 우리 사회에서 단 한 번의 실패로도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는 청년들에게 마음 놓고 도전하고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청년들에게는 꼭 필요하다. 청년들을 대신하여 이와 같은 기회에 지원해 준 금융산업공익재단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열정과 도전에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

키 큰 나무숲을 지나니, 내 키가 커졌다*

한수정
아름다운커피 대표

일러두기 재단 홈페이지 게재일 : 2025년 6월 2일

* 제목은 박노해 에세이집 『사람만이 희망이다』에서 따옴.

아름다운커피는 공정무역을 실행하는 사회적기업이다. 공정무역을 알리고, 더 많은 사람이 이 일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보다 좋은 곳으로 바꾸어 나가려는 소중한 미션을 품고 있다.

이 미션의 실행을 위해 공정무역을 실행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이다. 커피 무역에 직접 참여하여 생산자와 공정한 거래관계를 맺는 것, 제품을 마케팅하고 유통시켜 보다 많은 윤리적 소비자를 만나는 것, 지역사회에 스며들 수 있도록 공정무역 축제와 캠페인을 조직하는 것 등… 하려고 찾아보면 해야 할 일이 무궁무진한 것이 공정무역이다.

아름다운커피는 이 중에서도 특별히 '청소년 교육 캠페인'에 특화된 강점을 갖고 있다. 초창기에 공정무역이란 개념을 알리면서, 커피 비즈니스도 해야 했기에 가급적 개념의 확산을 위한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공정무역을 통한 정의로운 세상을 가장 열심히 꿈꾸는 이들은 의외로 '청소년'들이었다. 학원 뺑뺑이를 돌며 입시에 고생해도, 청소년기 순수한 마음은 공정함과 정의를 알아보고, 빈곤 문제에 대해 의롭게 분노할 줄 알았다.

교육과 캠페인 사업이 성장할수록, 캠페인을 주관하는 아름다운커피도, 캠페인에 참여하는 청소년들도 점점 궁금한 점이 많아졌다.

"선생님, 좋은 물건을 사는 거랑, 나쁜 물건 안 사는 거랑
어떤 게 더 효과가 커요?"

"윤리적 소비라고 하는데, 그럼 윤리적인 과소비를 하면
세상이 좋아지나요?"

세상의 복잡함을 한 번에 설명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그 질문 속에서 매일 한 뼘씩 자라나고 있었다. 아름다운커피는 공정무역을 품으면서도 공정무역이 미처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이란 개념을 당겨 왔다. 이 렌즈를 통해 나와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변화되어 나가야 할지 보다 선명해지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렇게 '지속가능경제학교' 캠페인을 론칭하게 되었다.

그러나 론칭 첫해의 코로나, 미증유의 팬데믹으로 학생들과 어떻게 캠페인을 진행해야 하나 큰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코로나로 촉발된 온갖 일회용품은 '쓰레기 문제'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좋은 것을 사는 만큼, 물건을 사고 난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지도, 그리고 그 물건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 모든 과정을 살피는 것이 우리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청소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지속가능경제학교'는 퍼실리테이터 교사들과 청소년들이 팀을 이뤄 8주 동안 집중적인 학습과 문제해결을 훈련하는 장이다. 지속가능경제의 개념과 사례를 배우고, 우리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 활동을 스스로 구성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마지막 발표대회를 통해,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전국의 수백 명 청소년이 이룬 사람의 숲을 지날 때면, 아이들의 키가 한 뼘은 더 자랐다.

이 의로운 '뜻'에 다행히 '돈'도 뒤따랐다. 기존 금융이 '부자' 되는 일을 가르친다면, 금융산업공익재단의 기금은 부자를 넘어 웰빙으로, 지속가능함으로 가는 일에 다리를 놓아 주었다.

"다음 프로그램 언제 오픈하냐"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행복감이 몰려온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전보다는 한 뼘은 더 자라날 것을 확신한다.

04

일과 미래세대

토양을 다지고 노둣돌을 놓아둠으로써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다

재단과 함께 다져가는 이주배경청년들의 자립지원

석원정
노동인권회관 부소장

일러두기 재단 홈페이지 게재일 : 2025년 7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기준 한국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는 이주민은 265만여 명입니다. 그중 49.7%인 131만여 명이 20~30대의 젊은 청년들입니다. 굳이 전문가의 진단을 빌리지 않더라도 인구절벽을 맞이한 대한민국으로서는, 이들 청년이 한국에 건강하게 잘 정착하면서 우리의 미래에 긍정적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국가적 과제를 안았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들은 유학생,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사업가 등등 법에서 정한 분류에 따라 다종다양한 체류 조건과 형태를 갖습니다. 각각의 조건과 형태는 조금씩, 혹은 많이 다르기도 하지만, 아주 많은 이주민이 한국 정착을 희망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태어난 것과 진배없는, 장기간 체류한 이주 배경 청년들의 경우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들에게 한국은 모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일방적으로 자격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입증해야만 받아주는 아주 야멸찬 모국! 입니다.

오랜 시간 옆에서 지켜본 이주민들의 한국 정착의 여정은, 동요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엉금엉금 기어서 가자, 늪지대를 지나서 가면 악어 떼가 나온다'가 연상됩니다. 산 넘고 물 건너 고개 넘고 늪지대를 통과하는…끝없는 역량의 강화, 비자의 갱신과 연장, 그리고 조금 더 나아진 체류 조건

과 활동 여정…그 과정은 시간 말리고, 돈 말리고, 피 말리는 여정입니다. 귀화를 했다 해서 안심하지 못합니다. 자칫 일이 꼬이면 오랫동안 계획하고 감수해 왔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생사가 그렇듯이 손톱만큼의 조력만 있으면, 관용이 있으면, 관심이 있으면, 어긋나고 꼬인 생의 길이 바로 펴질 수도 있습니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이주배경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은, 기존의 이주민 지원사업들보다 낮은 진입 문턱(체류 기간 1~2년, 18세~39세로 최대한 넓힌 청년 연령), 폭넓은 이주민 포섭(장기체류 중이거나 통계상 장기 체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주민, 이주노동자, 이주배경주민 등 포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업적 특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인이라는 혈연으로 엮이지 않으면 공적, 사회적 자원의 배분에서 늘 배제된다는 것, '지원을 받으려면 아프거나 결핍된 이주민이어야 한다는 것', '이 땅에서 십여 년을 가족과 함께 삶을 일구었어도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 전에는 재난극복지원에서도 제외되는 존재로 대우받고 있다는 것', '이주민이기에 요구되는 특수한 무엇들은 그저 군말 없이 감수해야만 하는 것' 등등의, 단순히 소외감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외국적이나 외국 출신이기에 받는 서러움, 불편함, 억울함 같은 것들이 조금은 위로받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일 것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만난 이주배경청년들은 '우리들에게 관심 가져주는 한국인들이 있다'는 것에 기뻐하며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초중고교를 한국학교를 나왔지만, 학교에서 금융교육 같은 걸 배워본 적이 없다면서 너무 좋은 내용이었어요, 다른 것도 배우고 싶다며 눈을 반짝이던 W, 갓 대학에 진학하여 아르바이트도 하지만 금융교육을 통해 소비와 경제를 배우고 작아 보였던 아르바이트 수당이 모여 모여 무시할 수 없는 돈이 되는 것을 깨달았어요 라던 K, 토픽 고등급을 받아야 장학금도, 아르바이트도 신청할 수 있다며 고등급을 받을 때까지 토픽을 치느라 수십여만 원을 응시료로 쏟아부었는데, 지원받은 응시료로 다시 한번 도전할 거라던 유학생 F. 어떤 자격증, 어떤 취업 교육을 받아야 한국에서 취직하고 정착에 도움이 될지 가늠조차 못 하다가 컴퓨터 운용 능력은 최소한의 기본이라는 조언을 듣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했던 고교 졸업생 A.

이 사업 모두가 이주민 정착과 자립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또박또박 신청하면서 남편과의 사별 후 모자의 좀 더 나은 생계를 위해 한국어능력시험을 보아 토픽 6급(최고 등급)을 받고, 자격증 따고, 면접 보고, 적금도 들었던 S는 취업에도 성공하여, 남편 없이 막막했을 새로운 출발에 이 사업이 작은 발판을 제공해 주었던 것 같아서 진심으로 함께 기뻐했습니다.

홀어머니와 함께 어렵게 살아가면서 2년제 대학을 간신히 졸업하고 1년이 다 가도록 취직은 난망이어서 한때 우울증이 온 것이 아닌가 염려되기도 했던 S, S는 이 사업의 면접비를 받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10만 원씩 1년간 적금을 들었는데, 전기요금도 못 내고 쩔쩔매는 가정형편에 '정 어려우면 적금을 해약해도 된다'고 마음을 편히 갖도록 조언해 주었음에도 해약하지 않고 악착같이 계약기간을 마쳤습니다. S의 형편에 24만 원의 응원매칭금은 작지 않은 돈이었지만 S가 단지 돈만 바라고 버틴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S는 자신의 인생

에서 가냘픈 빛줄기를 하나라도 만들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의식주 무엇 하나 20대 초반의 아가씨로서는 만족스러울 수 없는 가정형편임에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싶었다는 간절함으로 보였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 배분 사업들은 모두 감동적인 사연들을 품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의 삶이 팍팍하다 보니 이주민 지원사업들 역시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런 많은 지원사업 중 이번 금융산업공익재단과 함께하는 이주배경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은, 향후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이 될 청년 이주민들에게 노둣돌을 놓아주고 나무를 키우는 토양을 보존하고 북돋운다는 측면에서 단연 눈에 뜨입니다. 당장 과실이 풍성하게 열리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나무를 키우는 땅속의 거름, 강한 햇볕에도 수분의 건조를 막아주는 덮개가 되어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관심과 지원을 쏟는 재단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조금 더 나아질 것입니다. 이 따뜻한 투자와 조력이 계속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여러 방향으로 확산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4

일과 미래세대

닫힌 문 앞에서 기다려주는 일

전상혁
(사)가치있는누림 센터장

일러두기 재단 홈페이지 게재일 : 2025년 8월 14일

요즘 우리는 흔히 'MZ세대', '요즘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을 이야기하곤 한다. 적극적이고 똑똑하며, 때론 이기적이라는 말들까지 따라붙는다. 그러나 그런 통념이 무색해지는 순간이 있다. 누군가의 20대와 30대는 학교도, 취업도, 연애도 없다. 햇빛을 본 지 몇 달, 몇 년이 지난 청년도 있다. 가끔은 가족과 말없이 마주한 채 방 안에 조용히 갇혀 지내는 청년. 그들은 소리 없이 사라지고, 아무도 모른 채 잊힌다.

우리 사회는 이들을 '고립·은둔청년'이라고 부른다.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 같은 단어로 불려 온 이 현상은 뉴스에서도, 정책에서도 상대적으로 관심 밖에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2024년, 이들을 직접 마주했고, 함께 걸어보았다. 사단법인 가치 있는누림은 금융산업공익재단과 협력하여 은둔고립청년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청년들을 만나기 전까진 '왜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 '왜 혼자 방 안에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세상과 단절된 그 모습은 쉽게 개인의 성격이나 의지 문제로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분명해졌다. 이건 그저 게으르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들의 고립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상처와 무너짐의 결과였다. 가정

에서의 방임과 폭력, 학교에서의 따돌림, 끊이지 않는 실패와 무력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불안과 외로움. 이런 것들이 누적되며 마음의 문을 하나씩 닫게 되었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물러나는 것이다.

이런 청년들을 발굴하고 연결하는 것이 사업의 출발점이었다. 처음부터 문을 두드릴 순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 곳곳의 일상적인 공간부터 찾기 시작했다.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주거지역 등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 있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조심스럽게 접근하였고, 누군가의 주변, 아주 평범한 골목 어귀에도 말없이 숨어 있는 청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한 사람, 한 공간씩 천천히 연결의 실마리를 만들어갔다.

단순한 상담이나 일회성 만남을 넘어서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 체험홈을 통해 집 밖에서 안전하게 머물며 새로운 일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고 생필품과 식료품 등 물품 지원을 꾸준히 이어갔다. 심리상담과 정서지원 프로그램도 병행하며 단지 생활을 돕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데 집중했다. 이런 지원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청년들과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변화를 목격할 수 있었다. 처음엔 눈조차 마주치지 못하던 청년이 서서히 자신만의 리듬을 회복해 갔고, 누군가는 짧은 외출로,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 꺼내는 용기로, 각자의 속도대로 다시 세상과 연결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그들의 '존재'를 존중하며 기다리는 것이 중요했다. 어떤 청년은 "그냥 누군가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고맙다"고 말했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동아줄을 잡는 심정이었다"고 표현했고 그 청년은 여러 지원을 통해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스스로도 "괜찮아졌다"고 말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내 깨달았다. '괜찮음'이 영원하진 않다는 걸. 사업이 끝난 뒤, 혹은 일상으로 복귀한 듯 보였던 청년이 다시 고립되었다는 소식을 듣곤 했다. 그 공백기, 즉 지원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생각보다 컸다. 마음은 회복 되어가지만, 여전히 주변엔 안전한 관계도, 머물 공간도, 나를 기다려주는 이웃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다음 걸음을 지역에서 시작해 보려 한다. 단기간의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년 곁에 오래도록 머무를 수 있는 연결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청년이 다시 고립되지 않도록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함께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의 힘을 믿는다.

다행히 이 작은 시도는 지역사회에 조용하지만 분명한 파장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관심이었지만 점차 "우리도 함께하고 싶다", "이런 청년이 우리 주변에도 있는 것 같다"는 목소리들이 이어졌다.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있던 가족, 학교, 주민들, 그리고 여러 기관들이 '고립·은둔청년'이라는 이름 너머, 한 사람의 삶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건 어쩌면, 우리가 청년을 단순히 '돕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이웃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 길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마음을 닫았던 한 사람이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순간을 함께 했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비록 단 한 명일지라도, 이 일은 충분히 의미 있었다. 고립은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책임지고 함께 풀어가야 할 사회의 몫이다. 그리고 그러한 연결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 이유다.

04

일과 미래세대

제도 바깥 나 홀로 노동자의 상호부조를 위한 마중물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

일러두기 재단 홈페이지 게재일 : 2025년 12월 10일

"하루에 2~3시간밖에 자지 못한 채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있어요. 경력을 쌓아야 하니까요. 일이 밀려 있어도 무조건 받습니다. 처음에는 단가가 낮으니까, 플랫폼에서도 마음껏 일을 몰아넣는 거예요."

프리랜서의 고충을 듣는 자리에서 경력 11년 차 출판 일러스트레이터가 털어놓은 이야기다. 플랫폼업체의 수수료율은 높아지지만 일자리 진입장벽은 낮아지며 보수 단가는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 업종을 가리지 않고 공통으로 나오는 하소연이다. 1,041명의 프리랜서가 응답한 우리 공제회의 2023년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이들의 1년간 프로젝트 평균 계약기간은 5.6개월에 불과했고, 불규칙한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며, 응답자의 21.3%는 보수 지연 또는 미지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ILO는 정규직·전일제·단일 고용주와의 지속적 고용관계라는 전통적 고용형태에서 벗어난 비표준 고용형태 노동이 2020년 전 세계 고용의 40%에 달한다고 추정하며 플랫폼노동과 프리랜서 확산을 중요한 변화로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90년대 후반부터 경제적 종속성과 전속성을 지닌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기 시작했으며,

2020년 전후로는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를 포괄하는 '노무제공자'의 사회적 보호를 노동사회정책의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법·제도의 개선 속도는 현실 변화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에는 당사자가 겪는 일의 전 과정 중 극히 일부만 보호되기 마련이다. 기업의 보호책임도, 국가의 제도적 안전망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일감·소득 불안정, 정보 비대칭, 협상력 열위, 비용·위험의 개인 부담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에 놓여 있다. 이들은 기존 제도에 기대기도, 국가만 바라보기도 어려운 처지다. 그렇기에 당사자 스스로의 자조적 안전망이 필요하지만, 서로 흩어져 일하는 특성상 외부에서 그 형성을 도울 필요가 있고, 그 역할은 노동단체와 시민사회가 우선적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를 새로운 유형의 단체로 구상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20년 하반기부터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노동공제조직 설립이 본격 검토되기 시작했다. 문제는 설립 재원과 초기 사업이었다. 이미 조직된 당사자 단체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각자의 공간에서 일하는 개인들이 '공제' 활동에 곧바로 참여하기는 쉽지 않아 보였다. 그래서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사업을 우선 제공해 공제회 사업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쌓아가는 경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노동조합들의 모금과 기부로 최소한의 기본재산과 운영 재원은 확보했지만, 초기 지원사업을 어떻게 시작할지는 난제였다. 그때 금융산업공익재단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시기와 내용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지원이었다.

소득이 불안정한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임금노동자에 비해 정기적 저축이 어려운 편이다. 그럼에도 각종 비용과 사고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면서도 사회보험 보호는 취약하고, 금융기관의 대출 서비스에서도 제약을 받는 만큼 '목돈 마련'의 필요성은 더 크다. 적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응원금을 3년간 지원하는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이러한 간극을 메우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사업에 참여한 공제회 회원들은 6개월마다 응원금을 받을 때마다 "보너스를 받는 기분"이라며 "저축하는 보람이 생긴다"고 말했고, 장비 구입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거나 교육을 수강하며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이렇게 빠르게 공제회의 대표 사업으로 자리 잡았고, 회원 확대에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물론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다. 고정된 일터가 없는 환경에서 적금 납입을 증빙하는 간단한 서류 제출도 어려워하는 회원이 예상보다 많았다. 통장 잔액 부족이나 바쁜 일정 때문에 납입일을 놓쳐 응원금 신청 시기를 넘기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혜택을 받지 못한 회원들의 항의로 실무자들이 곤혹스러울 때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경험이 축적되고 절차가 개선되면서 안내는 체계화되고 문의도 크게 줄어, 지금은 초기에 비해 훨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 공제회는 아직 재정적으로 취약하고 사업 운영에 어려움도 많지만,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회적 보호영역을 제시하며 '노동공제'라는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과 배려 없이는 불가능했음을 분명히 밝힌다. 자산형성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기존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서 배제되어 있던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안전환경 조성, 역량강화 교육,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등 공제회가 기반을 다지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힘을 보태주었다.

공제회는 앞으로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자체 공제사업을 설계해 상호부조를 구현해 나가려 한다. 명절선물이나 경조사 지원 등 직장 복지가 부재한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에게 작은 울타리가 될 수 있는 알찬 서비스들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민간재단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노무제공자 퇴직공제나 공적연금과 같은 제도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금융기관 이용이나 공적 서비스 접근을 어렵게 하는 소득·경력 증명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과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직은 공제회 자체의 힘만으로, 그리고 회원들의 기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많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불안정한 구조를 벗어나기 어렵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울타리와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분들의 지원이 여전히 중요하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를 향한 연대와 지원은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지속적인 상호부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나아가 제도·권리가 부재한 새로운 노동영역이 확장되는 현실에서,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공정한 규칙을 형성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돕는 일은 우리 경제와 고용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제회의 출발부터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금융산업 노·사에 깊이 경의를 표하며,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미숙함을 이해하고 인내로 함께해 주신 금융산업공익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04

일과 미래세대

비정규직 미디어 노동자들을 위한 너, 나, 우리 위튜브

권 지 현
방송작가유니온 영남지회장

일러두기 재단 홈페이지 게재일 : 2026년 3월 25일

우리가 뽑았으나, 우리는 너를 책임질 수 없다 : 방송작가유니온의 탄생

서류 전형과 필기 전형, 면접까지 치르고 들어간 방송국에서 출근 첫날 처음으로 들었던 말이다. 그들은 나더러 프리랜서라고 했다. 2000년 가을, 세기가 바뀌는 소용돌이 속에서 낯설게 들었던 말, 프리랜서. 하지만 IMF를 막 지나온 나에게, 더구나 수많은 경쟁률을 뚫고 겨우 합격이란 자격을 얻은 나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일단 시작하는 수밖에. 그리고 그때는 몰랐다. '프리랜서'라는 말이 '4대 보험'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자 차별이 당연함을, 사회가 책임지지 않음을, 일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용의 파편화와 양극화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방송가는 그 훨씬 전부터 고질적인 비정규직 문제를 양산해 왔다. 방송국이 비정규직 백화점임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다 아는 사실이 됐다. TV에 자주 등장하는 그 수많은 제작진 가운데 법적으로 보호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정규직은 열에 한 명이나 될까 말까 하다. 결국 방송은 2명의 정규직과 8명의 비정규직이 만들어 가고 있는 셈이다. 방송사들은 사회의 부조리와 약자를 대변하며 공정 보도에 대해 그토록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자신들의 부조리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그런 문제 인식이 임계점에 다다른 결과다. 같이 일하면서도 일하는 사람 취급을 받아오지 못한 전국의 방송작가들이 고용 형태의 부조리 속에서 차별과 소외를 견디다 제대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목소리 내고자 모였던 것이다. 2017년 출범 이후 방송작가유니온은 방송작가들의 처우 개선과 노동 권리 확보를 위해 활동해 오고 있다.

급변하는 미디어 산업 : 더욱 소외되는 미디어 비정규직 종사자들

최근 들어 미디어 산업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지상파 3사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방송계는 케이블과 종편이 생겨나면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경쟁이 치열해졌다. 그런 가운데 OTT의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면서 이제는 경쟁이 아닌 생존 그 자체가 관건이 됐다. 방송사의 제작 프로그램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다양성과 공정성이 사라진 자리에는 소위 '돈 되는' 콘텐츠들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은 것이 바로 미디어 비정규직 종사자들이었다.

쉽게 생겨났다 없어지고, 생겨났다가도 낮은 시청률로 인해 갑자기 없어지는 프로그램들 사이에서 미디어 비정규직들의 일자리 또한 프로그램과 같이 생겨났다 사라졌으며, 우후죽순 생겨나는 제작사들과 유튜브로 옮겨가고 있는 미디어 환경은 비정규 미디어 종사자들의 일자리의 질 자체를 낮추어 버렸다. 이렇듯 방송 미디어 비정규직 종사자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사회적 보장 시스템이 없다면 우리가 하자 : 너, 나, 우리 위튜브 프로젝트

방송작가유니온은 일찍이 이런 방송 환경의 변화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고용의 유연화라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여왔다. 그러나 늘 그렇듯 정책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 방송작가들의 노동 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방송작가유니온은 당장 방송작가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것이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으로 시작한 '너, 나, 우리 위튜브' 프로젝트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기존 방송 시스템에만 의존하던 작가들이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고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우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소득 창출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시청률과 자본에 휘둘리는 콘텐츠가 아닌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공익 영상을 제작함으로써 미디어가 갖는 사회적 의미와 가치도 지키고자 하였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진행한 '너, 나, 우리 위튜브' 프로젝트를 통해 60여 팀이 제작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약 3억 원이 넘는 제작비를 지원받았다.

더욱이 2회째를 거치면서는 각자 흩어져 일하던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하나의 커뮤니티 안에서 노하우를 공유하고 서로의 안전망이 되어주는 연대를 경험함으로써, 고립된 개인에서 당당한 콘텐츠 제작자로 거듭날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었다.

지난 2년간 '너, 나, 우리 위튜브' 프로젝트는 비정규 미디어 노동자들에게 '내일'을 꿈꿀 기회를 주는 등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지만, 더불어 우리 앞에 놓인 과제 또한 분명해졌다. 비정규직 미디어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자립은 단기적인 성과에 안주할 수 없는 긴 호흡의 여정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비정규직 미디어 종사자들이 다변화된 미디어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가 나서서 고민해야 할 때다.

방송작가유니온이 금융산업공익재단과 함께 '너, 나, 우리 위튜브' 프로젝트를 진행했듯, 이러한 고민 또한 금융권의 공익적 지원이 미디어 산업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정책적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

04

일과 미래세대

함께 만드는 자립의 힘, 한부모가정의 더 나은 내일

이봉원
대한사회복지회 회장

누군가에게 자립은 단순히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일이지만,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에게 자립은 생계와 양육,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매우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특히, 많은 한부모들은 취업을 희망하더라도 돌봄 공백과 경력 단절, 취업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취업 이후에도 저축이나 미래 준비까지 이어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단순한 생계 지원만으로는 한부모가정이 실질적인 자립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대한사회복지회는 2022년부터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으로 '한부모가정 취업촉진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해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정서적 자립을 동시에 지원하는 통합형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부모가 정기적금에 가입하면 납입액의 20%를 응원매칭하는 '자산형성지원'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취업촉진지원' ▲한부모와 자녀의 '심리상담지원' ▲정보제공 플랫폼 '엄마는 히어로' 앱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부터 ▲자녀교육비지원 ▲느린학습자 치료비 지원 ▲부모교육 프로그램까지 추가되어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

일러두기 재단 홈페이지 게재일 : 2026년 6월 2일

도록 사업을 넓혀 왔습니다.

사업의 성과를 실제 수치로도 평가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과를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자산형성 및 취업촉진 지원사업으로 2022~2025년까지 진행된 사업을 통해 2,790명이 지원을 받았고, 17억 6천만 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2023년 자산형성 및 취업촉진 지원은 목표였던 480명을 크게 넘어 828명이 실제 수혜를 받아 목표 대비 2배 가까운 분들을 지원했습니다.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스스로 저축을 이어가고 취업교육을 이수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형 지원'이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했고, 큰 성과와 의미가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두 번째, 정서적 자립지원입니다. 우울·불안·ADHD·가족 갈등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지원한 결과 2023년 사업에서는 총 70명이 상담을 지원받았으며, 변화 정도를 측정한 결과 가족관계 78%, 사회적 지지체계 인식이 69% 향상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2024년부터 심리상담지원을 확대해 개인상담 48명, 가족·집단상담에 62가구가 참여하였고, 자녀교육비 지원사업까지 확대해 52명 아동에게 지원한 결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지원 이전에 비해 77%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사업에서는 느린학습자 지원사업을 추가해, 학습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기초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도울 수 있어 의미가 큰 사업이었습니다. 한부모가정 아동의 학습격차 해소는 물론 향후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투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 큰 변화입니다. 2023년 구축한 '엄마는 히어로' 앱은 한부모가정에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육아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2023년 6,821명이 참여했으며 2024년 9,571명, 2025년 12,800명으로 누적 사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앱에는 다양한 복지정보와 지원사업 신청 기능, 전문가 상담 등 220개 정도의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고, 이벤트 운영을 통해 한부모가정에 꼭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소중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의미는 단순한 복지지원이 아니라 '자립'을 목표로 했다는 점입니다.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회복, 정보 접근성 개선, 사회적 지지체계를 하나로 연결하며 한부모가정이 스스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든든한 정서적 지원과 함께 꾸준하게 자산을 형성하고, 취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정부의 생계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개선된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어, 복지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자립은 단순히 '혼자 살아가는 힘'이 아니라, 다시 삶을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결국 자립은 한 가정의 변화로 이어지고, 한 가정의 변화는 다시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이 사업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애쓴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임직원과 대한사회복지회 담당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꾸준히 참여하여 아이 대학 진학에 쓰고 싶어서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통장에 입금합니다. 지금 비록 0에서 다시

시작하는 상황이지만 직장에서 일 잘한다는 인정을 받고 있고 이렇게 좋은 사업에 참여하면서 저축도 하고 내일의 희망을 잃지 않으면 저도 먼 훗날에는 환하게 웃을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자격증 취득과 면접비 지원 등 취업촉진 지원사업과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후기 / 〈2025년 한부모가정 취업촉진 및 자산형성지원사업 수기공모전〉 수상작 중에서 인용)

04

일과 미래세대

휠체어 이용자가 모은 경사로 데이터가 AI 시대의 경쟁력이 된다

홍윤희
(사)무의 이사장

일러두기 재단 홈페이지 게재일 : 2026년 8월 24일

모든 게 AI로 시작해서 AI로 끝나는 시대다. 하지만 AI는 지역사회에선 좀처럼 보기 어렵다. AX(AI 트랜스포메이션)라는 말이 서울이나 대도시에서는 활발히 오가지만, 지방에서는 그 이전 단계인 DX,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017년부터 무의가 '지하철 교통약자 환승지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깨달았다.

지하철 환승 시간을 카카오맵이나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아주 세세하게 나온다. 하지만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는 휠체어 이용자를 비롯한 교통약자를 위한 환승 정보는 어디에도 없었다. 휠체어를 타는 딸이 지하철에서 엘리베이터를 찾아 헤매야 했고, 그럴 때마다 참고할 정보조차 없다는 게 안타까워서 만들기 시작한 것이 이 지도다.

지도를 만들면서 알게 된 것이 있다. 장애와 관련된 정보는 일부러 모으지 않으면 절대 모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10년 전 공무원이었는지 공기업 직원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휠체어 이용자들 많지도 않은데, 이런 지도가 왜 필요한가요?"

10년이 지난 지금, 무의는 환승지도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현장에서 그 길을 안내표지로 알려주는 '모두의 지하철'이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데이터로 시작해 결국 현장을 바꾸게 된 것이다.

2026년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으로 무의가 진행 중인 '모두의 1층X로컬' 프로젝트도 같은 뜻에서 시작됐다. 경사로 지원사업도 경사로 정보도 찾기 어려운 서울 외 지역에서 장애 당사자가 동네 접근성의 기초 단위인 경사로 데이터를 직접 모으고 경사로를 놓을 수 있는 곳 데이터도 모아서 맞춤형 경사로 10개를 마중물로 놓는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경사로를 확대할 수 있는 지역 조례 제정 역량까지 키워주는 프로젝트다.

휠체어 이용인에게는 편의점 상품권을 선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다. 편의점 중 경사로가 설치된 곳이 4%도 안 되어서다. 편의점에 국한하지 않고 동네 가게들이 대부분 휠체어로 들어가기 어렵다. 그나마 접근 가능한 곳에 대한 정보는 좀처럼 찾기 어렵다. 어느 곳에 어떤 불편이 있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그것을 근거로 민원을 제기하고 조례 제정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잘 모으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인은 당사자다.

AI 시대에 소수자가 지워진다는 연구는 이미 차고 넘친다. 거대언어모델에는 소수자 관련 데이터가 드물다. 모으지 않았기 때문이다. AX라는 말이 판치는 세상에서도 소수자 관련 데이터는 여전히 흩어져 있거나, 모을 동력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모두의 1층X로컬'이 표방하는 정신은 소수자 시혜가 아니다. 정반대다. 장애 당사자가 스스로 이동과 접근성에 관한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의 주인이 되어 동네를 스스로 바꿀 수 있는 힘, 즉 데이터 주권을 갖게 하는 일이다. 데이터에 기반해 직접 맞춤 경사로도 놓아본 경험을 마중물 삼아 당사자들이 지자체에 경사로 지원 조례까지 요구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다. 시혜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는 한 번 쓰이고 사라지지만, 주권을 가진 당사자가 쌓은 데이터는 계속 자라날 수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스몰 AI(Small AI)'라는 개념을 내세운다. 막대한 연산력과 자원을 필요로 하는 초거대 언어모델, 이른바 '빅 AI'와 대비해, 저비용으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서도 작동하며 특정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특화된 실용적인 AI다.

소수자 데이터를 소수자가 중심이 되어 모을 때 현장을 바꿀 수 있다는 경험을 모두의 지하철 프로젝트를 통해 실감했기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사회분과에 합류해 "공익데이터"라는 개념을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러 모아야 하는 소수자 데이터는 AI 시대에 훨씬 더 중요해져서다.

마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월 말 AI 윤리 원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0년에도 원칙은 있었지만, 이번에 특별히 강조된 것이 '포용(포함, inclusion)'이다. 소수자가 데이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소수자 스스로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 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 '모두의 1층X로컬'의 기본 정신이기도 하다.

10년 전 교통약자 환승 데이터를 모으는 무의 활동은 서울역이나 시청역처럼 복잡한 역에서 이동 약자의 이동 시간을 40% 이상 줄여주는 '모두의 지하철'로 이어졌다. 이런 변화가 지역에서도 만들어지길 바란다.

세계 AI 시장은 이미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의 프런티어 모델들로 가득하다. 그 경쟁에서 한국이 같은 방식으로, 같은 크기로 맞설 이유는 없다. 당사자가 직접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의 주권을 갖게 하는, 스몰 AI에 가장 가까운 현장의 경험을 확대해야 한다. 소수자와 지역이 지

워지지 않는 데이터야말로 한국이 프론티어 AI 각축전 속에서도 가질 수 있는 선한 경쟁력이자 선한 영향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04

일과 미래세대

자립준비청년의 '진짜 자립'을 묻다

혼자 살아가는 법을 넘어, '시간'과 '관계'를 보장하는 사회로

조현식
(사)온기 대표

일러두기 재단 홈페이지 게재일 : 2026년 8월 26일

"5년이 끝난 뒤에도 나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온기우편함에 도착한 한 자립준비청년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한다. 자립준비청년이 된 지 3년. 앞으로 2년이면 지원도 끝난다.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혼자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더 큰 두려움이 생겼다.

"사실 제가 두려운 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혼자인 삶을 살아가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언젠가 자신도 가족을 만들 수 있을지, 좋은 배우자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자립준비청년을 바라보는 방식에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립준비청년에게 무엇을 얼마나 지원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왔다. 이제는 '어떤 삶을 자립이라 부를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1. 한국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늘었지만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한국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빠르게 확대됐다. 현재 보호종료 후 5년간 월 50만 원의 자립수당이 지급되고, 지자체별 자립정착금도 1,000만~2,000만 원 수준이다. 디딤씨앗통장, 주거·교육·취업·의료·심리 지원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의 자립지원전담기관도 운영되고 있다.

지표도 개선됐다. 2023년 자립지원 실태조사에는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9,670명 중 5,032명이 참여했다.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 5.6점,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을 생각한 경험은 46.5%,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은 18.3%였다. 자살을 생각한 주된 이유는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 30.7%, 경제적 문제 28.7%, 가정생활 문제 12.3%, 학업·취업 문제 7.3% 순이었다. 취업자 비율은 52.4%로 2020년보다 10.2% 포인트 상승했지만 20~29세 청년의 61.3%보다 낮았다. 공공임대주택 지원율도 2022~2024년 평균 12.0%에 그쳤다.

제도와 지표는 분명 개선됐다. 그러나 숫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삶의 어려움은 남아 있다. 왜 지원이 늘어도 청년들은 여전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가.

2. 숫자 뒤에 있던 마음들 – 온기우편함 편지 500통이 보여준 또 다른 자립의 욕구

온기우편함에 도착한 자립준비청년의 고민편지 500통에는 정책의 숫자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삶의 고민이 담겨 있었다. 편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욕구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순번	반복적으로 나타난 욕구	고민편지 내용
1	관계·소속	가족, 친구, 연인, 직장관계, 사람을 믿는 것, 버림받지 않을 관계
2	미래·진로·취업·의사결정	취업, 진로선택, 이직, 진학, 독립, 미래에 대한 불안
3	정서·정신건강·고립	공허함, 우울, 불안, 번아웃, 고립, 죄책감, 분노
4	가족·원가족·애도	부모에 대한 그리움, 가족의 상실, 원가족과의 관계, 미래의 가족
5	경제·주거·생활기반	취업과 소득, 주거, 부업, 의료비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6	자기효능감·비교·평범한 삶	뒤처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느린 속도에 대한 자책, 평범한 삶에 대한 욕구

눈에 띄는 것은 경제·주거보다 관계·소속·정서·미래에 관한 고민이 폭넓게 반복된다는 점이다. 경제적 안정은 여전히 자립의 조건이지만,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결핍이 존재한다.

가장 강한 것은 관계의 지속성에 대한 불안이었다. 한 청년은 "계속 버려질까 봐 두렵다"고 했다. 상담자가 먼저 자신을 떠날까 봐 두려워 스스로 상담을 끝냈고,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내가 널 떠나지 않을게"였다. 또 다른 청년은 지금 직장에서 행복하지만, 과거의 배신 경험 때문에 "이 행복이 언제 깨질지" 불안하다고 했다. 이들에게 관계의 문제는 사람을 사귀는 기술의 부족이 아니다. 관계가 언제든 끝날 수 있다는 경험 때문에 관계를 안전하게 믿기 어려운 것이다.

미래에 대한 고민도 같다. "남들은 뭔가 하고 있는데 나만 멈춰 있는 것 같다." "무엇을 결정할 때 남들보다 몇 배의 시간이 걸린다." "청년이 아닌 나이가 되었을 때 온전히 내 힘으로 살 수 있을까." 이들에게 필요한 진로 지원은 정보만이 아니다. 선택의 순간 함께 고민하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관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하나의 욕구가 있다. "나도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 좋아하는 일을 하고, 취업하고, 사람들과 지내고, 가족을 만들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다. 결국 이들이 원하는 것은 더 많은 물품이나 서비스만이 아니다. 조금 더 살아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 시

간 동안 곁을 지켜줄 사람이다. 자립준비청년이 요청하는 것은 결국 '시간의 유예'와 '인간적 연결'에 가깝다.

3. 해외에서는 자립을 어떻게 바라볼까 – '지원의 시간'과 '관계의 지속'

해외에서는 이 문제에 두 가지 방식으로 답하고 있다.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 그리고 보호가 끝나도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다.

일본 : 자립의 '시간'을 연장하다

일본은 202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사회적 보호를 경험한 청년에 대한 지원 연령과 범위를 확대했다. 자립생활원조사업을 통해 주거·생활지도·취업 등을 지원하고, 필요하면 기존 연령 기준을 넘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2024년부터는 사회적 양육 경험자의 고립·고독을 예방하기 위한 자립지원 거점도 운영하고 있다. 2024년 10월 기준 일본의 자립원조홈은 369개소, 정원 2,345명, 현원 1,465명이다. 일본의 핵심은 자립을 특정 연령에 완성되는 상태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 시간이 필요한 과정으로 본다는 데 있다.

영국 : 자립의 '관계'를 이어가다

영국의 'Staying Put'은 18세가 된 뒤에도 위탁부모와 합의하면 기존 가정에 21세까지 머물 수 있도록 한다. 2025년 기준 18세에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62%가 18세 생일 3개월 후에도 기존 위탁부모와 함께 살았고, 19~20세에서도 33%가 계속 거주했다.

영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2026년, 'Enduring Relationships'를 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서비스뿐 아니라 안정과 소속감을 주는 지속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Family Finding'을 통해 약 2,000명이 중요한 관계를 다시 찾았으며, 참여자들은 평균 2.2명의 의미 있는 관계를 추가로 발견했다.

세 나라의 차이는 분명하다. 한국은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를 확대하고, 일본은 '얼마나 오래 지원할 것인가'를 묻고, 영국은 '누가 계속 곁에 있을 것인가'를 묻는다.

4. '진짜 자립'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첫째, '5년'보다 청년의 자립 속도를 중심에 놓아야 한다.

"앞으로 2년이면 지원이 끝납니다. 그 이후에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립수당 5년은 행정적 기준일 뿐, 한 사람의 자립이 완성되는 시간은 아니다. 취업이나 주거가 안정되지 않았거나 관계가 끊긴 청년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일본의 사례처럼 청년의 실제 자립 정도에 따라 지원을 연장하거나 다음 단계로 연결하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

둘째, 서비스의 연결을 넘어 관계의 지속을 지원해야 한다. "내가 널 떠나지 않을게." 이 말은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서비스가 연결되는 것과 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다르다. 자립지원전담인력, 멘토, 시설 종사자, 위탁부모, 교사, 지역사회의 어른 등 한 사람의 삶을 기억하고 중요한 순간에 함께 고민하는 관계를 지원체계 안에 만들어야 한다. 영국의 Personal Adviser와 Family Finding은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

셋째, 자립을 '혼자 살아가는 상태'에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능력'으로 다시 정의해야 한다.

누구도 완전히 혼자 살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고, 고민을

나누고, 서로 돌보며 살아간다. 그렇다면 자립준비청년에게만 '혼자 살아가는 것'을 자립의 기준으로 요구할 수 있을까.

자립은 도움을 받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고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선택하며, 언젠가는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온기우편함의 한 청년은 말했다. "앞으로도 계속 혼자인 삶이 두렵다." 이 질문에 우리가 건넬 대답은 더 많은 지원제도의 목록만이어서는 안 된다.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사회는 혼자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사회를 넘어, 혼자가 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여야 한다.

05

지역과 세계

함께 사는 공동체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금융산업공익재단과 함께한 평등의료 이야기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

일러두기 재단 홈페이지 게재일 : 2025년 7월 4일

녹색병원은 2003년 9월 개원 이래 지역 사회의 취약계층 및 저소득 노동자,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차별 없는 평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공익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녹색병원은 설립 배경부터가 특별합니다. 원진레이온 직업병 환자들의 투쟁과 이에 따른 정부의 병원 설립 기금 지원, 노동·시민 사회단체의 노력으로 탄생한 녹색병원은 자연스럽게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관한 관심과 실천을 병원의 핵심 가치로 삼아왔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만나는 많은 이들이 어려운 노동자임을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플랫폼 배달노동자, 법인택시기사, 건설일용직 노동자, 식당 노동자, 비정규직 학교노동자, 요양보호사, 가사간병 노동자, 용역파견 일용직 등 고용 안정성과 건강권이 취약한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은 특히 질병으로 인해 노동 능력을 상실하는 순간, 단번에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쉬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실업 상태, 경기 변동에 민감한 영세자영업자, 고령자 대상 단기 공공일자리 참여자, 자활근로자, 평균 급여 27만 원의 어르신 일자리사업 참여자들 역시 사회적 취약 노동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술인·프리랜서들도 이에 해당됩니다.

더하여 우리나라 3D업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과 건강보험도 적용되

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료의 문턱은 이들에게 유난히 높습니다. 아파도 병원비가 걱정되어 치료를 미루고, 병이 악화하여 결국 노동 능력을 잃는 사례는 더 이상 통계 속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이야기입니다. 녹색병원은 이러한 이들을 위해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차별 없는 진료와 공익 의료지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으로 취약계층노동자 및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인 미등록 이주아동)들에게 평등 의료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으로 큰 위기를 넘긴 대표적인 사례가 몇 가지 떠오릅니다.

사례 1. 건강보험 상실도 모른 채 살아온 고령 일용직 노동자 A 씨

건설 현장 식당에서 일하던 A 씨는 건강보험이 상실된 상태로 상세 불명의 폐렴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과거 상악동암 수술 후 생계를 위해 항암 치료도 포기한 채 살아왔던 그는 면역력 저하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의료비 지원 덕분에 치료 후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었고, 그는 퇴원하며 "내 몸 하나 돌보지 못한 삶을 살았다"며 병원과 재단에 깊이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사례 2. 뇌경색으로 쓰러진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 B 씨

보호자 없이 혼자 살던 B 씨는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져 119를 통해 녹색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빠르게 재단의 의료비 지원사업에 연계되어, 집중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이 아니었다면 그는 걷는 것조차 어려운 와상환자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례 3. 미등록 몽골 이주노동자 C 씨의 급성 충수염 수술

건설 철거 현장에서 일하던 C 씨는 건강보험이 없어 복통에도 병원 방문을 망설이다가 급성 충수염 진단을 받고 녹색병원 응급실에 왔습니다. 다행히 재단 지원으로 수술과 입원을 마치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서툰 말로도 여러 번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사례 4. 팔 골절에도 병원비 걱정에 퇴원한 고령 가사관리사 D 어르신

넘어져 팔을 다친 후 병원비를 걱정해 바로 퇴원했던 D 어르신은 몇 날 며칠을 마음 졸이다 남편과 손자를 데리고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재단의 지원 덕분에 의료비 부담 없이 치료를 마칠 수 있었고, D 어르신은 울먹이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사례 5. 팔 골절을 참고 지낸 12세 미등록 이주아동 E 군

자전거 사고 후 3주간 통증을 참다 뒤늦게 병원을 찾은 미등록 이주아동 E 군은 '요골하단 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골절의 통증을 참고 지냈던 어린이의 모습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재단의 지원이 없었다면 치료가 늦어져 성장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 가야 할 이유보다 걱정이 더 앞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노동자, 이주노동자, 그리고 미등록 이주아동이 그들입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가며, 가장 먼저 건강을 잃고도 가장 늦게 치료받는 이웃들입니다.

이제는 공감에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정책의 변화, 제도의 확장, 그리고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건강은 선언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지켜져야 할 보편적 권리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라면, 그 '함께' 속에는 이들 모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녹색병원의 공익 의료 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금융산업공익재단의 든든한 지원과 신뢰 덕분입니다.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이웃들에게 손 내밀 수 있도록 함께해주신 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따뜻한 연대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05

지역과 세계

국제사회의 인도적 위기와 미국의 대외 원조 삭감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前 주UN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일러두기 재단 홈페이지 게재일 : 2025년 3월 6일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인구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해 3억 명을 넘어섰다. 역사상 가장 많은 무력 분쟁의 발생과 기후 위기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제는 모든 전쟁에서 군인보다 민간인 희생자가 더 많고, 기후 변화로 각종 재해가 급증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과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특히 아동들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더욱 취약하다. 얼마 전 휴전에 들어간 가자 전쟁으로 인한 4만 명 희생자 중 3분의 1이 아동이다. 전 세계 아동의 20%가 분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이들은 무력 사용으로 직접 희생되기도 하지만,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고 또한 교육 단절에 처할 수밖에 없다.

아동은 인류의 미래이므로, 이들의 희생과 고통은 사회 전체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1919년 세이브더칠드런을 창설한 에글렌타인 젭 여사는 '모든 전쟁은 아동에 대한 전쟁'이라고 말했는데, 백 년이 지난 시점에 그 말이 다시 한번 큰 의미를 갖게 된다.

1년 반 전에 방글라데시 콕스바자에 위치한 로힝야 난민촌을 방문했다. 그곳은 2017년 이웃 국가 미얀마 내의 로힝야 대학살 사건을 계기로 수십만 명이 들어와 현재에는 1백만 명 규모의 대규모 난민촌이 형성되어 있다. 그중 절반이 18세 이하의 아동이다. 난민촌 내에는 전기나 통신 시설

도 허용되지 않아,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전등, TV, 컴퓨터도 본 적이 없다. 교육도 난민들 중 교사 역할이 가능한 사람들이 제공하므로 초등 교육 이상은 받기가 어렵다. 필자가 Korea라는 국가를 아는지 물었을 때 아무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래도 아이들의 표정은 밝다.

콕스바자의 로힝야 난민촌은 세이브더칠드런 인도적 지원 사업의 중요한 현장 중 하나다. 1백만에 가까운 난민들은 유엔이나 국제 NGO 등의 지원으로 생존하고 있다. 연간 총 1조 원 규모의 지원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6,500억 원 정도가 제공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도 매년 약 150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 곳곳의 인도적 사업들이 금년 들어 큰 위기에 봉착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 원조(이하 ODA)를 대폭 삭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원조 공여국으로서 전 세계 ODA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아직 출범한 지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트럼프 행정부는 예산과 인력 감축의 첫 번째 분야로 국제개발협력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개발협력처(USAID)를 국무부로 통합하고, 최근 보도에 의하면 전체 대외 원조의 90%까지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 미국은 전 세계의 4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큰 타격이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 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의 국제적 기여 감축은 설상가상이라고 부를 만하다. 아동을 보호하고 구제하는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많은 국제기구와 시민단체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국의 공백을 유럽이나 아시아 공여국들이 메우려 노력하겠지만, 당분간은 사업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다. 인도적 지원 사업이 증대되어야 하는 시점에 반대로 축소되는 셈인 것이다.

그러나 물론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멈출 수 없다. 우리는 어떤 특정 국가의 부정적 정책으로 세계적 근린궁핍화(beggar thy neighbor)의 악순환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른 나라가 대외 원조를 줄이면 우리도 줄이겠다는 식의 대응은 결국 모두에게 손해가 될 뿐이다.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인류 모두가 공동의 운명체라는 인식이 강화되어야 한다. 세계 모든 곳의 아이들이 위기 속에서도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05

지역과 세계

‘보통의 삶’을 선물하는 공덕(孔德)의 작은 공방

정석왕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통의 삶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쉽게 답변하지 못한다. 이유는 하루를, 한 달을, 그리고 일 년을 ‘보통의 삶’으로 끊임없이 살고 있어, 너무 익숙한 나머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장애인에게 ‘보통의 삶’은 어떤 의미일까? 어떤 장애인에게는 익숙할 수도 있지만, ‘보통의 삶’을 살고 싶은 장애인도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장애인거주시설이라는 또 다른 나만의 집에 사는 장애인에게 ‘보통의 삶’을 선물하는 공덕의 작은 공방이 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장애인거주시설의 발전을 통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며 건전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장애인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개발 및 보급하여 장애인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권익 강화와 자립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및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인복지정책 개발 및 제언, 자원개발 및 인식 개선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곳이다.

특히, 2021년부터 금융산업공익재단과 함께 장애인들에게 ‘보통의 삶’을 선물하는 사업들을 진행하였는데,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해 주는 미니멀 특장차 지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문화예술활동 지원,

일러두기 재단 홈페이지 게재일 : 2025년 2월 17일 / 現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장애물이 없고 일반 가정집과 다름이 없는 주거 공간으로 개선하는 생활환경개선 지원으로 총 3가지 '보통의 삶'을 선물해 주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장애인거주시설의 서비스 지원 방식이 시설 외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취미 및 여가 활동, 사회생활, 이웃 관계, 병원 진료, 등·하교와 같은 '보통의 삶'으로 지원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지역사회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다. 이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금융산업공익재단과 함께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하고 이동할 수 있는 미니멀 특장차 43대를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43곳에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지역사회 생활과 이동 편의를 위해 힘썼다.

2020년부터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감염병 확산은 모든 사람에게 힘든 시기였다.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인들은 더욱 힘든 시기였다. 외부 활동 금지, 시설 방문자 제한, 마스크 착용과 같은 조치는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측면에서 성과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시설 장애인에게는 외부와의 단절로 인한 우울감 및 고독감을 가속화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시기에 우리는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으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미술, 음악, 스포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51곳에 3억 6천만 원을 지원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작품을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설립연도가 20년 이상인 곳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지원이 있지만, 정부의 기능보강사업은 시설 노후화를 보완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었다. 그렇기에 금융산업공익재단과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시설의 단순 환경 리모델링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장애인의 개별적 사생활이 보호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반 가정집과 유사한 유닛 단위의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기획했다. 약 3년 동안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7곳에 7억 원 규모의 생활환경 개선을 진행하여 장애인들에게는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에 따른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 향상을 도모하였다. 무엇보다, 장애분야 전문 컨설팅을 통해 리모델링된 공간 내에서 장애인들의 평생 돌봄 서비스 지속 가능성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이 있었기에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특히, 꼭 필요한 보통의 삶을 거주 장애인에게 선물할 수 있었다.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신하여 금융산업공익재단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

05

지역과 세계

밥상에서 시작된 변화

지역과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학교급식의 힘

이현지
유엔세계식량계획(WFP) 한국사무소장

일러두기 재단 홈페이지 게재일 : 2025년 4월 23일

학교에 따뜻한 음식이 도착하는 시간, 갓 지은 밥 냄새와 함께 신선한 채소가 들어간 커리통이 교실 한편에 놓인다. Maheshika 씨는 자신이 직접 기른 농산물로 오늘도 스리랑카의 아이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한다. 이 식사는 아이들에게는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Maheshika 가족에게는 경제적 자립의 시작점이 된다.

이는 단 한 가정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는다. 세계 여러 국가에서 운영 중인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의 Home-grown School Feeding(HGSF, 지역 농산물 연계 학교급식) 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활용해 학교 급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순환시키는 구조적 모델이다. WFP의 HGSF 관련 이니셔티브는 지난 10여 년간 빠르게 확대되어, 2023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59건에 달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이러한 모델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표 사례 중 하나다.

3년 전, 코로나19, 기후 변화, 그리고 경제 위기가 맞물리며 스리랑카는 독립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었다. 식량과 연료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체 가구의 약 90%가 식사를 줄이거나 끼니를 거르는 상황에 놓였고, 특히 여성과 아이들의 영양 상태는 더욱 취약해졌다. 이후 스리랑카는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중이지만, 여전히 4명 중 1명꼴로 빈곤선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HGSF는 단순히 아이들에게 끼니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농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아동의 영양을 보장하며,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의 기틀을 마련하는 모범적인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HGSF는 지역의 소규모 농가로부터 채소와 달걀 등을 적정한 가격에 조달해 학교에 공급하며, 남은 생산물은 지역 내 유통을 통해 농가가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농업 인프라와 장비, 기술 교육 등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식량 지원을 넘어, 지역의 생산 기반을 확장하고 시장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구조적 접근이다.

"지역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며 급식 조리사들이 하나둘 일을 그만뒀어요. 제 아들을 포함한 아이들이 끼니를 거르게 되는 건 막고 싶었죠."

Maheshika는 그렇게 급식 조리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 처음에는 아들의 반 아이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했지만, 지금은 매일 60명 아이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다. 그녀가 직접 재배한 채소는 매일 아침 아이들의 식판 위에 오른다.

2022년, 경제 위기와 가뭄은 Maheshika 가족의 생계를 위협했다. 작물은 메마른 땅에서 자라지 못했고, 남편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로 떠나야 했다. 남겨진 Maheshika는 두 아들을 돌보며 하루하루 버텨야 했다.

그러나 WFP의 Home-grown School Feeding 프로그램은 그녀에게 새로운 생계와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열어주었다. 농업 장비, 급수 시스템, 종자, 재배 기술 교육을 지원받은 후, 이제는 계절과 기후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고, 매일 직접 수확한 신선한 식재료로 아이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잉여 작물은 지역 내 다른 조리사에게 판매하며 가족의 생활비와 두 아들의 교육비를 마련할 수 있는 소득도 생겼다. Maheshika의 하루는 여전히 바쁘지만, 그 속에는 최소한의 생존을 넘어 자립과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처럼 HGSF 사업은 여성 영농인이 단순한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경제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WFP는 참여 여성들을 대상으로 가계 자금 관리 및 비즈니스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잉여 생산물의 유통 전략 등 실질적인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다양한 교육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2023년,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으로 시작된 스리랑카의 HGSF 사업은 현재까지 2개 지구의 22개 구역 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0,000명 이상의 아동에게 신선한 학교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600명 이상의 영농인 및 급식 조리사를 양성해 왔다. 이 사업은 단발성 지원이 아닌, 스리랑카 정부의 국가급식 제도에 통합되어 장기적으로는 정부 주도의 정책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국가 주도 사업으로의 구조적 전환이 가능하려면 민관 파트너들의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WFP는 단기적인 식량 지원을 넘어서, 국가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도주의적 접근이라 믿는다. 스리랑카의 HGSF는 바로 그 철학이 현장에서 실현되고 있는 사례이며, 그 출발점에는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이 있었다. 재단의 기여는 여성과 아동의 회복력을 증진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경제 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 저희 가족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1년 내내 경작할 수 있게 되었어

요. 수확한 작물 중 일부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얻는 추가 수입은 두 아들을 교육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WFP는 오늘도 현장에서 매일 아침을 준비하는 Maheshika와 같은 분들을 응원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이 더 많은 아이들의 내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산업공익재단과 같은 든든한 파트너와 함께 걸어가고자 한다.

한 끼의 밥상이 아이들의 미래, 여성의 자립, 지역사회의 회복을 이끌어가는 이 여정에 더 많은 연대와 관심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05

지역과 세계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

현진영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 대표

일러두기 재단 홈페이지 게재일 : 2025년 6월 16일

[사회적경제 생태계, 지속 가능한 미래의 해답]

베트남 하노이 북쪽, 깊은 산골에는 오랜 세월 궁핍하게 살고 있는 소수민족들이 있습니다.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GIF)가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첫발을 내디딘 지 어느덧 4년. 마을은 눈에 띄게 변화했습니다. 허름한 나무집은 튼튼한 벽돌집으로 바뀌고, 양돈장을 비롯한 기반 시설이 하나둘 세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2024년, 인근 마을에 태풍 피해가 닥쳤을 때 이들은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모아 돕고, 아이들을 위한 학용품도 나누었습니다. 외부 지원이 아닌, 스스로 마련한 자원이었습니다. 바로 경제적 자립이 있었기에 가능한 변화였습니다.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는 세계 26개국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며 이러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 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고, 가구 단위의 생산·판매를 넘어서기 위해 협동조합을 결성합니다. 자금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소액금융을 통해 초기 투자를 지원하며, 사업 규모가 커지면 사회적기업을 통해 판로를 연계합니다.

베트남의 친환경 양돈 사업도 같은 구조로 진행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직접 양돈 사업을 기획하고,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는 친환경 양돈법 교

육과 소액금융 지원을 통해 양돈장과 도축장 건립, 사료 구입 등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유통은 사회적기업이 맡아 하노이 등 대도시에서 판매가 이뤄졌습니다.

이처럼 협동조합, 소액금융, 사회적기업이 삼각 축이 되어 서로를 지지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자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활쓰레기에서 기회까지 : 인도네시아 메단 지역의 지속 가능한 전환]

이러한 경험은 인도네시아 메단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23년 기준 연간 약 6.99만 톤의 폐기물을 배출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 배출국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와 플라스틱 폐기물 비중이 높고, 상당량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아 심각한 환경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북수마트라주 메단은 그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지역입니다. 인구 밀집 빈곤 가구가 집중된 이 지역은 해안과 접해 있어 매달 조수 간만에 따라 대량의 해양 쓰레기가 유입되고, 주민들은 수년간 쌓인 폐기물로 인해 피부질환, 호흡기 질환 등 다양한 건강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는 메단 지역에서 단순한 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을 넘어, 지역 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포괄적 사업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두 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지역 주민들이 수거한 폐플라스틱을 직접 매입하며, 발생한 수익은 개별 조합원과 조합 운영 자금으로 재투자됩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지역 보건소, 학교, 지방정부 공무원과 협력해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편, 'PT GNI'는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가 현지에 설립한 사회적기업으로, 현지인으로 구성되어 현지 환경 맞춤형 사업운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대부분의 폐기물이 직매립 방식으로 처리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PT GNI는 한국의 사회적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유기성 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수거하고, 이를 활용한 동애등에(Black Soldier Fly) 사육 및 처리 기술을 도입해 자원 순환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동애등에는 현지 시장에서 상품화되어 유통되고 있으며, 향후 해외 수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은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폐기물 선별, 재활용, 부가가치 창출 등 사업 단계별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속 가능한 사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가 다양한 국가에서 쌓은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니즈 기반 설계되었으며,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는 사회적경제 기반 사업을 통해 메단 지역의 환경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정부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쓰레기 매립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동시에 주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역량 강화를 돕고 있습니다. 주민조합 중심의 맞춤형 사회경제사업

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주민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하며, 쓰레기 판매와 음식물 폐기물을 활용한 곤충 및 양계 사육업 등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합니다.

본 기관은 이와 같은 통합적 접근을 통해 환경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며, 메단 지역은 물론 전 세계 취약계층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자립을 선도하는 글로벌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가 보여준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의 자립을 위한 희망의 씨앗입니다. 우리 모두가 전략적 협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변화를 창출해야 할 시점입니다.

05

지역과 세계

‘부정에서 긍정으로, 수동에서 능동으로’ 그 가능한 변화들

강정희
신안군복지재단 이사장

일러두기 재단 홈페이지 게재일 : 2025년 9월 23일

「1004섬 신안」, 국토 서남단에 위치한 대표적인 인구 소멸 지역에서 햇빛과 바람으로 인구 증가의 기적을 이루고 있는 우리 지역 전라남도 신안군의 이름이다.

서울 면적의 22배에 달하는 넓은 지역 모두가 총 1,025개의 섬으로만 이루어진 신안군은 약 4만 명의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40%에 육박할 정도로 전국 최상위권의 초고령사회이다.

신안군의 주민들은 도서지역의 정주 여건상 미용실, 안경점, 사진관, 각종 상점 등 서비스 이용에 큰 제약이 있음은 물론이고, 간단한 병의원 방문 및 진료를 위해서도 인근 지역인 목포시나 무안군에 방문하기 위해 선박과 차량 등을 여러 차례 이용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에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안군은 2008년에 설립한 신안군복지재단을 통해 낙도 지원서비스와 의료비, 생계비, 주거환경개선서비스를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노인과 아동, 장애인과 저소득계층 등 대상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쓰고 있다.

더불어,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공립요양병원을 복지재단 직영 체제로 전환하며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자체의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안군 주

민의 외래진료 다빈도 질환 1위가 치아 및 지지구조 기타 장애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노인들의 거동 불편 및 이동의 어려움으로 공공영역인 보건지소의 치과 진료 이용률이 5% 미만에 그치는 등 공공영역 의료서비스의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공공영역의 한계를 대체하고 있는 치과 병의원은 신안군 14개 읍면 중 3개 읍면에만 위치하고 있어 11개 면은 치과 병의원의 부재로 인해 인근 지역에서 진료해야 하나 이동 및 거동 불편 문제로 9천여 명 이상의 노인 인구는 치과 진료를 거의 받지 못해 치아 저작기능 불편 가중에 의한 영양결핍으로 신안군의 연령표준화 사망률(384.5)은 전국(298.3), 전남(322.4)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이에 신안군에서는 노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체계적인 치아 건강 관리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공공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을 통해 민간영역에서의 새롭고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으로 신안군에서 운영되는 「도서낙도 의료취약지 치과이동차량 운영지원 사업」은 치과 병의원이 없는 신안군 도서낙도 지역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구강보건실이 없는 지역의 학생들,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을 중점 대상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구강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2024년 6월부터 1년여간의 차량 구입 및 개조사업을 통해 제작된 '지역맞춤형 이동치과차량'은 신안군 지역 내 치과 병의원이 없는 11개 면, 구강보건실이 없는 유치원, 초중고교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이동치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사업은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으로 신안군복지재단과 신안군보건소가 운영하는 민관협력사업으로 각 주체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 중이다.

서비스는 공중보건의를 비롯한 전문 의료진의 활동을 통해 스케일링, 충치 치료, 단순 발치, 구강 교육 및 검진 등을 중심으로 제공된다. 필수적이나 이용이 어려웠던 의료서비스를 통해 혼자만의 아픔을 견뎌야 했던 이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군민의 만족도를 최고조로 이끌어내고 있다.

정주 여건상 이동에 불편함이 큰 군민들은 마을 깊은 곳까지 찾아가는 이동치과차량과 진료서비스를 통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용이 가능했던 의료서비스를 혼자 힘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서비스가 반복될수록 이용자의 긍정적인 후기와 이웃들에 대한 적극적인 권유가 늘어나고 있으며, 신안군복지재단에서 시행 중인 낙도이미용사업, 복지시설 및 낙도 순회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과 연계하여 더 많은 대상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고 있다.

민간영역 지원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지역의 사회취약계층에게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금융산업공익재단의 다양한 사업은 더 많은 대상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05

지역과 세계

제주 수눌음 공동체를 회복하는 여정

강호진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대표

일러두기 재단 홈페이지 게재일 : 2025년 11월 7일

제주는 수눌음 공동체의 가치를 지닌 곳이다. 단순 협업생산을 넘어 마을 단위에서 서로를 돌보는 돌봄의 가치를 갖고 있다. 2000년도부터 제주는 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변화로 기존 수눌음 공동체가 옅어졌다. 공동체의 약화는 취약계층과 돌봄 사각지대 문제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적 돌봄 서비스는 단순 지원 방식으로 한계가 명확했다.

우리는 금융산업공익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다. 바로 '지역 돌봄 공동체 인큐베이팅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단순히 서비스의 양을 늘리는 것을 넘어, 돌봄의 주체를 지역 주민으로 바꾸고, 서로가 함께 돌볼 수 있는 공동체로서 도약하는 전환점을 만드는 것이다.

1년의 실험이 끝난 후 가장 큰 변화는 돌봄의 틈새가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기존의 제도적 돌봄이 포괄하지 못했던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 이주 배경 청년들의 정서 돌봄, 그리고 고립된 마을 어르신들의 식생활 및 커뮤니티 지원 등 공동체들은 지역 주민의 필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 틈새 속에서 돌봄의 방식을 고민하던 제주의 공동체가 다시금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사회적농장을 운영하는 '푸른팜사회적협동조합'은 발달장애인의 사회화

를 공동체로 실현했다. 장애로 인해 취업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던 분들에게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들이 직접 사회적농장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이다.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과 보호자와의 참여는 사회에 두려움을 갖던 분들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었다. 그들은 또다시 함께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사회진입을 위한 농장을 만들어 가는 중이다.

'남성마을'은 마을의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의 취약계층에게 얼굴을 내밀었다. 돌봄이 필요한 청소, 세탁 등의 서비스를 연결하면서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그들은 마을 주민에서 이웃으로 전환되었고, 이제는 함께 공동체로서 마을의 활력을 주도하고 있다. 그 외에도 발달장애 가족 공동체, 식생활권 돌봄, 독서돌봄 등 각자의 방식으로 돌봄과 공동체의 가치를 만들었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돌봄 공동체들이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큐베이팅 과정에서 참여팀들의 소셜미션을 토대로 지속 가능한 방안을 함께 체계화했다. 자금을 지원받는 데서 멈추지 않고, 전문적인 멘토링과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사업화 기반을 다졌다. 또한 지속가능성을 위한 팀들의 고민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들과의 연대를 확장했다.

그 결과, 공동체들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지역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어가고 있다. 돌봄의 수혜자가 지역의 이웃이고, 서비스 생산자가 친구이자 가족이며, 심지어 공동체의 투자자가 수혜자이자 생산자가 되는 선순환 구조가 제주 땅에 뿌리내리고 있다. 이로써 우리는 '돌봄은 비용'이라는 인식을 넘어, '돌봄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공동체 돌봄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매진할 것이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전략적 지원 덕분에, 이 혁신적인 모델은 이제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을 가진 모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새 정부에서도 돌봄은 중요한 전략적 과제에 포함되었고, 지역에서도 공동체 돌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 공동체들이 더욱 튼튼하게 자립하고, 지역의 다양한 유관기관과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 올해도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새로운 돌봄의 가치를 진행한다. 8팀이 각자의 미션과 방식으로 제주의 수눌음 공동체 회복을 위해 1년간의 여정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아직은 미흡하지만, 제주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년 이즈음에 제주의 따뜻한 소식을 전국에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에서 피어난 자생적인 돌봄의 꽃이 우리 사회 전체를 포용하고 치유하는 숲을 이루도록, 우리는 사회 혁신의 최전선에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

현장에서 만난 ‘순환경제’

인도네시아 생활쓰레기 처리와 주민 소득 증대 모델

김지연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 매니저

일러두기 재단 홈페이지 게재일 : 2025년 12월 22일

인도네시아는 도시 인구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빠른 도시 확장과 생활환경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한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 폐기물 처리 인프라의 확충 속도는 도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수거·분류·재활용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탓에, 많은 지역에서는 폐기물이 곧바로 매립지나 인근 야외 공간으로 이동한다. 쓰레기가 저장 공간이 아니라 생활환경에 직접적으로 쌓이는 구조다.

특히 메단은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이러한 문제의 단면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도시다. 급격한 인구 증가, 비정형적 주거지 확산, 상업지 확장으로 인해 폐기물은 매일 발생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거나 거래하는 시장은 매우 제한적이다. 쓰레기가 ‘자원’이 되기 전에 이미 환경 부담으로 전환되고 마는 것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는 금융산업공익재단과 함께 지역 내 폐기물을 두 갈래, 즉 유기성 폐기물(Organic Waste)과 비유기성 폐기물(Inorganic Waste)로 나누어 지역사회(Belawan 및 Marelan 지역)를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단순히 환경 개선 차원을 넘어, 주민들이 폐기물을 통해 실질적인 부가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방향이다. 폐기물을 ‘버려야 하는 잔여물’이 아니라 저축 가능한 자원이나 수

입을 창출할 수 있는 가치재로 정의하고 있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이 일정한 관리 체계와 시장 연결 구조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곧 경제적 단위로 변환된다. 이러한 자원순환 모델을 통해 지역 주민들은 환경 개선과 동시에 생활 안정과 추가 소득이라는 두 가지 결과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는 메단 지역 내 Waste Bank 2개 조합과 PT GNI라는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Waste Bank 조합은 말 그대로 '쓰레기를 은행처럼 모으는 구조'이며 PT GNI는 유기쓰레기를 먹이원으로 하는 동애등에를 생산하여 제품화 후 판매, 수익을 창출한다.

■ Waste Bank '버리는 것이 가치가 되다'

Waste Bank는 플라스틱병 한 개가 화폐가 되고, 집 앞에 쌓인 폐기물 한 묶음이 적금이 된다.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폐기물을 조합에 가져오면 조합의 이사회 멤버들은 이를 재질별로 분류하고, 단가를 매기고, Bank book에 판매량을 기록한다. 조합원은 일정 금액이 쌓이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자녀들의 학비에 활용한다. 이번 모니터링 출장 당시 현장에서 만난 조합 구성원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냥 버리면 없어지는 건데, 여기서는 남는 게 있어요"
"누구나 쉬운 방법으로 소득을 남길 수 있어서 유의미해요"

조합은 기업과 달리 명확한 소유주가 없다. 운영의 주체는 지역 주민이며, 운영의 지속성은 구성원들의 참여와 책임감에 의해 결정된다. 이 때문에 참여율이 떨어지거나 역할 분담이 흐트러지는 시기에는 운영 안정성이 흔들리기도 한다. 출장 전 내가 가졌던 고민도 바로 이 지점이었다.

'조합이라는 구조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
'우리가 제공하는 지원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한 모습은 예상과 달랐다. 조합원들은 단순히 폐기물을 들고 오는 참여자가 아니라, 사업의 유지와 확장을 함께 고민하는 주체였다. 한 사람이 모든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 운영을 지키고 있었다. 특히 "조합원을 어떻게 더 늘릴지"에 대한 논의는 조합 자체가 이미 발전 방향을 스스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물론 여전히 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분명 존재한다. 시장 단가의 변동성, 조합 운영 인력의 역량 격차, 재활용 단가 하락 추세 등이 있다. 이러한 변수들은 조합 운영을 흔들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개선을 도울 수 있는 영역이다. 앞으로 우리는 조합이 확보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파트너를 발굴하고, 단가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거래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운영팀이 회계, 데이터 기록, 고객 응대 등 핵심 기능을 스스로 수행하도록 역량 강화도 지원할 것이다.

사업의 지속 가능성은 외부 지원보다 지역 구성원이 가진 역량이 얼마나 체계화되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출장에서 확인한 것은 그 기반이 이미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조합이 지역 내 건강한 경제 주체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우리는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다.

■ PT GNI, '자원순환을 기술과 시장으로 연결하다'

조합형 모델이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움직인다면, PT GNI는 명확한 성과 기준과 시장 논리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형 구조다. 이번 출장에서는 이러한 기업 구조가 가진 추진력과 속도, 그리고 존재하는 과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다.

PT GNI는 지역에서 수거된 유기쓰레기를 동애등에(Black Soldier Fly)로 사육하고 제품화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자체 운영에 그치지 않고, 한국 기업 농업회사법인 ㈜엔토모(Entomo)로부터 사육 기술, 운영 노하우, 생산 공정에 대한 기술이전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폐기물의 단순 처리 단계를 넘어 지역 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프로그램을 처음 기획할 때 직원들 사이에서는 부담과 우려가 존재했다. 그러나 시범 참여자들의 긍정적 반응이 이어지면서 내부의 동기부여도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현지 교육을 받은 주민들은 지금은 직접 생산체계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사업이 지역 주민의 소득 기회를 확대한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기업형 모델의 강점은 속도와 실행력이다. 실제로 PT GNI는 사업 개발, 파트너 발굴, 생산 전환 등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속도만큼 중요한 것은 내실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일이다. 생산 확대에 따른 운영 기준의 표준화, 참여 농가와의 계약 구조 설계, 품질 관리 체계 확립 등은 향후 단계에서 반드시 구축해야 할 기반 요소다.

PT GNI가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은 단순히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지역 자원화 산업이 독립적 경제 구조로 자리 잡는 과정이다.

성장을 서두르기보다 방향성을 정교하게 잡고 기반을 탄탄히 다질 때, 동애등에 기반 순환모델은 메단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구조를 명료하게 설계하고, 참여자들의 역량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금융산업공익재단과 협업하여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필리핀 파야타스 소나타

최정식
UNI-KLC(국제사무금융서비스노조 한국협의회) 사무총장

내가 필리핀 마닐라를 처음 방문한 시기는 1989년 아멕스카드사에 근무할 때다. 당시 각 국가별로 마케팅 성공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닐라에서 열린 아태지역 마케팅 콘퍼런스에 참가했다. 마침, 대학 선배의 부군께서 주 마닐라 한국대사관에 근무하고 있어서 잠시 관저를 방문해 필리핀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부정부패와 경제 사회적 불안 속에서도 국민의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고 했다. 당시는 오랜 기간의 독재와 부패로 인해 마르코스 대통령이 추방되었고 부인 이멜다 여사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보여주는 말라카낭 궁 방문이 관광 코스 중 하나였다.

그 후 FIET(UNI의 전신)가 금융분과회의와 지역총회를 마닐라에서 몇 차례 개최하여 방문할 때마다 마닐라시의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상을 잠깐 엿볼 수 있었다. 매번 마닐라 출장을 다녀온 후에는 굶주림으로 지쳐 거리를 떠돌고 있는 어린아이들과 어린아이를 안고 꽃다발을 파는 여성들의 모습이 떠올라 밤잠을 설치곤 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출장 때마다 거리의 자동차는 해마다 늘어나 여기저기 경적 소리가 경쟁하듯 터져 나오고 있었고, 여전히 가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했다.

일러두기 재단 홈페이지 게재일 : 2026년 1월 7일

우리나라는 1950년 6·25 전쟁 후 잿더미에서 가난을 극복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있다. 항상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자식 교육에 열정을 쏟아부은 우리 부모님 세대와 우리의 성장 경험을 이들과 나누면서 실오라기 한 줌만큼이라도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귀국하고는 했다.

그러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노사 간 대타협으로 금융산업공익재단(이하 재단)이 설립되었다. 전 세계 여러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 관련 공익재단이 있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기금을 형성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이후 2023년 처음으로 재단의 글로벌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국가는 당연히 필리핀이었다. 그동안 FIET-UNI 노조활동 속에서 리더십을 바탕으로 노사정 대화를 주도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자선사업 등을 활발하게 전개해 오고 있는 필리핀 금융노조에 연락해서 '빈민지역 주민을 위한 직업훈련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필리핀 금융노조는 2004년부터 노조의 사회공헌사업으로 Teaching Mind, Touching Hearts, Transforming Lives란 가치를 설정하고 20여 년간 빈민 지역에 음식 나누기, 재활프로그램, 학교 보내기, 장학금 사업 등을 전개해 왔다. 어린이들이 쓰레기를 줍는 일에 내몰려 학교도 가지 못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쌀, 학용품, 의약품 등을 지역에 배포하였다. 파야타스 지역은 메트로 마닐라 구역 안 퀘손시티 내 동북쪽 끝에 위치한 시내 중심부에서 약 15km 떨어진 필리핀 내 대표적인 빈곤 지역이다. 인구는 약 14만 명으로 대부분 일정한 직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근처에 산더미같이 쌓아놓은 쓰레기 하치장에 가서 물건을 주워서 다시 팔거나 재활용하는 것이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다고 한다. 일본 정보통신 노조는 2014년부터 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필리핀 금융노조는 현지의 지방자치단체나 여러 시민단체와의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사업 시작 단계에서도 많은 협조를 받아낼 수 있었다.

직업훈련센터 시설은 지역 내 한 집을 임대·부분 수리하여 사용하고 있다. 비좁은 공간과 낡은 시설이지만 재봉틀, 컴퓨터 사용법, 뜨개질 배우는 곳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뜨개질을 배우러 온 중년 여성의 의자 뒤쪽에 3~4세 어린아이가 몸도 제대로 못 가누면서 엄마에게 매달려있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기술을 배우러 오는 엄마들이 아이를 돌보아 줄 수 있는 가족이 없어서 함께 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어린이들을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는 보육교사는 없고 센터 자원봉사 아줌마들이 도와주고 있다.

2023년 11월 22일 개소식 이후 2025년 12월까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총 262명, 생활지원 프로그램에 총 226명이 참가하였다.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된 상품은 노조와 기업체의 행사, 바자회, 마켓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또한 판매금의 일부분은 제작에 참여한 훈련생들에게 지급되었다. 파야타스 직업훈련센터는 롤모델이 되어 여러 바랑가이(필리핀에서 가장 작은 지방 정부 단위)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다. 2024년 5월에 퀘손시 시장(Mayor Joy Belmonte)으로부터 지역사회개발 공헌상을 수상하였고, 2024년 7월에는 Benita & Catalino Yap Foundation으로부터 사회적기업 개발상을 수상하였다.

한편, 파야타스 직업훈련센터는 사업 고유의 직업훈련 및 생활지원 프로그램 활동 이외에도 지역의 주민센터 역할을 통해 주민들의 사랑방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기적으로 보건소 직원들과 협조하여 지역 주민들의 보건 및 예방사업 관련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노인들에게는 폐렴 예방접종, 어린이들에게는 각종 면역 접종, 기초 의료 진단 및 무료로 의약품을 배포하고 있다. 태풍이나 홍수 피해가 났을 때 긴급 구호 식량과 구호품을 배포하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줌바댄스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우리는 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는 성공한 훈련생들도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중 한 청년은 중동지역에 취업했지만, 갑작스러운 사업 중단으로 할 수 없이 귀국해야 했고, 마침 센터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컴퓨터·포토샵 교육을 이수하여 현재는 파야타스 바랑가이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다. 다른 여성들은 헤어 기술, 뷰티 메이커 교육을 받고 개인적으로 사업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의 자신감 넘쳐 보이는 밝은 표정을 통해 우리는 경제적 자립을 통해 자기 주도의 삶을 영위하고,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부모보다 더 정신적,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까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배경에는 금융산업공익재단 임직원들의 외국 문화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 그리고 사업을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필리핀 팀들의 열정과 정직한 태도, 원활한 의사소통이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사회공헌사업이 한국의 성장 발전 스토리를 공유하되 우리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별로 독특한 역사, 지리적 환경 등 여러 요소가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인간은 누구나 교육을 통해 스스로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재 의미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러한 공통적 가치에 기반한 작은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파야타스 직업훈련 사업은 한국과 필리핀을 이어주는 새로운 소나타 연주를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05

지역과 세계

금융산업공익재단과 함께 걷는 디지털 포용사회로 가는 길

박승진
한국정보과학진흥협회 이사장

일러두기 재단 홈페이지 게재일 : 2026년 2월 24일

디지털 기술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식당 주문, 금융 업무,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까지 우리의 일상은 이미 디지털을 전제로 움직이고 있다. 문제는 기술의 속도가 아니라,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졌는가이다. 누군가에게 디지털은 편리함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사회로부터 한 발짝 멀어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디지털 포용사회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금융산업공익재단과 함께 시작한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사업이 어느덧 3년차에 접어들었다. 사업 초기,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던졌던 질문은 단순했다.

"이 교육이 과연 현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지만, 교육 대상자들이 놓인 환경은 복합적이고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그럼에도 3년간 전국 곳곳의 현장을 직접 마주하며 분명해진 사실이 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책임의 영역이라는 점이다.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은 시혜가 아니다.

이는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이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디지털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변화는 늘 조용히 시작되지만, 현장에서는 분명한 흔적으로 남는다.

지난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약 700회의 디지털 교육을 운영하며 8,500여 명의 어르신과 디지털 취약계층을 만났다. 해남 땅끝마을, 완도 길끝마을, 교통편이 하루 한 번뿐인 섬 지역까지 찾아가며 교육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가장 분명하게 확인한 사실은, 디지털을 사용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생활 속에서 바로 쓰이는 교육, 디지털 교육의 본질

교육 내용은 철저히 생활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스마트폰 기본 기능, 문자와 사진 전송, 카카오톡 활용 같은 가장 기초적인 내용부터 키오스크 주문, 모바일 금융 서비스, 보이스피싱 예방교육까지 '오늘 배워서 오늘 써먹을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구성했다. 복잡한 기능 설명보다 반복 실습과 개인별 속도 조절을 우선했다. 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자신감이 생겼다."라는 말이었다.

최근에는 디지털 격차가 AI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초적인 AI 활용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음성 명령으로 날씨를 묻고, 길을 찾고, 필요한 생활 정보를 검색하는 수준이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시작이다. AI가 일상 깊숙이 들어오는 시대에 시니어 세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로 남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AI 교육의 목적은 기술 숙련이 아니라, 두려움을 줄이고 사회 변화의 흐름에서 스스로를 배제하지 않도록 돕는 데 있다.

낙도와 오지를 마다하지 않는 강사들의 전문성과 책임감

이 사업의 중심에는 강사들이 있다. 디지털 교육 강사들은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다. 각 지역의 특성과 대상자의 눈높이를 이해하고, 설명보다 경청을 먼저 하는 현장 전문가들이다.

강사들의 열정은 개인적인 헌신이 아니라, 디지털 포용에 대한 책임감에서 비롯된다. 단순히 정해진 커리큘럼을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반응에 따라 내용을 바꾸고,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며 이 과정에서 강사들은 교육자이자 동반자가 된다.

특히, 전국 5개 권역에서 112명의 시니어 디지털 문해교육사가 양성된 것은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시니어가 시니어를 가르치는 구조는 교육의 지속성을 높였고, 지역사회 안에서 디지털 문해력이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기반을 만들었다. 이는 일회성 복지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디지털 역량을 키워가는 투자이자 포용 모델이다.

AI 시대로의 전환, 시니어 세대를 외면하지 않기 위해

AI 기술은 생산성과 편의성을 높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장벽이 될 수 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AI는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세상'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다. 디지털 포용이 멈추는 순간, 사회적 고립은 더욱 심화된다.

그래서 지금의 디지털 교육은 단순한 기술 전달을 넘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과정이어야 한다. "나는 못한다"는 인식을 "나도 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 그것이 디지털 교육의 본질이다. AI 시대에 시니어 세대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일은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과제다.

디지털 포용사회는 선언이 아니라 실천으로 만들어진다.

가장 느린 사람의 속도에 사회의 보폭을 맞추고, 가장 먼 곳까지 책임지려는 꾸준한 실천 속에서 완성된다. 지난 3년간 이 사업을 운영하며 확신하게 된 한 가지는 분명하다. 디지털 교육의 성과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표정으로 확인된다는 사실이다. 손주에게 처음 영상통화를 걸고 웃음을 터뜨리던 순간, "이제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조용한 한마디 속에 이 사업의 의미가 모두 담겨 있었다.

디지털 포용사회로 가는 길은 어느 한 조직의 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앞으로 재단과 우리 협회는 단순한 지원자와 수행기관의 관계를 넘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걷는 동반자로서 재단의 안정적인 지원과 분명한 방향 제시 위에, 수행기관의 현장 전문성과 실행력이 더해질 때 비로소 변화는 단순한 프로그램을 넘어 지속 가능한 구조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지난 3년간의 현장은 이러한 협력의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기술의 발전이 누군가를 뒤처지게 만드는 단절이 아니라, 모두를 사회 안으로 다시 연결하는 매개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걷는 이유다.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옥고를 보내주신 **칼럼니스트**(소속은 게재 당시 기준)

01 시대를 읽다
우리 사회의 진단과 과제



추원서
금융산업공익재단 상임이사



배정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김호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노광표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이강범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박준식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前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장)



조대엽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사)선우재 이사장



이종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원장



박동호
인권재단 사람 이사장



정회옥
명지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정치외교학전공 교수

02 나눔의 방식
공익재단과 사회공헌의 길



송경용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이종익
한국사회투자 대표/최고투자책임자



강혁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사무국장



고대권
이노소셜랩 대표



남기창
이로운넷 편집국장



김경하
더나은미래 편집국장



공광규
범우문화재단 상임이사
(前 금융노조 교육문화홍보본부장)



최재호
현대차 정몽구재단 사무총장



추원서
금융산업공익재단 상임이사



박준범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국장

03 포용금융
금융의 문턱을 낮추다



최현자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이계문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前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박 향희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상임이사



이복순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팀장



이옥경
(사)밥 일 꿈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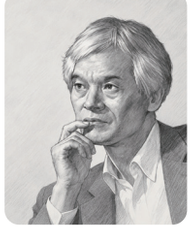
안기천
전국퇴직금융인협회 회장



이제원
(사)나눔과미래 지역활성화국장



유송화
신용회복위원회 재기지원본부장



송호근
한림대학교 석좌교수



차경욱
성신여자대학교 소비자산업학과
교수

04 일과 미래세대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김영우
해솔직업사관학교 이사장



이문수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한수정
아름다운커피 대표



석원정
노동인권회관 부소장



전상혁
(사)가치있는누림 센터장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



권지현
방송작가유니온 영남지회장



이봉원
대한사회복지회 회장



홍윤희
(사)무의 이사장



조현식
(사)온기 대표

05 지역과 세계

함께 사는 공동체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前 주UN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정석왕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이현지
유엔세계식량계획(WFP) 한국 사무소장



현진영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 대표



강정희
신안군복지재단 이사장



강호진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대표



김지연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 매니저



최정식
UNI-KLC(국제사무금융서비스 노조 한국협의회) 사무총장



박승진
한국정보과학진흥협회 이사장